



2016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 방안



제 출 문

(사)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6년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 방안』 용역보고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연구책임자 :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함석종

▣ 연구기간 : 2016.06.01~2016.08.31(90일)

▣ 연구원

책임연구원 : 함석종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연구원 : 고은채 (콘텐츠 글찬마루 대표)

연구보조 : 남예진, 이경은, 심정민, 오연정, 임진주, 이윤정
이용민, 이영민, 최원규, 임혜주, 엄정은, 김한솔
안은영, 이진주, 김민정, 임지민
(강릉원주대학교 학부생)

목 차

I. 시작하기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 2. 과업의 범위 12

II. 2016 강릉단오제 현황

- 1. 2016 강릉단오제 행사 개요 16
-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20
- 3. 2016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31
- 4. 2016 강릉단오제 홍보마케팅 전략 33

III. 2016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 1.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조사 분석 38
- 2. 2016 강릉단오제 전문가 진단 62

IV. 2016 강릉단오제 현장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개요 66
-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69
 - 1) 신주 빚기 69
 - 2) 산신제 성황제 봉안제 76
 - 3) 2016 단오제 본 행사 79
 - 4) 2016 강릉 단오제 상시 프로그램 184
- 3.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200

V.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영향분석	
1. 방문객 추정	218
2. 영향(파급 효과) 분석	220
1) 경제적인 영향(파급효과)	220
2) 비경제적인 영향(파급효과)	226
VI. 2016 강릉단오제 발전방안	
1. 기본방향 및 SWOT분석	230
2.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가치의 정립	231
3. “강릉단오제”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234
4. 강릉단오제 마케팅 방안	236
VII. 부록	
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248
2. 전문가 간담회 녹취기록	259
3.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현황	263
4. 방문객 설문지	267
5. 각 부문 체크리스트지	271

표 목 차

2016 강릉단오제 세부프로그램	20
2016 강릉단오제 설문지 구성	39
방문객 성별 그래프	40
응답자 연령 그래프	40
응답자 결혼 여부 그래프	41
응답자 거주 지역 그래프	41
응답자 학력 그래프	42
응답자 월평균 소득 그래프	42
응답자 직업 그래프	43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응답자 거주지 현황	45
방문횟수/동반자 유형/동반자 수	45
응답자 방문횟수	46
동행인	46
동반자 수	47
정보습득경로	48
지정문화재 선호 순위 표	48
강릉단오제 재방문의사 표	50
강릉단오제 구입용품	51
셔틀버스 이용여부	51
셔틀버스 개선사항	52
이용숙박시설	53

이용교통수단.....	53
지출비용 내역	54
강릉단오제 행사 참여 응답표	57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그래프	59
미래 강릉단오제 참가 여부 빈도 표 및 그래프	60
미래 강릉단오제 재방문이유	60
모니터링 항목 및 세부 내용	67
신주 빛기 체험 과정	69
양주소놀이굿	107
수리마당 · 아리마당 음향 시설 표	216
팀별 방문객수 추정	219
2016 강릉단오제 행사 수입 지출	221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 파급 효과	221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222
전체 축제참가자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1안)	223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2안)	224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3안)	225
2014년 강릉단오제 경제 파급효과	226
중국단오와 강릉단오 차이 분석	231
아리마당 공연 구성 비율	240

그림 목 차

연구체계 도표	14
2016 강릉단오제 행사장 조성도	31
꼬마버스 타요 맵핑과 장자마리 맵핑 버스 예	52
강릉 대도호부 문화재 터	72
신주 빛기 홍보마케팅 전략 키워드	73
강릉 임영 관 내	74
신주 빛기 체험 행사	75
금릉 빛내 농악 특징	110
영신행차 이동 경로 및 시간	125
단오제단 후면 공터	207
앵두화채	209
단오 공간 배치 예	234
단오제 캐릭터를 이용한 공공디자인 개선 예	237
강진 청자축제 상징 조형물	238
화천 '물이나라 쪽배축제 예 '월업편주'	241
단오문 관광자원화 사례 '광화문 수문장'	24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효과	244
살아있는 박물관 판당고	265
스페인 전통문화 센터 - 푸솔학교 박물관 프로젝트	266



I. 시작하기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 의 행사 운영관리 및 방문객의 행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 세계의 “강릉단오제” , 세계 전통 축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 “문화올림픽”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릉단오제의 역할과 전략 방안 모색이 요망됨.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16년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에서 행해진 강릉단오제 (축제) 에 대한 행사의 진행 상황,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함.
- 방문자(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단오제 참여 행태, 인지도와 만족도,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함.
- 상기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 강원도 강릉시 강릉 대도호부 일원
- ▶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일대
-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

(2) 시간적 범위

- ▶ 2016년 강릉 단오제 행사 기간 전후
 - 2016. 05.11~06.12 (33일간)

(3) 내용적 범위

- ▶ 강릉단오제 행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강릉단오제 행사 시설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 실태 조사 분석
- ▶ 강릉단오제 홍보 및 마케팅 조사 분석
- ▶ 강릉단오제 운영관리, 지역민, 방문객, 전문가 평가 분석
- ▶ 강릉단오제 경제, 사회, 문화 효과 분석
- ▶ 강릉단오제 발전방안 제시

2) 과업 수행 방법

(1) 문헌조사

- ▶ 축제 프로그램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 ▶ 각종 관련 자료 수집 분석

(2) 현장조사 (FIELD SURVEY)

- ▶ 관찰 및 모니터링
- ▶ 인터뷰
- ▶ 설문조사

(3) 전문가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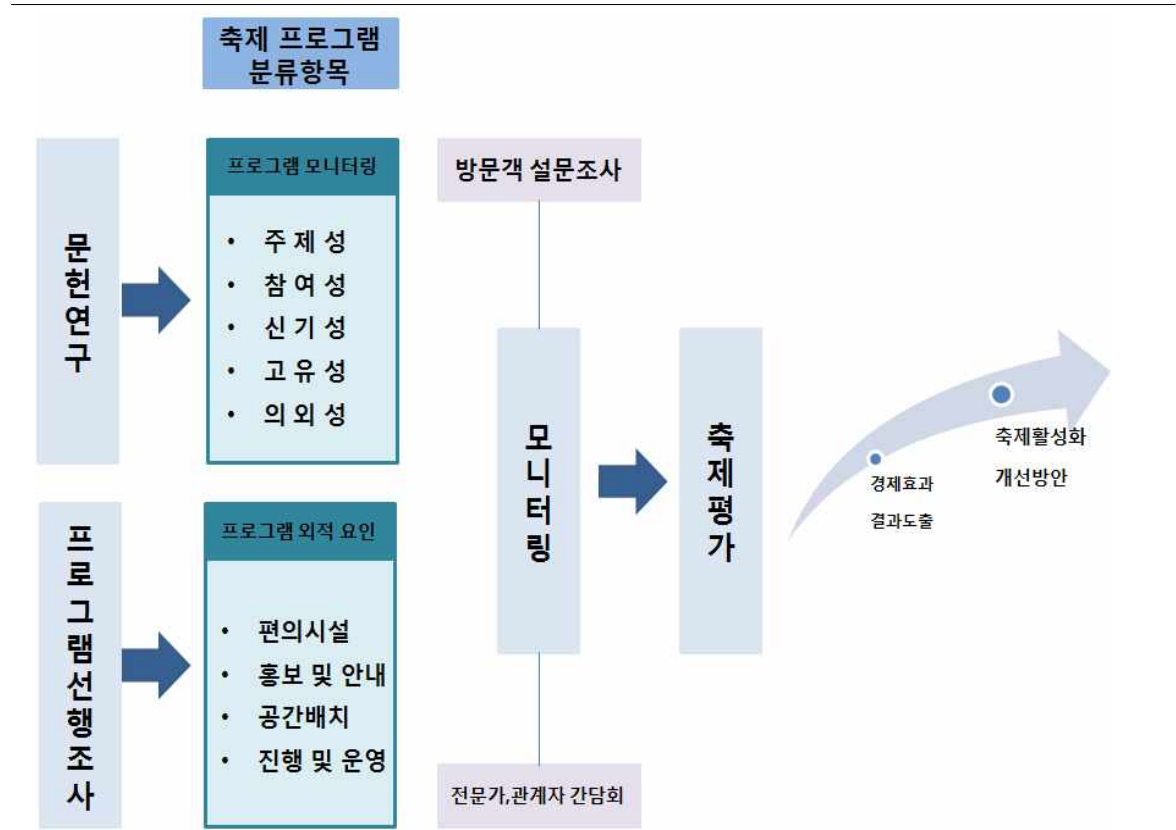
- ▶ 전문가 의견조사는 웹 톤 전문가 8인을 강릉단오제 팸 투어 (Familiarization Tour)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요약정리함.

(4) 자료의 분석 정리

- ▶ 기술적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정리하였으면, 설문조사의 결과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으로 만 이용하였음.
- ▶ 강릉단오제 방문자수의 추정은 목측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음.

3) 연구 체계

○ 2016 강릉단오제 축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체계를 진행하였음.



< 그림 1 > 연구체계 도표

II. 2016 강릉단오제 현황



관노가면극

1. 2016 강릉단오제 행사개요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3. 2016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4. 2016 강릉단오제 홍보·마케팅 전략

1 2016 강릉단오제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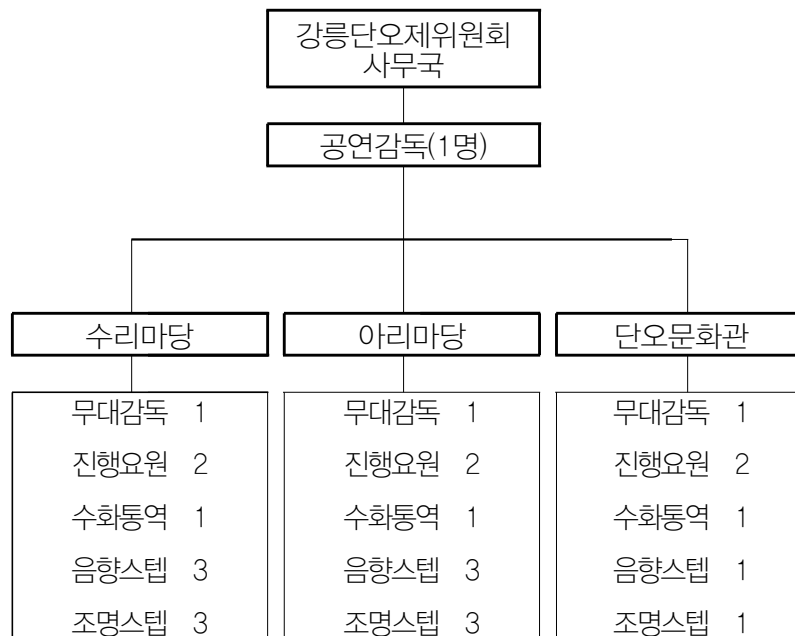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6 강릉단오제 – 2016 Gangneung Danoje Festival
- 주 제 : 단오와 몸짓
- 기 간 : 2016. 05.11~06.12 (33일간)
- 장 소 : 강릉 남대천 및 지정 행사장
- 주 최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외
- 주 관 :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 외
- 주요행사: 지정문화 행사 등 12개 분야 75개 프로그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예산현황: 총909,000백만원 (시비 : 719,000 / 자부담 및 기타(수익금) : 190,000)

2) 행사 운영체계

(1) 공연 운영체계

- ▶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상임이사 1명, 팀장 2명, 직원4명), 공연감독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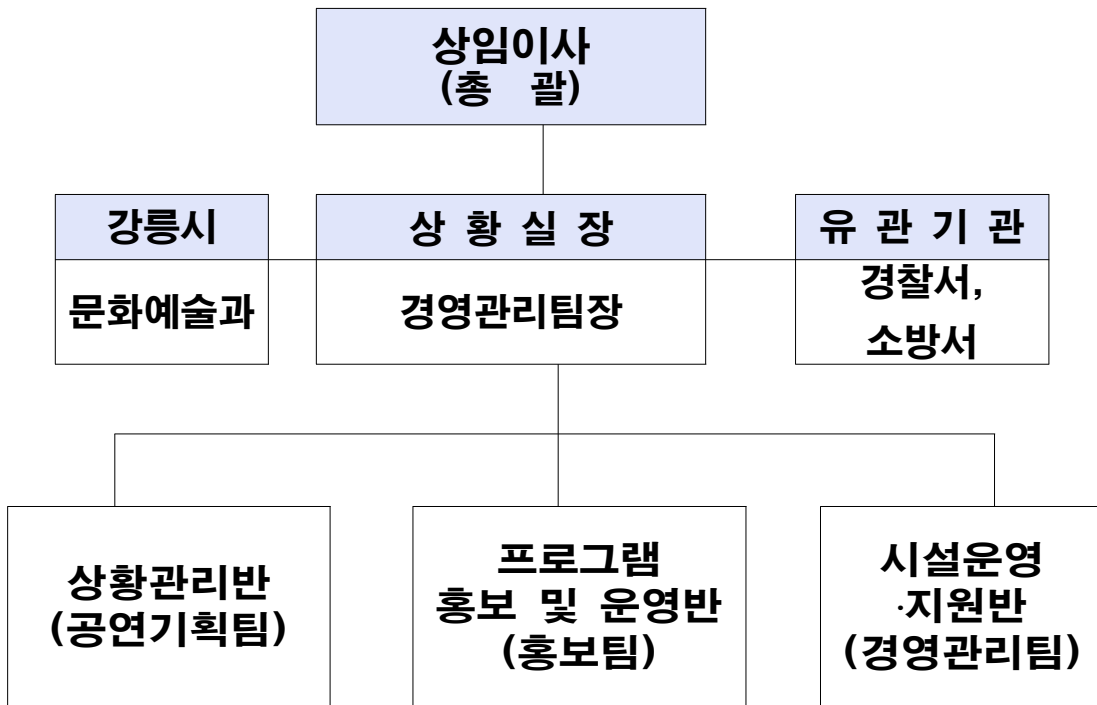
- ▶ 공연장 별 감독 및 스텝

구 분	공연 감독	무대 진행	음향 스텝	조명 스텝	진행 요원	수화 통역	자원 봉사자	청소	보조시설 내역
합 계	1	3			6	2	6	강릉시 자체계획	
수리마당		1	3	3	2	1	2		대기실
아리마당		1	3	3	2	1	2		대기실
단오문화관		1	1	1	2	-	2		대기실

(2) 행사장 운영

▶ 행사장 운영 참가 기관 : 강릉단오제 위원회, 강릉시, 경찰서, 소방서

▶ 행사장 운영 조직도



▶ 담당업무 및 분야별 업무분장

구분	담당업무	비고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운영 총괄 	
상황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종합 상황 관리 ○ 주요 VIP 동향 관리 ○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유지 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종합 대책 관리 	경영관리팀장
상황반장 및 상황관리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회의 및 일일상황 보고자료 작성 ○ 팀 별 협조 및 조정, 주요사항 파악 보고 ○ 행사장 연락체계 유지 및 각종 자료 집계 ○ 상황실, 접견실 상황판 작성 관리 ○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팀장 및 담당자

구 분	업 무 분 장 주 요 내 용
상황관리반 (공연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상황보고 및 회의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전파 ○ 주요상황 취합 처리 및 총괄 관리 ○ 각종 지시사항, 공지사항 전달 ○ 공연무대, 전시·체험, 포럼 프로그램운영·관리 ○ 공연단 및 진행요원 운영·관리 ○ 비상상황 관리 및 전파, 비상연락 체계 구축, 비상대책회의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반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프레스룸 관리 및 운영 ○ 기자단 응대 및 기사송고 지원 ○ 관람객 현황 관리 ○ 비상상황 시 홍보
시설운영 · 지원반 (경영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및 폐장 점검 및 관리 ○ 회장 운영인력 근태관리 ○ 물자관리에 따른 현황파악 관리 ○ 회장 방송, 청소, 경비, 보건, 위생 안전 분야 주요 상황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기반시설 및 환경 연출 분야 주요상황의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차량통제, 주차장관리 등 교통관련 주요사항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각종 영업임대사업 시설 운영 상황 관리 ○ VIP 의전관리 ○ 각종 편의시설 운영상황 파악 및 관리 ○ 비상상황 시 대피유도, 응급복구 처리 및 행정지원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 주요 행사

(1) 주요 행사 내용 : 12분야 75개 프로그램

〈 표 1 〉 2016 강릉단오제 세부프로그램

항 목	분야	수	상세 프로그램
1	지정문화재 행사	12	① 신주빚기 ② 대관령산신제 ③ 대관령국사성황제 ④ 구산서낭제 ⑤ 학산서낭제 ⑥ 봉안제 ⑦ 영신제 ⑧ 영신행차 ⑨ 조전제 ⑩ 단오굿 ⑪ 관노가면극 ⑫ 송신제·소제
2	기획공연 및 전 시	3	① 주제관 ② 기획공연 <굿 위드 어스 2>, ③ 기획공연 <에사자, 오사자>
3	전통연희 한마당	6	① 중요무형문화재공연 ② 道무형문화재 공연 ③지역무형문화재공연 ④ KBS농악경연대회 ⑤ 사물놀이경연대회 ⑥ 관노가면극발표회
4	무대공연예술제	4	① 무대공연예술행사 선정작 ② 국내예술단초청공연 ③ 한청살바가요제 ④ 자매도시 교류 공연
5	청소년어울림한 마당	4	① 청소년가요제 ② 청소년댄스페스티벌 ③ 청소년 단오마당 D.Y.F, ④ 블링블링강릉단오
6	국외 초청공연	5	① 중국 길림성(EATOF 회원국), ② 몽골 튜브도(EATOF 회원국), ③프랑스 가나페스티벌 (CCN 회원국), ④ 중국 형주시(강릉시 자매도시), ⑤ 중국사천성 (울곡연구원 교류)
7	단 오 체 험 촌	12	① 수리추떡 맛보기 ② 단오신주 맛보기 ③ 창포머리감기 ④ 관노탈그리기 ⑤ 관노탈목걸이 만들기 ⑥ 단오캐릭터 탁본하기 ⑦ 단오부채 그리기 ⑧ 단오부적 그리기, ⑨ 단오차(茶) 체험 ⑩ 단오 컬러링체험 ⑪ 한복입기체험, ⑫ 오륜주머니 체험
8	시민참여 한마당	4	① 신주 미 봉장행사 ② 신주 빚기 체험행사 ③ 단오 소원 등 행사 ④주민자치센터 발표회
9	신통대길 길놀이	1	① 신통대길 길놀이
10	민속놀이행사	5	① 씨름대회, ② 그네대회, ③ 투호대회, ④ 줄다리기대회, ⑤ 윷놀이 대회
11	건축문화예술 행사	9	① 강릉사투리경연대회, ② 대한민국전통주산발대회, ③ 단오깃발 사진 ④학생미술대회, ⑤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⑥ 전국민요경창대회, ⑦강릉단오제체험기·독후감경진대회, ⑧ 전통혼례시연, ⑨제일고중앙고 축구정기전
12	부대행사	9	① 다문화 체험 촌 ②전국사진공모전 ③한복입기캠페인 ④팸투어 ⑤불꽃놀이 ⑥경품추첨행사 ⑦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⑧아빠안 스쿨투어, ⑨GREAT KOREA 홍보사절선발대회

(2) 세부 행사 구성

▶ 지정문화재 행사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지정 문화재 행사	신주 빛기	2016. 5. 11 칠사당
	대관령 산신제	2016. 5. 21 대관령산신당
	대관령 국사성황제	2016. 5. 21 대관령국사성황사
	구산서낭제	2016. 5. 21 구산서낭당
	학산서낭제	2016. 5. 21 학산서낭당
	봉안제	2016. 5. 21 흥제동 여성황사
	영신제	2016. 6. 7 흥제동 여성황사
	영신행차	2016. 6. 7 흥제동 여성황사 ~ 단오제단
	조전제	2016. 6. 8 ~ 6. 12 단오제단
	단오굿	2016. 6. 8 ~ 6. 12 단오제단
	관노가면극	2016. 6. 5 ~ 6. 12 아리마당
	송신제 / 소제	2016. 6. 12 단오제단 - 송신제 2016. 6. 12 단오 섬 - 소제

▶ 기획공연 및 전시

구분	사업명	행사 개요
기획공연	기획공연	<p>※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단오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단오와 의상”, 2015년 단단단 페스티벌의 “단오와 소리” 그리고 2016년에는 “단오와 몸짓” 을 소주제로 선정하여 기획공연 및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음.</p> <p>① “굿 위드 어스” - 춤, 단오 그리고 신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 : 황루시 • 일시 : 6. 8 <21:00> • 장소 : 수리마당 • 기획의도 : 巫(무)라는 한자는 춤추는 무녀의 소매자락을 형상화한 것이다. 춤추지 않는 무녀가 어디 있으랴! 무녀는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인간과 신의 소통을 가능케 해준다. 오로지 춤으로 단오의 신명을 풀어내는 공연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웅숭깊은 한을 풀어내자! 그리고 신명으로 솟구쳐보자! <p>② 에시자, 오시자 - 단오의 몸짓, 날개를 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 : 김명대 • 일시 : 6. 10 <21:00> • 장소 : 수리마당 • 기획의도 : 강릉단오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춤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네 삶에 있어 춤과 소리란 내면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힘들고 고단함을 덜어내기에 우리 민족은 소리와 춤을 곁에 두고 행해왔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릉단오제, 또한 그것과 함께한 춤과 소리들은 자연스레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소소히 남아이어지고 있다.

▶ 전통연희한마당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전통연희 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5팀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아류 •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
	도(道)무형문화재 초청공연 (3팀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금릉 빛내 농악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홍성결성농요 •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
	지역무형문화재 초청공연 (17팀 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 보존회 공연 (1팀 5회) • 관노가면극 전수단체 공연 (8팀 8회) • 관노가면극 인형극 공연 (1팀 3회) • 단오굿 무속악 공연 (1팀 2회) • 강릉농악 공연 (7팀 7회) • 강릉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4회) • 구정초 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1회) • 사천하평답교놀이 공연 (1팀 2회) • 금산용물달기 공연 (1팀 1회)
	KBS 농악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농악 경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
	관노가면극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 발표회 및 퍼레이드

▶ 무대공연예술제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무대공연 예술제	무대공연예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공연예술행사 선정 작 17개 팀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예술단 초청공연 (4팀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탐라 문화제 - 전주 세계소리 축제 - 정선 아리랑 제 - 부평풍물대축제
	한청실버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청 실버가요제
	국내자매도시 교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예술단

▶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가요제	• 단오맞이 제 20회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 단오맞이 2016 청소년댄스페스티벌
	청소년 단오마당	• 청소년 단오마당 D.Y.F
	블링블링 강릉단오	• 블링블링 강릉단오

▶ 국외 초청 공연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국외 초청 공연	강원 EATOF 회원국 공연	• 중국 길림성 • 몽골 튜브도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 회원국	• 프랑스 가나 페스티벌
	강릉시 자매도시	• 중국 형주시
	울곡연구원 교류	• 중국 사천성

▶ 단오 체험 촌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단오체험촌	수리취떡 맛보기	• 운영단체 : 배다리회 • 주요내용 : 수리취떡 인절미, 절편 맛보기, 떡 찌기
	단오신주 맛보기	• 운영단체 : 오죽헌 시립 박물관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신주 맛보기
	창포머리감기	• 운영단체 :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 주요내용 : 창포물에 머리 감기
	관노탈 그리기 관노탈목걸이 만들기	• 운영단체 : 강릉적십자 강릉봉사회 • 주요내용 : 시시딱딱이 탈에 물감으로 그리기
	캐릭터 탁본하기	• 운영단체 : 관동대학교 금석문 연구회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활용한 탁본체험
	단오부채 그리기	• 운영단체 : 단오부채연구회 • 주요내용 : 물감으로 나만의 부채 그리기

	단오 부적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명성황후 혜원 곳 보존회 • 주요내용 : 액막이 부적 그리기
	단오 차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한송정 다도회 • 주요내용 : 감잎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차 맛보기
	단오 컬러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고임돌 봉사회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컬러링 체험 ※ 2016 강릉단오제 신설 프로그램
	오륜주머니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오륜(오복)주머니 던지기 체험 ※ 2016 강릉 단오제 신설 프로그램
	한복입기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다양한 한복을 입고 단오장 구경하기 ※ 2016 강릉단오제 신설 프로그램

▶ 시민참여행사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시민 참여 행사	신주미봉정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6.04.18~05.11 • 장 소 : 21개 읍면동 사무소 및 칠사당 • 대 상 : 강릉시민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십시일반 헌미를 걷음
	신주 빚기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05.11 (14:00) • 장 소 : 강릉대도호부 관아 (서현 일대) • 대 상 :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 • 모집인원 : 60명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직접 신주 빚기 행사를 재현하는 체험
	단오 소원 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06.05 (19:00)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목을 따라 약 2.2km의 거리를 단오 등을 들고 거리 퍼레이드를 펼침 - 단오등과 교환한 경품권을 6.12일 저녁 7시부터 경품추첨 행사에 참여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06.05 (18:00) • 장 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강릉 19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솜씨 겨루기

▶ 민속놀이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민속놀이	씨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청년회의소 • 기 간 : 2016.06.05~06.12 • 주요내용 : 단오의 대표적 민속놀이 씨름 마을대항 단체전, 개인전, 씨름 체험 등을 진행
	그네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재강로타리클럽 그네 대회 상설 위원회 • 기 간 : 2016.06.05~06.12 • 주요내용 : 단오의 대표적 민속놀이 그네, 마을 대항전, 개인전, 그네 체험 등을 진행
	투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문화원 임명 문화재보호회 • 기 간 : 2016.06.07~06.12 • 주요내용 : 마을대항전 및 체험으로 구성. 참가자는 모두 한복을 입어야 하나, 체험자는 예외
	줄다리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라이온스클럽 • 기 간 : 2016.06.09 • 주요내용 : 21개 읍면동 마을대항 단체전
	웃놀이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 기 간 : 2016.06.10 • 주요내용 : 21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총 26개 팀의 웃놀이 대회

▶ 경축문화예술행사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경축 행사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원일보사 • 일 시 : 2016.06.09 (19:00) • 장 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강릉사투리를 재미있는 형태로 소개 강릉 말을 통해 강릉문화를 폭 넓게 이해 함
	대한민국 전통주 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원도민일보사 • 기 간 : 2016.03.11~06.09 • 시상장소 : 2016.06.09 (단오문화관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전통 가양주 선발 대회 및 시상
	단오깃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임영민속연구회

	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6.06.05~06.12 • 장 소 : 남대천 잠수교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의 신주빛기부터 송신제까지 모든 과정을 깃발로 표현하는 사진전
	학생 미술실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 일 시 : 2016. 6. 11 <10:00> • 장 소 : 단오공원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미술로 표현.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강릉지부 • 일 시 : 2016. 6. 9 <10:00> • 장 소 : 단오문화관 • 주요내용 : 시조경창대회를 통한 시조창의 저변확대 및 후학 양성
	제3회 단오맞이 전국민요경창대회 솔향아리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원민요연구원 • 일 시 : 2016. 6. 6 <10:00> • 장 소 : 단오문화관 • 주요내용 : 민요경창 및 아리랑 경연대회
	강릉전통혼례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성균관여성유도회 강릉지부 • 일 시 : 2016. 6. 11 <10:00> • 장 소 : 아리마당 • 주요내용 : 전통혼례시연을 통한 전통문화 보급
	강릉단오제 체험가독후감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문인협회 • 기 간 : 2016. 4. 20 ~ 6. 25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관련 서적 독후감 쓰기 및 단오제 체험 후기 공모
	제일고·중앙고 축구정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 • 기 간 : 2016. 6. 11 <11:00> • 장 소 : 종합운동장

▶ 부대행사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부대 행사	다문화체험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 간 : 2016. 6. 5 ~ 6. 12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內
	전국사진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진작가협회 • 기 간 : 2016. 3. 1 ~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기간 중 강릉의 관광 사진 • 주관단체 : (사)한국우취연합 강릉우취회
	단오우표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미정 • 장 소 : 강릉시청 로비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를 맞이하여 단오우표 전시
	팸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팸투어를 활용한 강릉단오제 홍보 • 주요 프로그램 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작가 초청 팸투어 : 6. 8 ~ 6. 9 - 모두의 이벤트호회 팸투어 : 6. 11 - 다문화외국인 단오체험 : 6. 5~ 6. 12
	불꽃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16. 6. 5 <21:00> - 2차 : 2016. 6. 12 <21:00> • 장 소 : 단오 섬
	경품추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협찬 : 현대자동차, 롯데주류 외 다수 • 일 시 : 2016. 6. 12 <19:00> • 장 소 : 수리마당
	한복입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기 간 : 2016. 6. 9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內 • 주요내용 : 단오기간 중 한복을 입고 단오장 오기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 6. 10 <10:00> • 장 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도쿄하계 올림픽,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중 학생들의 교육 올림픽
	아세안 스쿨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한-아세안 센터 • 일 시 : 2016. 6. 10 <13:00> • 장 소 : 단오문화관 • 주요내용 : 아세안 10개국 문화체험 및 각국 대사들과의 토크 콘서트
	GREAT KOREA 홍보사절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Great Korea 홍보사절선발대회조직위원회 • 일 시 : 2016. 6. 6 <19:00> • 장 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한복 맵시 선발

▶ 기타 행사

구분	사업 명	행사 개요
난장	홍보 체험부스	• 일반 개인 체험부스 또는 공익 기관단체의 홍보의 장
	세계풍물시장	• 다양한 나라의 민속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터
	향토음식점	• 특색 있는 지역 마을단위의 참여로 이루어진 강릉 향토 음식점들로 구성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 • 동춘 서커스 • 품바
	농특산물 판매존	•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생산물품으로 구성
	먹거리 장터	• 지역의 공익 기관단체 참여 • 풍물시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먹거리촌 참여
	강릉첨단과학체험관	• 강릉 지역 과학의 수준을 선보이는 체험의 장
	동계올림픽 체험관	• 빙상종목 개최지를 알리는 강릉의 올림픽 체험, 홍보의 장
	강남동 풍물시장	• 오락품목 다수 입점 • 먹거리와 즐길 거리 위주의 장터로 구성
	중앙동 풍물시장	• 이불 전 특화 장터 구성 • 살거리 위주의 장터로 구성

2) 행사 일정표

일시	장소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016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정표	5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6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7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8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9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10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11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12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1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2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3월 5일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아리마당	수리마당

* 참가 신청은 사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16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1) 행사장 공간 현황

- 2016 강릉단오제 본 행사장은 단오문화관을 중심으로 남대천 주변 지역
- 행사장현황 : 남대천 단오장 46,615㎡
- 주 요 시 설: 단오제단(굿당), 수리마당(무대), 아리마당(마당놀이), 단오문화관 (실내), 난장 , 씨름장, 그네 터, 단오(창포)섬, 단오공원



< 그림 2 > 2016 강릉단오제 행사장 조성도

○ 구역별 행사 내용

구분	행사장 내용
A 구역 : 메인행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단, 공연장, 단오체험 존, 씨름장, 그네 터,, 종합안내소, • 향토먹거리 존, 창포쉼터 등, 메인 시설물 설치
B 구역 : 단오문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문화관(주제관), 신주교환소 등 • 단오공원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장소 활용
C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부스 및 이불 전 등
D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시장
E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커스 및 과학 체험관, 먹거리 존 등
F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다리기, 윷놀이, 불꽃놀이 행사, 소제행사 등

○ 주요시설별 설치물 상세내역

구분	상세 항목
단오제단(굿당)	대형텐트 20m×25m×10m, 음향, 조명, LED전광판(굿 설명), 편의시설(평상 1식, 조립식 관람석 63석, 에어컨 3대, 정수기 3대)
수리마당	무대(대형텐트 20m×15m×15m, LED전광판, 조정실용 간이무대, LED전광판용 무대, 상하수 뒤쪽 슬로프형 계단, 바닥 포맥스 마감), 객석(대형텐트 20m×20m×8m), 음향, 조명,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용 컨테이너 3동, 에어컨 3대, 정수기 3대), 오퍼레이터 3명
아리마당	대형텐트 25m×35m×10m, 음향, 조명, 본부석용 간이무대 9m×3.6m×0.6m,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용 컨테이너 2동, 계단식 관람석 450석, 에어컨 2대, 정수기 2대), 계단식 관람석 450석, 오퍼레이터 2명
단오문화관	음향, 조명, 기존 무대, 객석 453석,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 2실, 자체 냉방장치, 자체 정수기 1대) 추가 조명 사용 외부 오퍼레이터 2명
난장	노점(몽골텐트 5m×5m : 286동, 3m×6m : 220동), 식당(몽골텐트 10m×10m : 19동), 행사장내 향토 음식점 6동, 서커스(전용텐트 25m×35m : 1동), 놀이기구(미니회전그네, 미니페달보트, 미니기차, 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유로번지점프), 품바(텐트 20m×20m : 2동), 과학산업진흥관(ALU-HALL 20m×20m 1동), 이불전(몽골텐트 5m×5m : 10동), 화장실(6300×2500×3100 : 13동)
성내동 광장	음향, 조명, 무대(레드카펫 36m×12m, 전광판 받침대 설치), LED 전광판, 편의시설(계단식 관람석 735석, 플라스틱 의자 300석), 이동식 화장실 2동
씨름장	몽골텐트(운영본부 5m×5m 3동, 관람석 5m×5m 3동/ 3m×6m 1동), 음향, 편의시설(그늘막 18m×15m)
그네터	몽골텐트(운영본부 5m×5m 3동/ 3m×6m 1동), 음향1식, 편의시설(그늘막)

○ 2016 강릉 단오제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안

▶ 개요

- 휴식 공간 확충
- 관람객 위주의 동선과 시설 개선
- 안전 최우선 시설

▶ 내용

- 휴식 공간 : 창포쉼터, 단오 공원, 만남의 광장 시설 확충 (단오 섬, 단오공원 쉼터 추가 시설)
- 쉼 다리 : 철 구조물 + 목조 상판으로 안전성 강화
- 관람객 편의 시설 : 수리마당 일체형 대형 텐트 설치
- 식당 상가 카드 단말기 의무 설치

4 2016 강릉단오제 홍보 · 마케팅 전략

1) 홍보 기본 방향

- 감성 마케팅
 - ▶ 강릉단오제에서만 느끼고, 공유하는 단오감성 마케팅 활용
- 연중, 상시 홍보 도입
 - ▶ 강릉단오제 보도 50선, 강릉단오제 홍보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찾아가는 홍보 등을 통해 연중, 상시 홍보효과 구축
- 홍보수단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수단을 확대하고 홍보 타겟 및 목적에 맞는 수단을 확보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함.
-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어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창출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도약하고자 함.

2) 홍보 전략

(1) 타겟별 홍보 전략

▶ 연령별

구 분	홍보전략
10대	- 교육청 협조, 학교 협조(교육적 가치 전달) - 참여 형 콘텐츠 소개 및 홍보(오락적 가치 전달)
20~30대	- 바이럴 마케팅 집중 피력 - 문화 관광상품으로서의 강릉단오제 홍보
40~50대	- 추억이 있는 강릉단오제 인지 -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을 어필
60대	- 추억이 있는 강릉단오제 인지 -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 지역별

구 분	홍보전략
강원권	- 애향심 호소, 강원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지 - 거리적, 심리적 가까움 홍보
전국권	- 강릉단오제 고유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차별화 어필 - 접근성 및 시설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홍보
국외	- 한국의 전통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치 있는 축제임을 홍보

(2) 단계별 홍보전략

구 분	기 간	홍보목적	중점목표
기초 홍보	연중	- 강릉단오제 브랜드이미지 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 및 협력조직과의 협조 체계 구축	- 홍보 Focus 설정 - 홍보계획 정비 및 협력시스템 구축
기반 홍보	3월	- 강릉단오제 인지 및 단오감성 전달 - 축제에 대한 관심 유도	- 홍보 채널 활용 극대화 -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국내·외 여행사)
집중 홍보	4월~ 5월	- 강릉단오제 브랜드 구축 및 홍보 - 축제에 대한 직접 참여 동기 유발	- 언론사 연계 및 활용 - 바이럴 마케팅 극대화
사후 홍보	6월~ 7월	- 대국민 감사와 행사 성과 평가	- 행사 평가 및 영상제작 등

(3) TOOL별 홍보 전략

▶ 온라인 홍보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상시 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수정 보완
- 각종 SNS,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이용
- 매월 2회, 단오감성을 전하는 단오 엽서 뉴스레터 발행
- 파워 블로거 1인 미디어 및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 관련기관 웹사이트 배너 광고 또는 링크 구성으로 홍보 접점 확대

▶ 오프라인 홍보, 찾아가는 홍보

- 강릉단오제 홍보 시설물의 디자인 통일성 확보 및 관리
- 홍보협력사를 활용하여 지속적, 단계적 오프라인 홍보 진행
- 박람회 및 타 축제 홍보부스 참여를 통한 강릉단오제의 장기적 홍보와 안내 서비스 제공
- ▶ 언론 매체 홍보
 - 신문매체 활용 홍보 및 방송매체 활용 홍보
- ▶ 잡지 및 행정기관 간행물 홍보
- ▶ 광고물 제작 및 홍보시설물 설치
- ▶ 인쇄물· 영상홍보물 제작
 - 홍보영상물 제작 : 30초~1분, 3분~15분 분량 등

항 목	발행종류	수 량	비 고
포스터	1종	500부	
행사안내 리플렛	1종	8,000부	국문
행사일정 리플렛	4종	50,000부	국,영,중,일
1일 일정 리플렛	1종	50,000부	국문
팸플렛	4종	10,000부	국,영,중,일
대관령산신제 리플렛	1종	1,000부	
신주미 봉정 안내문	1종	10,000부	
영신행차 안내문	1종	5,000부	
신통대길 길놀이	1종	20,000부	
자원봉사자 매뉴얼	1종	400부	

(4) 외국인 대상 홍보

- ▶ 홍보전략
 - 국내거주 원어민강사 및 다문화 가정 집중 홍보
 - 도내 시군 해외 자매도시 대상 홍보
 - 각종 스포츠 대회 및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 국내 외국인 여행객 대상 홍보
 - 재외공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홍보협조 문서 발송

- ▶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
 -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도 및 도내 각시군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ICCN회원국 자국(도시)내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공

- ▶ 국내 외국인 홍보
 - 외국인 국내 여행객 대상 홍보
 - 국내 다문화가정 중심 집중 홍보
 - 원어민 강사 대상 집중 홍보 (DM발송 등)

- ▶ 외국인 단오체험 진행
 - 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한 외국인 단오체험 운영

- ▶ 기타홍보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외국어 홍보물 발행(영,중,일)
 - 외국어 해설사 배치
 - 양양공항 국제선 취항에 따른 여행사 상품개발 등 연계 마케팅
 -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
 - 국내외 공항대합실 외국어 표기 홍보물 제작 배부



Ⅲ. 2016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1.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조사 분석
2. 2016 강릉단오제 전문가 진단

1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강릉단오제’ 의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한 방문객 설문조사
 - 우리나라 4대 명절, 한식·설·단오·추석의 하나인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높은 날’, 또는 ‘신의 날’ 이라는 뜻의 ‘수릿날’ 로 여김.
 - ‘강릉단오제’ 는 1000년의 역사를 지녀온 축제로 대관령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대관령 산신을 모셔와 제를 지내고 굿을 하며,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영, 집안의 태평을 기원함.
 - 강릉단오제가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른 단오제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제관의 의해 이루어지는 유교식 의례와 무당들의 ‘굿’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주신 ‘범일 국사’ 를 모심에 있음.
 - 유교· 무교· 불교가 하나가 되어 집안의 태평, 마을의 번영,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 는 대한민국 동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 이자 1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어 온 “인류 전통 문화 축제” 임.
 - 현재, 강릉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의 빙상경기 개최 도시로서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을 위한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 함.
 - 그러므로 강릉의 전통 문화 유산 ‘강릉단오제’ 의 진행과정과 프로그램 시설·운영 사항 등 축제 전반 항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세계의 강릉단오제’ 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 ‘2016 강릉단오제’ 축제기간 동안 축제현장을 방문한 방문객 및 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 특성 분석 및 방문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해 내고자 함.

(2) 조사 설계

- ▶ 조사 방향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강릉단오제에 적합한 항목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를 작성, 조사 항목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 조사 시기

- 2016.06.05~06.12 (총 8일간)
- 설문조사는 축제기간 매일 진행되었음.
- 설문조사 시간대는 초·중·말 고르게 분포하여 진행 함.
- ▶ 조사 장소
 - 남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단오장 일원과 단오 행사 장 주변 일대
- ▶ 조사 대상
 - 강릉단오제 방문객 : 지역 주민 및 관광객
 - 지역주민 : 강릉시 거주민
 - 관광객 : 강릉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강릉단오제 방문객
-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바확률 표본추출법의 임의표집방법을 활용 함.
 -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에 의해 설문조사가 실시 됨.
- ▶ 분석방법
 - 빈도분석
 - 기술통계분석
 - 다중응답분석

(3) 조사 항목

-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 평가항목을 기초로 강릉단오제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함.
- ▶ 설문지 구성

〈 표 2 〉 2016 강릉단오제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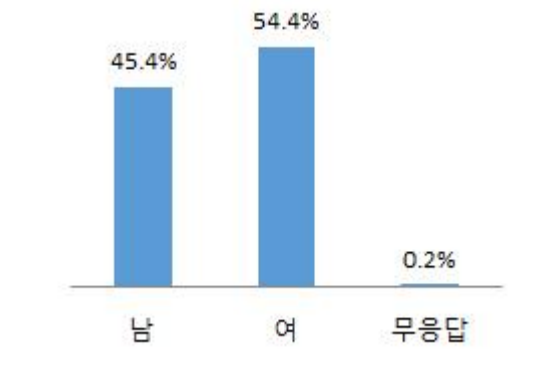
특성	항목
방문객 특성	방문횟수, 동반자 유형, 정보 습득 경로, 재미있는 프로그램, 구입물품, 이동수단 이용 유무, 강릉단오제 참가 동기, 강릉단오제 인지도, 지정문화재 관람 유무
관광객 특성	숙박 장소, 교통수단, 소비지출(교통, 숙박, 식·음료 비, 유흥, 쇼핑, 기타)
만족도	접근성, 홍보 및 안내, 행사내용, 프로그램 내용, 먹을거리, 편의시설, 재방문 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결혼유무, 연령, 거주지, 가족 전체 월 평균 소득, 학력, 직업

2)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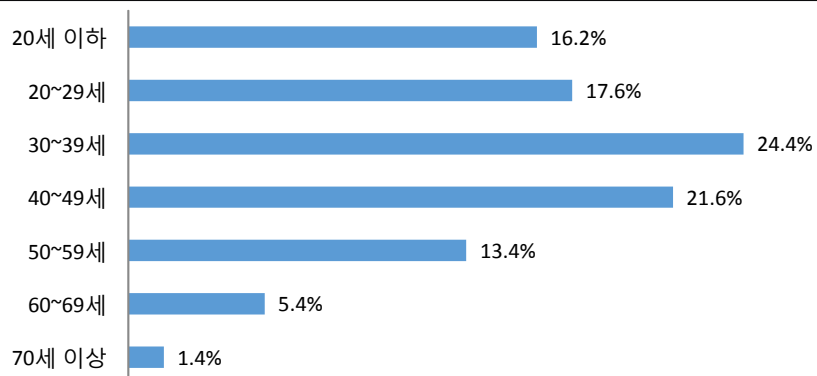
- ▶ 총 방문객 중 여성 방문객 비율이 9.0% 높음
 - 전체 유효 응답자 500명 중 여성은 54.4%, 남성은 45.4%로 여성 방문객 수가 9.0%더 많음.

〈 표 3 〉 방문객 성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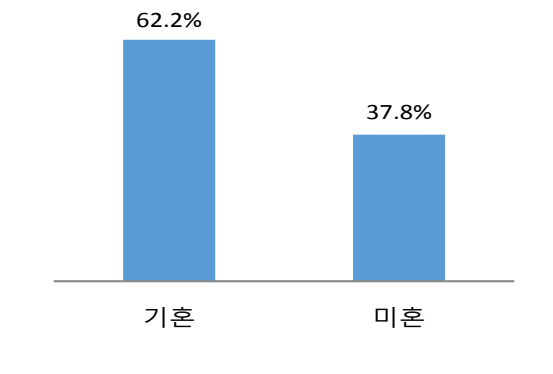
- ▶ 응답자 연령은 30대 24.4%, 40대 21.6%, 20대 17.6%의 순으로 나타났음.

〈 표 4 〉 응답자 연령 그래프



▶ 응답자 중 결혼유무는 기혼 62.2%, 미혼 37.8%로 기혼 항목에 대한 응답 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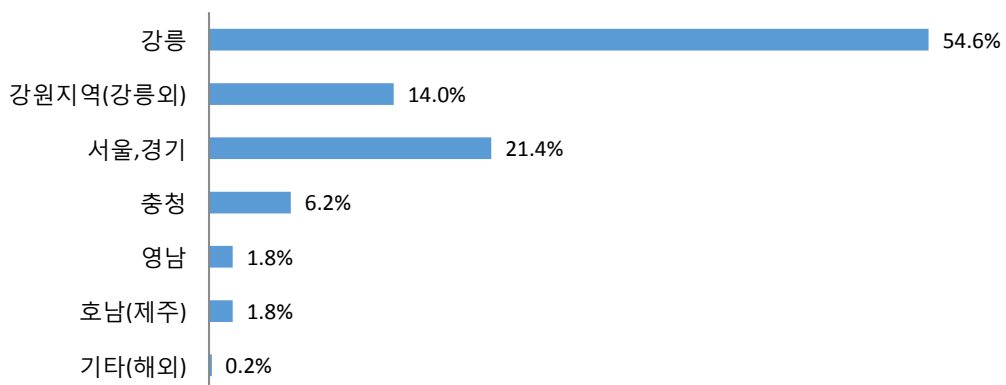
〈 표 5 〉 응답자 결혼 여부 그래프



▶ 전체 응답자의 거주지는 강릉지역이 54.6%, 강릉 지역 외 강원 지역 14.0%, 서울 경기 지역 21.4%, 충청이 6.2%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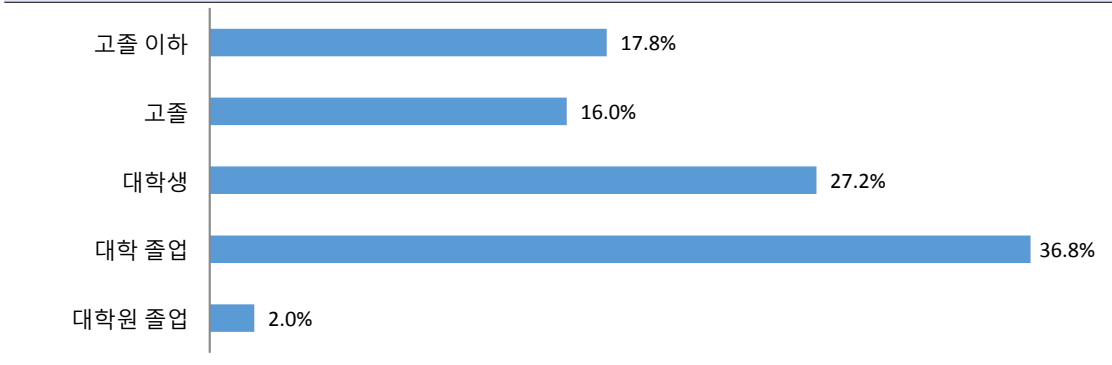
- 전체 강릉 거주자 54.6%, 강릉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는 총 45.4%임.
- 또한 강원도 지역의 관광객은 68.6%이며, 서울·경기 지역의 관광객이 21.4%로 강원도 지역 다음으로 많았음.
- 그 뒤로 충청 6.2%, 영남 1.8%, 호남(제주) 1.8%로 응답률을 보임.

〈 표 6 〉 응답자 거주 지역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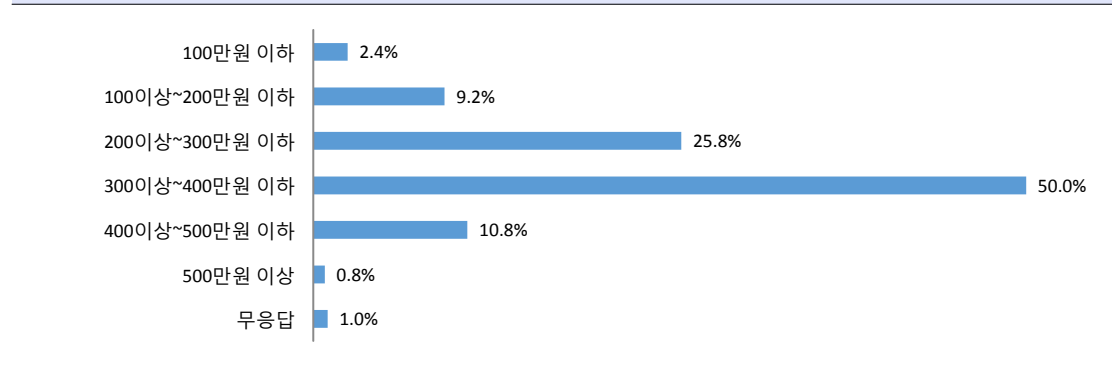
- ▶ 응답자 학력은 대졸이상은 65.2%, 고등학교 졸업은 16.0%,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7.8%로 나타났음.
- 응답자 중 대학졸업은 36.8%, 대학원 졸업은 2.2%, 대학 재학은 27.2%로 응답 함.

〈 표 7 〉 응답자 학력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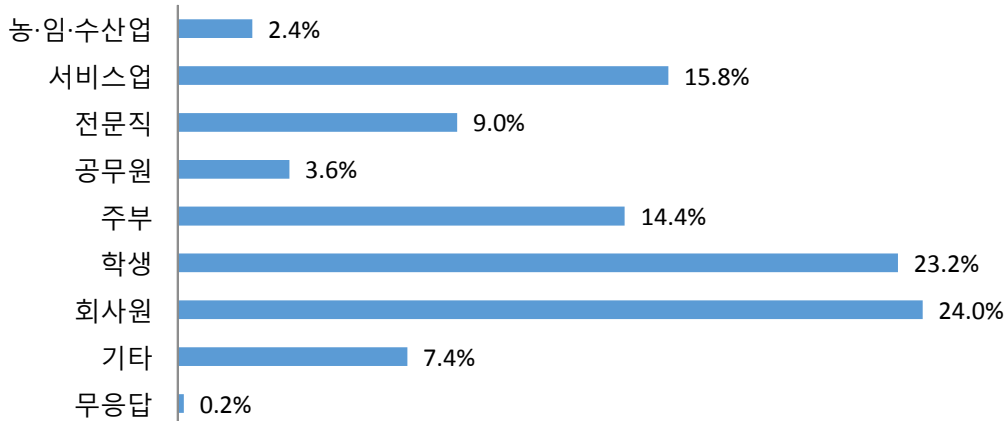
- ▶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구간은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높은 소득 구간은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이 25.8%, 세 번째 소득구간은 4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으로 나타남.

〈 표 8 〉 응답자 월평균 소득 그래프



- ▶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 24.0%, 학생 23.2%, 서비스업 15.8%, 주부 14.4%, 전문직 9.0%의 순으로 나타남.

〈 표 9 〉 응답자 직업 그래프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 2016 강릉 단오제를 방문한 방문객 중 본 설문지에 대하여 준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여성 방문객 수가 남성 방문객 수 보다 9.0% 높음.
 - 방문객 연령대는 30대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상 이하 방문객의 수가 33.8%로 젊은 층의 방문율도 높음. 또한 70세 이상의 방문객도 1.4%로 나타남.
 - 방문객은 기혼이 62.2%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강원 지역이 68.6% (강릉 54.6%, 강릉 외 강원지역 14.0%)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뒤를 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제주 지역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65.2%로 나타남. 응답자의 과 반수 이상이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들의 소득 구간은 월 300만원이상~400만원이하 구간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응답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24.0%, 학생이 23.2%, 서비스업이 15.8%, 주부가 14.4%로 나타남.

〈 표 10 〉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 목	빈도(%)	구분	항 목	빈도(%)
성별	남자	227(45.4)	교육 수준	고졸이하	89(17.8)
	여자	272(54.4)		고졸	80(16.0)
	무응답	1(0.2)		대학생	136(27.2)
	합계	500(100)		대학 졸업	184(36.8)
연령	20세 이하	81(16.2)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11(2.2)
	20~29세	88(17.6)		합계	500(100)
	30~39세	122(24.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2.4)
	40~49세	108(21.6)		100만원~200만원미만	46(9.2)
	50~59세	67(13.4)		200만원~300만원미만	129(25.8)
	60~69세	27(5.4)		300만원~400만원미만	250(50.0)
	70세 이상	7(1.4)		400만원~500만원미만	54(10.8)
	합계	500(100)		500만원이상	4(0.8)
결혼 여부	기혼	311(62.2)		무응답	5(1.0)
	미혼	189(37.8)		합계	500(100)
	합계	500(100)	직업	농·임·수산업	12(2.4)
거주 지	강릉	273(54.6)		서비스업	79(15.8)
	강원지역(강릉 외)	70(14.0)		전문직	45(9.0)
	서울·경기	107(21.4)		공무원	18(3.6)
	충청	31(6.2)		주부	72(14.4)
	영남	9(1.8)		학생	116(23.2)
	호남·제주	9(1.8)		회사원	120(24.0)
	기타 (해외)	1(0.2)		기타	37(7.4)
	합계	500(100)		무응답	1(0.2)
합계	500(100)	합계	500(100)		

(3) 응답자 전체 특성

① 거주지별 분포

-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 중 강릉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의 응답비율은 14%, 그 뒤로 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제주 순으로 나타남.

〈 표 11 〉 응답자 거주지 현황

구분	항목	빈도
거주지	강릉	273(54.6)
	강원지역(강릉 외)	70(14)
	서울·경기	107(21.4)
	충청	31(6.2)
	영남	9(1.8)
	호남·제주	9(1.8)
	기타(해외)	1(0.2)
	합계	500(100)

② 방문횟수

〈 표 12 〉 방문횟수/동반자 유형/동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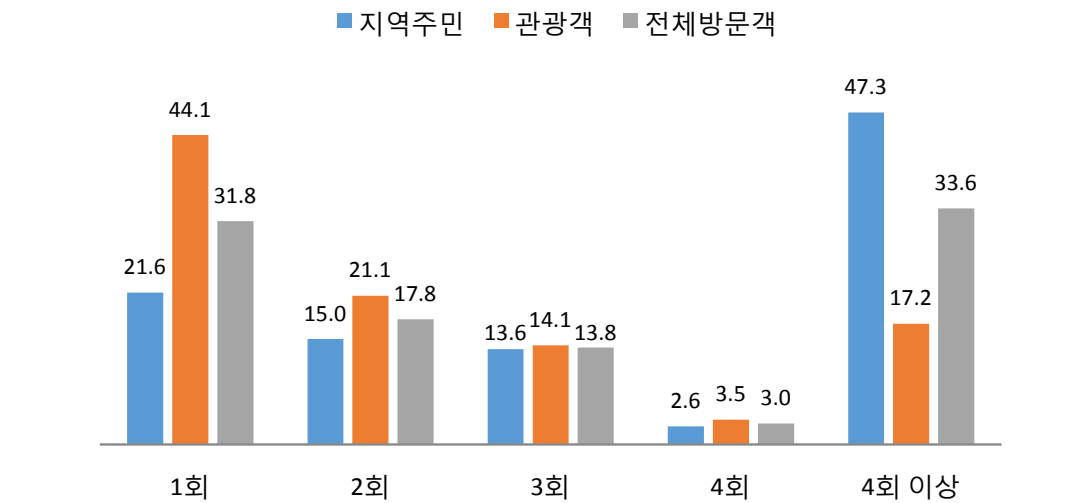
구분	항목	빈도(%)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방문 횟수	1회	59(21.6)	100(44.1)	159(31.8)
	2회	41(15.0)	48(21.1)	89(17.8)
	3회	37(13.6)	32(14.1)	69(13.8)
	4회	7(2.6)	8(3.5)	15(3.0)
	4회 이상	129(47.3)	39(17.2)	168(33.6)
	합계	273(100)	227(100)	500(100)
동반자 유형	혼자	18(6.6)	12(5.3)	30(6.0)
	가족	86(31.5)	80(35.2)	166(33.2)
	친구, 회사동료	151(55.3)	113(49.8)	264(52.8)
	친목단체	11(4.0)	17(7.5)	28(5.6)
	여행사 패키지 관광	1(0.4)	1(0.4)	2(0.4)
	기타	6(2.2)	4(1.8)	10(2.0)
	합계	273(100)	227(100)	500(100)
동반자 수	1인	28(17.8)	4(1.8)	32(6.4)
	2~5인	121(75.2)	180(79.3)	301(60.2)
	6~10인	9(5.6)	11(4.8)	20(4.0)
	11인 이상	3(1.9)	8(3.5)	11(2.2)
	무응답	112(41.0)	24(10.6)	136(27.2)
	합계	273(100)	227(100)	500(100)

- 응답자의 강릉단오제 방문횟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대한 응답임.
 - 강릉단오제를 4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지역주민이 47.3%로 가장 많았음.
 - 강릉단오제를 처음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관광객 비율은 44.1%로 가장 높음.
 - 전체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강릉단오제를 처음 방문하는 응답자의 비율

31.8%, 5회 이상 방문하는 방문자 비율 33.6% 서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임.

- 강릉단오제는 본 축제를 5회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고정 관광객 층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강릉단오제를 처음 방문하는 첫 방문객의 수가 고정 방문객 수와 비슷한 점으로 강릉단오제의 축제 매력도가 높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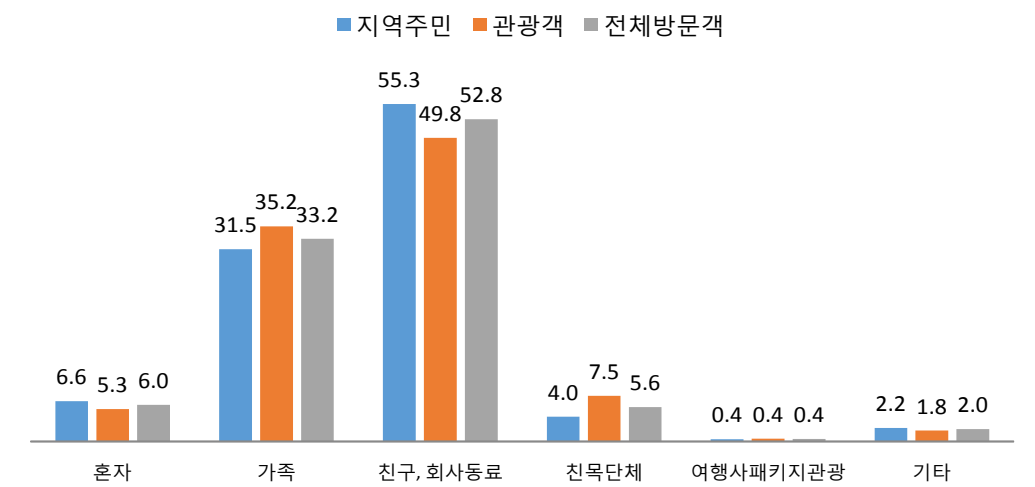
〈 표 13 〉 응답자 방문횟수



③ 동행인

- 강릉단오제를 관람하는 동반자 유형 조사 항목
 - 강릉 단오제를 관람하는 관람객 유형 중 친구 혹은 회사동료와 함께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는 관람객들이 52.8%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비율이 33.2%로 높았음.
 - 친구·가족으로 구성된 관광객의 비율이 전체 관광객 비율의 8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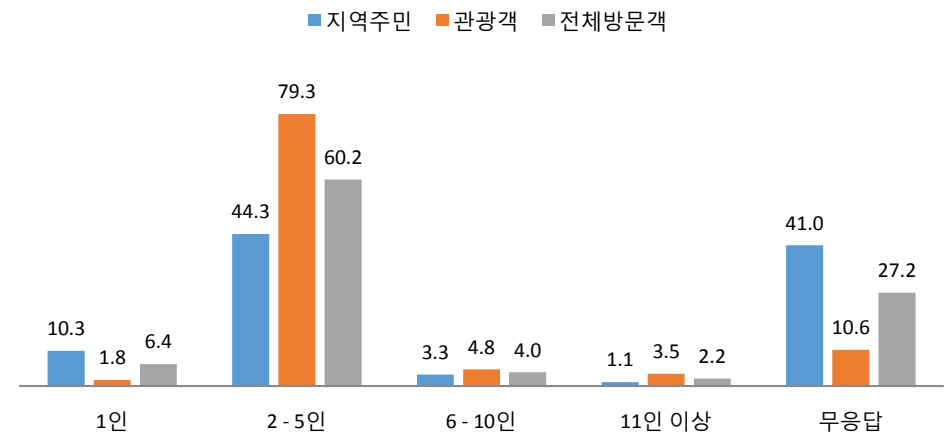
〈 표 14 〉 동행인



④ 동반자 수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동반자수 조사 항목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동반자 수 2-5인의 빈도는 지역주민 44.3%, 관광객 79.3%로 전체 방문객의 60.2%를 차지함.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동반자 수 6-10인의 응답 빈도는 지역주민 3.3%, 관광객 4.8%로 전체 방문객의 4.9%를 차지함.
 - 강릉단오제를 혼자 방문한 방문객 수는 지역주민 103%, 관광객은 1.8%로 전체 방문객 6.4%를 차지함.
 -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방문객은 혼자 혹은 2-5인의 동반자수가 가장 많음.
 - 관광객 방문객 79.3%가 2-5인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 표 15 〉 동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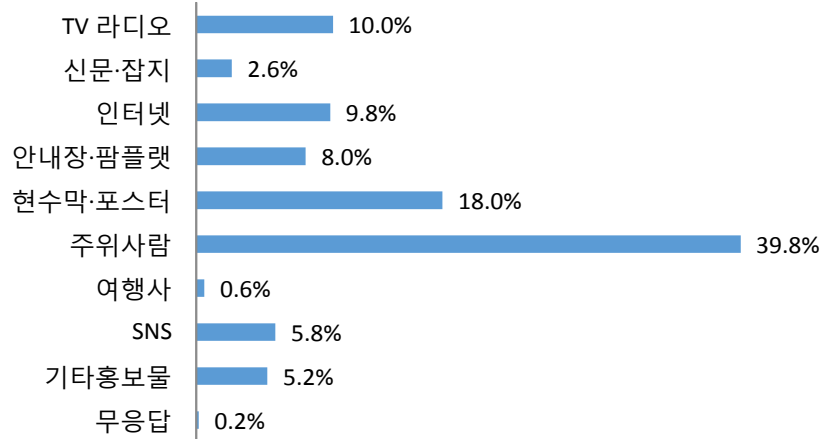


⑤ 정보습득 경로

-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였는가?’ 에 대한 항목임.
 - 응답자 39.8%가 주위 사람에 의해 정보 습득 및 권유에 의한 강릉단오제에 대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함.
 -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중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현수막·포스터 18%, TV/라디오 10%, 인터넷 9.8%, 안내장/팸플릿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광객이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가 구전형태인 것으로 보아 바이럴 마케팅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바이럴 마케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구전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
 -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사람들을 선정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며 이러한 홍보 시스템을 체계화 시켜야 함.
 - 강릉단오제를 찾은 관광객이 바이럴 마케팅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관광

객의 SNS 활용 및 블로그 활용 등 소셜 미디어 홍보를 체계화 시키도록 해야 함.

〈 표 16 〉 정보습득경로



⑥ 선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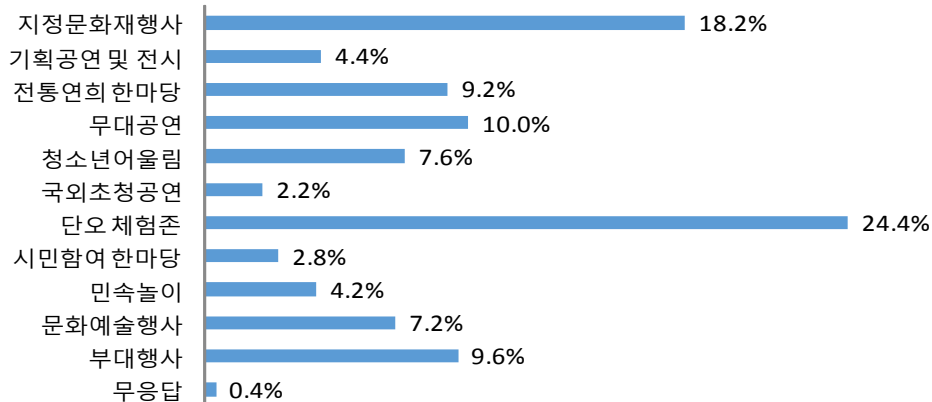
- 2016 강릉단오제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선택 항목임
 - 1순위 선호 프로그램은 단오체험 프로그램으로 응답자 24.4%가 응답함.
 - 2순위 선호 프로그램은 지정문화재행사로 응답자 18.2%가 응답함.
 - 3순위 선호 프로그램은 무대공연으로 응답자가 10% 응답함.
 - 4순위 선호 프로그램은 전통연희 한마당으로 응답자 9.2%가 응답함
 - 이 중 1,2,4 순위 프로그램 모두 (51.8%)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선호함.
- “강릉단오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성향을 유추하여 “2017 강릉 단오제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 1순위 응답자들의 24.4%는 단오 전통 체험을 선호 프로그램으로 지정함.
 - 2순위 응답 역시 지정 문화 행사 프로그램임.
 - 3,4 순위 응답 역시 전통 문화 관련 무대공연 프로그램임.
 - 반면 국외초청공연 프로그램은 1순위, 2.2% 2순위, 4.8% 3순위 5.4%로 응답율이 저조함. 국외 초청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 표 17 〉 지정문화재 선호 순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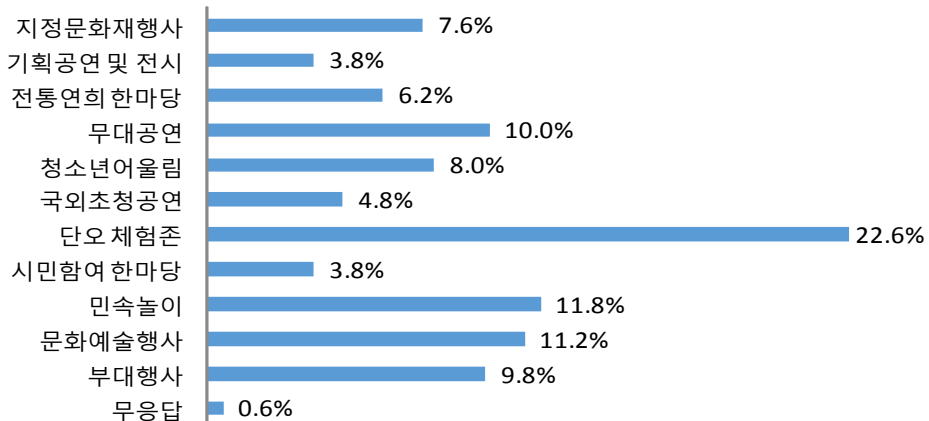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정문화재행사	91	18.2	38	7.6	36	7.2
기획공연 및 전시	22	4.4	19	3.8	19	3.8
전통연희 한마당	46	9.2	31	6.2	34	6.8

무대공연	50	10.0	50	10.0	30	6.0
청소년어울림	98	7.6	40	8.0	30	6.0
국외초청공연	11	2.2	24	4.8	27	5.4
단오 체험 존	122	24.4	113	22.6	63	12.6
시민참여놀이마당	14	2.8	19	3.8	29	5.8
민속놀이	21	4.2	59	11.8	64	12.8
문화예술행사	36	7.2	56	11.2	63	12.6
부대 행사	48	9.6	49	9.8	99	19.8
무응답	2	0.4	3	0.6	6	1.2
합계	500	100	500	100	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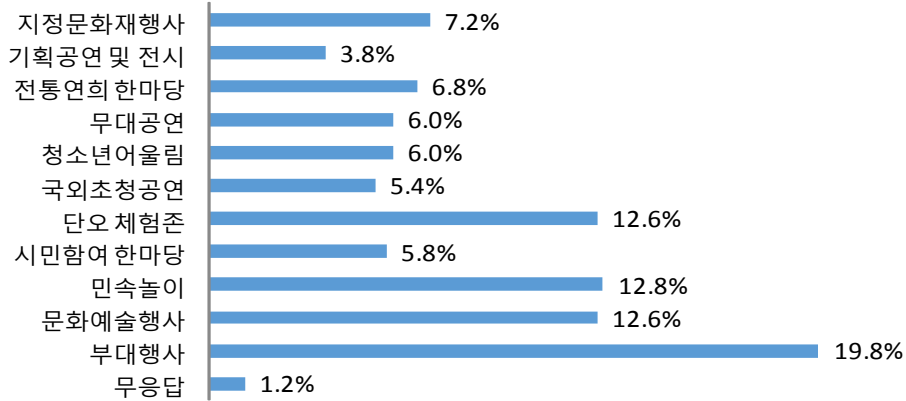
선호프로그램 1순위



선호프로그램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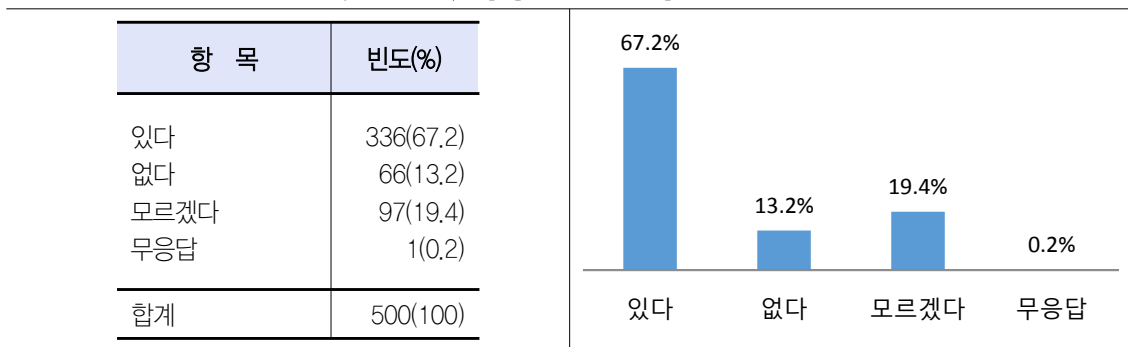
선호프로그램 3순위



⑦ 재방문 의사

-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응답자 중 재방문 의사를 묻는 조사 문항임.
 - 응답자 중 67.2%가 재 방문의사를 보임.
 - 재방문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13.2%임.
 - 긍정적 응답자 67.2%와 유보적 응답자 19.6%를 합한 86.8%의 응답자가 강릉 단오제를 재방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방문객들임.
- 유보적 응답자 19.6%의 유보적 판단 원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2017 강릉 단오제 프로그램 편성”에 적극 반영, 유보적 응답자의 반응을 긍정적 응답으로 변환 도출 시킬 있도록 하여야 함.

〈 표 18 〉 강릉단오제 재방문의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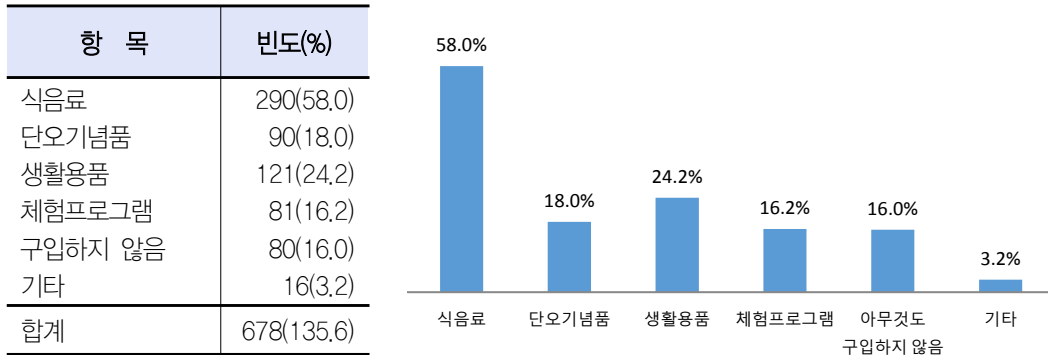


(4) 관광객 일반 특성

강릉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정의하고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체류 숙박 유형과 강릉단오제까지의 이동 교통수단 및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 항목임.

① 구입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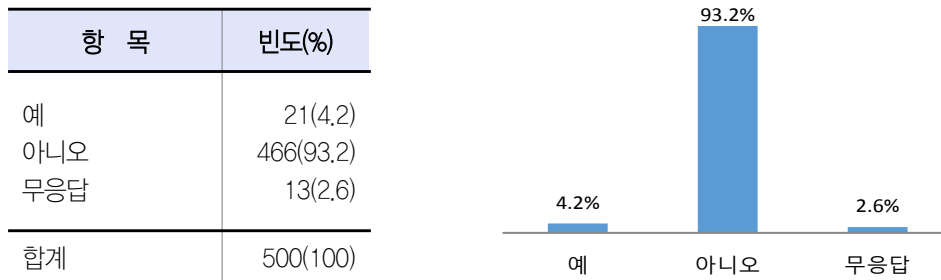
〈 표 19 〉 강릉단오제 구입용품



- 구입품목들을 보면 식음료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용품(24.2%), 단오기념품(18.0%), 체험프로그램(16.2%) 순으로 나타남.
 - 강릉단오제 축제 현장 1순위 구입항목은 식음료로 58%임.
 - 강릉단오제 축제 현장 2순위 구입항목은 생활용품으로 24.2%를 차지함.
 - 강릉단오제 축제 현장 3순위 구입항목은 단오기념품으로 18%를 차지함.
 - 강릉단오제 축제 현장에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은 방문객들도 16.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② 셔틀이용여부

〈 표 20 〉 셔틀버스 이용여부



- 강릉단오제 셔틀버스는 방문객들이 93.2%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셔틀버스 운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셔틀버스 운행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단오버스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꼬마버스 타요” 와 같은 “맵핑 디자인 서비스” 가 필요함.



꼬마버스 타요 맵핑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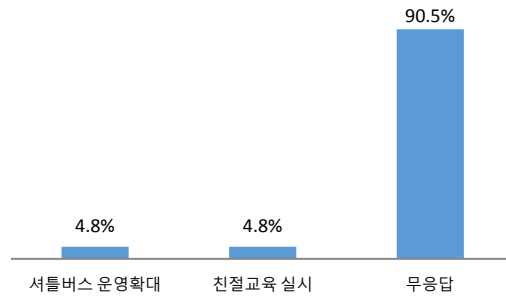
강릉 단오제 장자마리 캐릭터 맵핑 버스 예

〈 그림 3 〉 꼬마버스 타요 맵핑과 장자마리 맵핑 버스 예

③ 셔틀버스 개선사항

〈 표 21 〉 셔틀버스 개선사항

항 목	빈도(%)
셔틀 운영 확대	1(4.8)
친절교육 실시	1(4.8)
무응답	19(90.4)
합계	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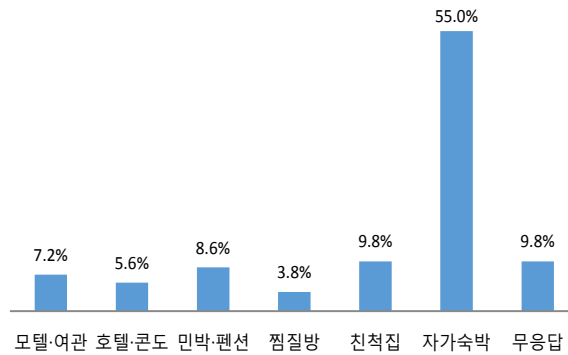


- 500명의 응답자 중 셔틀버스 이용자 21명, 응답자 21명의 셔틀버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셔틀버스 운영확대
 - 친절교육 실시
-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개선 방안 제안
 - 주차시설 부족 및 관광객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단오제 교통수단을 다각화 하여야 함.
 - 택시·관광 미니버스 등 다양한 운송 수단 pool을 구성하여 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시외와 강릉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및 강릉의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관광노선의 다각화가 필요함.
 - 운송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및 친절 서비스 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④ 이용숙박시설

〈 표 22 〉 이용숙박시설

항 목	빈도(%)
모텔·여관	36(7.2)
호텔·콘도	28(5.6)
민박·펜션	43(8.6)
찜질방	19(3.8)
친척집	49(9.8)
기타	275(55.0)
무응답	50(10.0)
합계	5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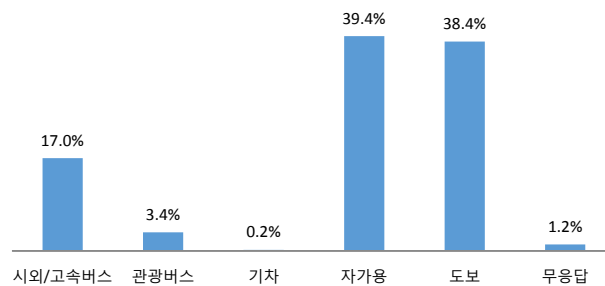


- 강릉 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체류하는 관광 형태에 대한 조사 항목임.
 - 응답자 55%가 기타로 답변, 자가 혹은 기타 지역에서 숙박함으로 응답함.
 - 응답자 45%의 이용숙박시설을 보면 친척집(9.8%), 민박·펜션(8.6%), 모텔·여관(7.2%), 호텔·콘도(5.6%), 찜질방(3.8%) 순으로 응답함.
 - 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른 응답자 별 큰 차이가 없음.
- 강릉의 숙박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응답자 45%의 숙박 업체에 대한 선호도로 비교적 고름.
 - 하지만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할 차별화된 숙박문화가 없음.
 - 그러므로 강릉만의 차별화된 숙박문화를 구축해야 함.

⑤ 이용교통수단

〈 표 23 〉 이용교통수단

항 목	빈도(%)
시외/고속버스	85(17.0)
관광버스	17(3.4)
기차	1(0.2)
자가용	197(39.4)
기타	192(38.4)
무응답	8(1.6)
합계	500(100)



- 강릉단오제 축제 현장까지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교통수단에 관한 질문 문항임.
 - 응답자 39.4%가 자가용을 주된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함.
 - 응답자 38.4%는 도보, 택시, 자전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근거리 이동 응답자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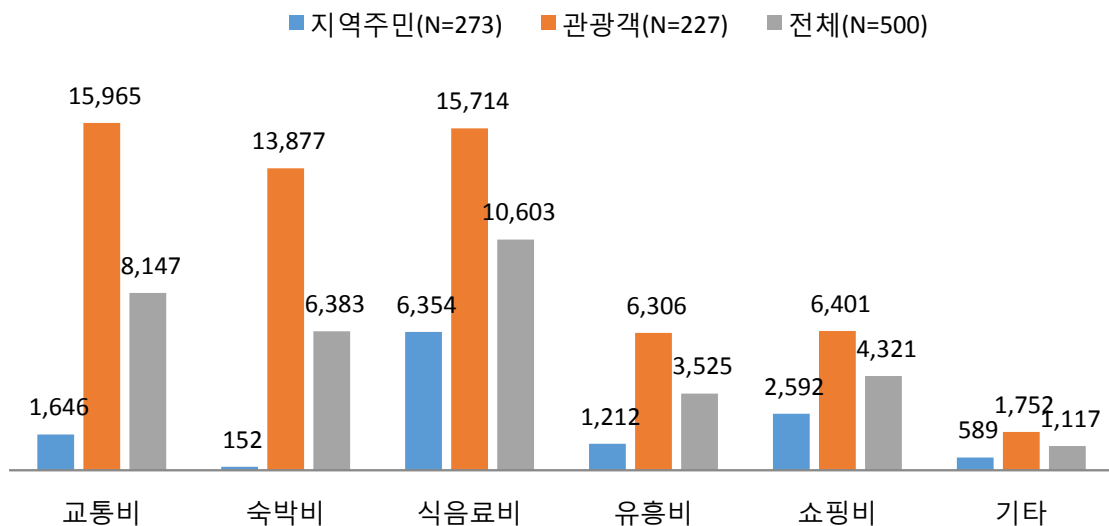
- 응답자 17%는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장거리 이동 응답자였음.
- 응답자 61.6%가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관광객임.
 - 시외·고속버스 이용자 응답 및 기차 이용자 응답의 비율이 17.2%임.
 - 이들은 강릉 단오제를 위해 강릉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이므로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운행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현재 마을 단위로 운행되는 강릉단오제 버스를 강릉 시내 전역 투어 버스로 확대 연계 시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함.

⑥ 예상지출비용

〈 표 24 〉 지출비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지역주민(N=273)	관광객(N=227)	전체방문객(N=500)
교통비	1,646	15,965	8,147
숙박비	152	13,877	6,383
식음료비	6,354	15,714	10,603
유흥비	1,212	6,306	3,525
쇼핑비	2,892	6,401	4,321
기타	589	1,752	1,117
합계	12,545	60,015	34,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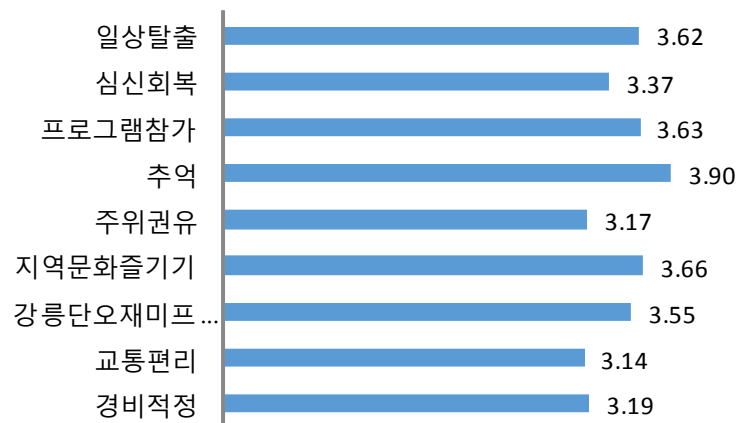


- 2016 강릉단오제 전체 방문객의 지출 항목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로 분류하고 전체 방문객의 평균 지출 내역을 살펴봄.
 - 지출평균비용의 도출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지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응답자 전체 지출 비용을 합계한 뒤 각 항목 별 비율을 산정함.
 - 전체 관광객 500명이 산정 기준이 됨.

- 2016년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60,015 으로 집계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관광객 지출비용 ₩59,737¹⁾ 과 비교 2016년 강릉단오제 관광객 지출비용 ₩60,015로 전년도 대비 관광소비가 약간 증가함.
- 각 지출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비용 지출 항목 식·음료비용으로 1인당 ₩10,603 지출
 - 2순위 비용 지출 항목 교통비용으로 1인당 ₩8,147 지출
 - 3순위 비용 지출 항목 숙박비용으로 1인당 ₩6,383 지출
 - 4순위 비용 지출 항목 쇼핑비용으로 1인당 ₩4,321 지출
 - 5순위 비용 지출 항목 유희비용으로 1인당 ₩3,525 지출

(5) 강릉단오제 방문동기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리커드 척도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일상생활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78	220	148	40	9	3.62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해서	61	166	185	71	12	3.37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관람 및 참가를 위해서	92	202	143	55	5	3.63
가족, 친구 등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114	255	106	15	6	3.90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51	150	164	104	24	3.17
강릉단오제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89	197	176	29	5	3.66
강릉단오제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75	184	194	37	6	3.55
교통편이 편리해서	50	125	200	96	22	3.14
강릉단오제 참가에서 지출되는 경비가 적정하기 때문에	42	129	231	77	16	3.19



1) 함석중, 『2014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방안』, 2014, 112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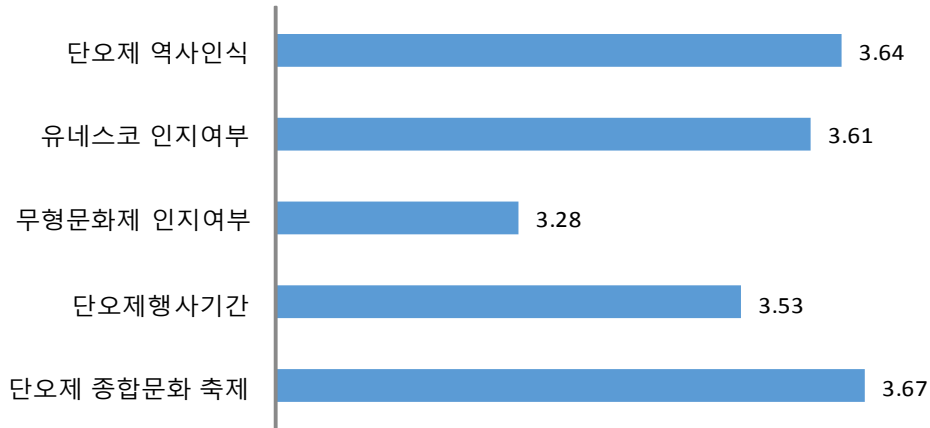
- ▶ 강릉단오제 방문동기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많은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된 동기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함.
 - ‘매우 그렇다’ 를 5점, ‘전혀 아니다’ 를 1점으로 하여 응답자 수를 곱하여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눔.
 - 1순위 ‘가족, 친구 등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응답빈도 3.90
 - 2순위 ‘지역 문화를 즐기기 위하여’ 응답 빈도 3.66
 - 3순위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하여;’ 와 4순위 ‘일상탈출’ 을 위하여 ‘각각 3.63, 3.62로 비슷한 응답 빈도를 보임.
 - 강릉단오제의 방문 동기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쌓기’ 로 정의함.

(6) 강릉단오제 인지도

- ▶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 문항임.
 - 지정문화재행사 참여 1순위 프로그램 ‘관노가면극’ 으로 37%의 응답률 보임.
 - 지정문화재행사 참여 2순위 프로그램은 ‘영신 제’ 로 29.2%의 응답률을 보임.
 - 지정문화재 행사 참여 3순위 프로그램은 ‘단오 굿’ 로 24.2%의 응답률 보임.
 - 지정문화재 행사 모두 10%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임.
- ▶ 강릉단오제 관람객 중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여 응답을 분석해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90.4%가 관노가면극과 ‘영신 제’, ‘단오 굿’ 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됨.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강릉단오제가 ‘전통문화축제’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단오 굿’ 과 ‘영신 제’ 와 같은 전통지정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강릉단오제는 사회 구성원의 축제의 역할과 전통 문화 전승 축제의 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리커드 척도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강릉단오제는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축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7	219	108	61	14	3.64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3	179	123	67	17	3.61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사실을 아십니까?	78	139	150	105	26	3.28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 5일부터 음력 5월 초까지 한 달여간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영신제·영신행	93	186	129	75	16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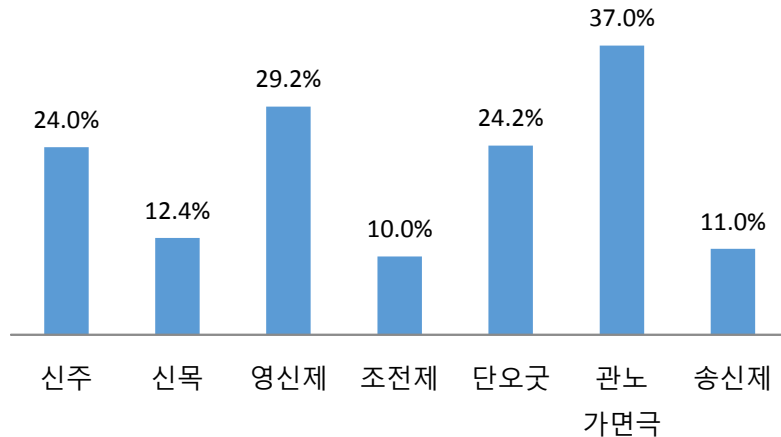
차,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는 음악, 춤, 문학, 연극, 공예 등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종합문화축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9	196	125	54	13	3.67



(7) 강릉단오제 행사 참여여부

〈 표 25 〉 강릉단오제 행사 참여 응답표

항목	참여		불참여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주빚기	120	24.0	348	69.6	32	6.4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 학산서낭제, 봉안제	62	12.4	401	80.2	37	7.4
영신제영신행차	146	29.2	326	65.2	28	5.6
조전제	50	10.0	410	82.0	40	8.0
단오굿	121	24.2	344	68.8	35	7.0
관노가면극	185	37.0	289	57.8	26	5.2
송신제	55	11.0	403	80.6	42	8.4



- ▶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 문항임.
 - 지정문화재행사 참여 1순위 프로그램 ‘관노가면극’ 으로 37%의 응답률 보임.
 - 지정문화재행사 참여 2순위 프로그램은 ‘영신 제’ 로 29.2%의 응답률을 보임.
 - 지정문화재 행사 참여 3순위 프로그램은 ‘단오 굿’ 로 24.2%의 응답률 보임.
 - 지정문화재 행사 모두 10%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임.
- ▶ 강릉단오제 관람객 중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여 응답을 분석해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90.4%가 관노가면극과 ‘영신 제’ , ‘단오 굿’ 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됨.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강릉단오제가 ‘전통문화축제’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단오 굿’ 과 ‘영신 제’ 와 같은 전통지정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강릉단오제는 사회 구성원의 축제의 역할과 전통 문화 전승 축제의 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8) 강릉단오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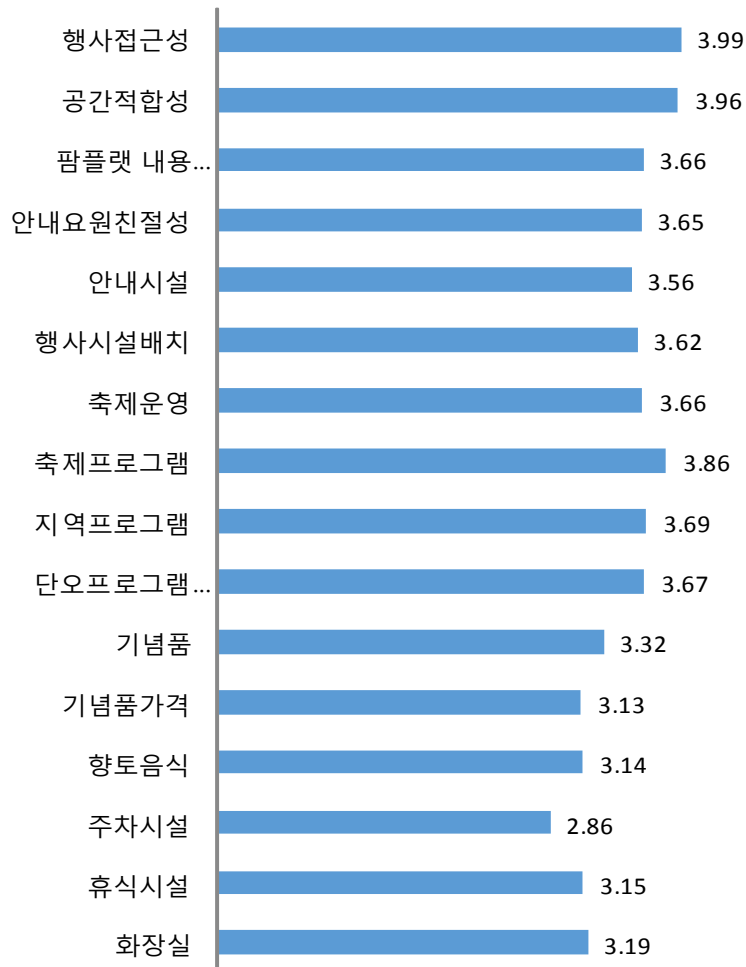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리커드 척도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행사장까지 찾아오기 쉬웠다.	168	183	129	14	3	3.99
행사장(남대천 일대)이 단오제 공간으로 적합하다.	163	181	136	15	3	3.96
행사 안내 팸플렛의 내용이 충실하다.	111	156	196	26	6	3.66
행사장내 안내요원(단오 해설 사)이 친절하다.	117	146	190	38	5	3.65
행사장 내 안내시설(행사안내도, 안내방송)이 충분하다.	91	160	199	38	7	3.56
행사장 내 시설이 구경하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다.	100	166	186	38	8	3.62
축제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다.	94	186	181	33	3	3.66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20	192	160	22	4	3.86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04	192	162	36	3	3.69
축제의 프로그램이 강릉단오제와 강릉의 문화를 알게 해준다.	104	186	160	41	6	3.67
축제관련 기념품이 다양하다.	68	127	220	67	14	3.32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51	116	209	93	26	3.13
향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적당하다.	63	118	187	91	39	3.14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56	80	192	83	84	2.86
휴식 공간(벤치, 그늘 막 등)과 편의시설이 양호함.	67	119	182	84	45	3.15
화장실의 개수가 적당하고 관리가 청결했다.	76	122	179	69	51	3.19

- ▶ 강릉단오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항목임.
 - 접근성, 안내 시설의 충실성,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역문화와의 관련성 등의 항목을

선정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강릉단오제의 만족도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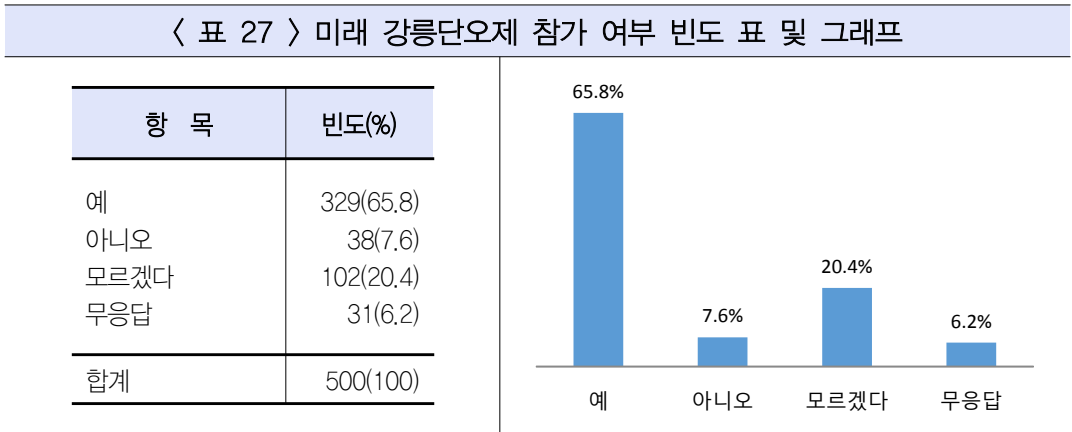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아니다.’ 1점까지 항목별 점수 중, “응답자수와 점수 / 응답자 전체 수” 나누어 리커드 척도 평균을 사용함.
- ▶ 강릉단오제 만족도에 대한 세부별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1순위 행사접근성 3.99
 -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2순위 공간적합성 3.96
 -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3순위 축제프로그램 3.86
 -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4순위 지역프로그램 3.69
- ▶ 응답 조사 결과, 강릉단오제 축제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접근 용이성 및 공간 접근성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 됨.

〈 표 26 〉 강릉단오제 만족도 항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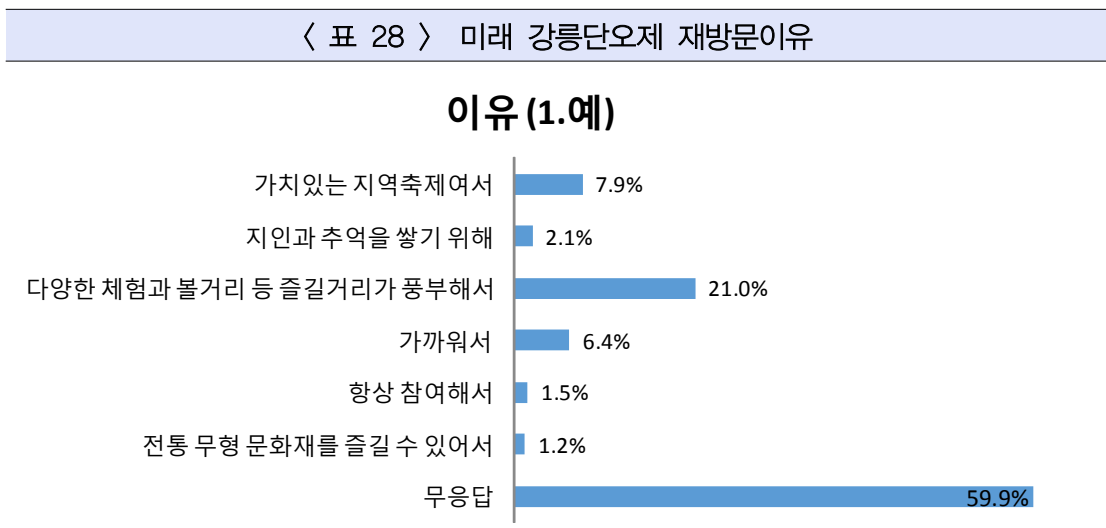
(9) 향후단오제 참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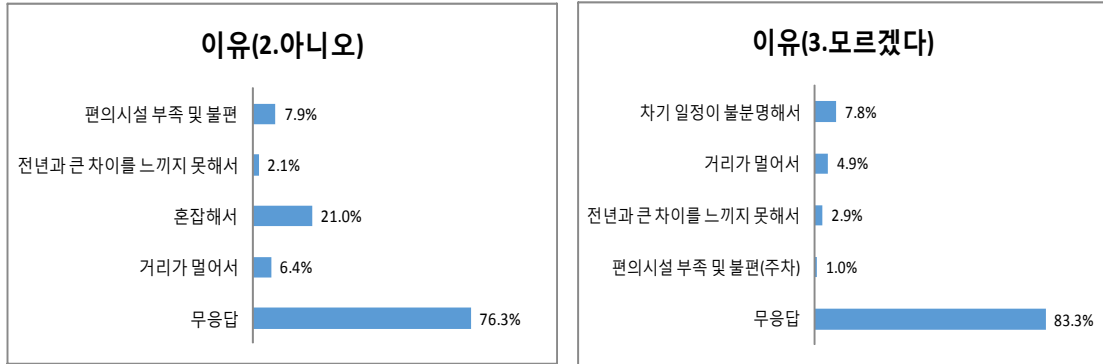
▶ 강릉 단오제 향후 참가여부



- 향후 강릉단오제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항목임.
 - 2017 이후 강릉단오제의 방문 희망 여부에 대해 65.8%가 긍정적인 응답을, 7.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모르겠다.” 라는 20.4%의 응답과 무응답 6.2%는 유동적 응답자로서 강릉단오제 방문 여부가 불확실한 응답자들임.
 - 유동적 응답자 26.6%를 강릉단오제에 대한 긍정적 관광객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향후 강릉 단오제 재방문 이유





- 향후 강릉단오제 재방문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 함임.
 - 65.8%의 향후 재방문 의사를 보인 응답자들 중 21%가 ‘체험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해서’ 라고 응답함.
 -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대다수가 수동적인 관광이 아닌, 능동적으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형태의 테마 형 관광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가치 있는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재방문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7.9%로 지역 전통 문화의 가치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강릉단오제 재방문에 대해 부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지나치게 혼잡한 축제 현장으로 인해 재방문 하지 않겠다는 응답 21%
 - 편의 시설 부족 및 불편해서 재방문 하지 않겠다는 응답 7.9%
 - 무응답 76.3%
 - 강릉단오제의 축제 현장이 많은 인원으로 인해 혼잡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축제 이동 동선 개선 및 편의 시설의 확충, 관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2 2016 강릉단오제 전문가 진단

1) 진단개요

(1) 진단 목적

- ▶ 2016 강릉단오제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하여 타 지역의 전통문화축제와 차별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현대와 호흡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
 - 현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 ‘웹툰’ 전문 작가 10인을 선정하여 ‘팸투어’를 기획 함. 팸 투어 후 ‘2016 강릉단오제의 현재 및 개선·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함.

(2) 진단개요

- ▶ 2016 강릉단오제 팸투어에 참가한 외부 전문가 ‘웹툰’ 전문 작가 8인과 내부 전문가 2명 평가와 진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함.
 - 진단 항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축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함.
 - 전문가 간담회 구성 : 웹툰 전문가 8인, 관광경영학과 교수1인, 콘텐츠 전문가 1인
 - 전문가 회의 장소 : 강릉 단오 문화관 2층
 - 전문가 회의 시간 : 2016년 6월 8일 13:00~16:00
 - 웹툰 전문 작가 명단

순번	전문가 명단	순번	전문가명당
1	한승준	5	김기혜
2	안중걸	6	정한별
3	기연희	7	김성용
4	신경순	8	이정현

(3) 전문가 간담회 결과 요약

① 전문가 1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 함께 나와 즐기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나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홍보만 잘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한 인구절반은 아니더라도 100만은 훨씬 뛰어넘는 인구가 즐길 수 있

는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몸에 좋은 곡식과 해초를 다 붙이고 다니는 장자마리는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캐릭터를 전면에서 세워 단오제를 홍보해한다. 이 캐릭터에 스토리와 스타성을 연결시켜 단오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전문가 2

단오제를 홍보하기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보를 가장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귀여운 캐릭터를 제대로 홍보하면 단오제는 저절로 알려질 것이다. 한 예로 일본 “쿠마모토 현”의 지방자치 단체의 “쿠마몬”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시딱딱이”와 같은 부정적 캐릭터의 경우의 특성도 꼼꼼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캐릭터의 특징을 꼼꼼이 생각해 보고 강릉단오제의 관노 가면극의 캐릭터들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

③ 전문가 3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홍보가 필요하다. 단오 캐릭터가 대중에게 소비되면, 단오제는 저절로 홍보가 된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문제의 시각을 너무 좁게만 보고 있다. 일단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고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까지 등재됐는데, 그 다음을 세대에 이어줄 정신이 없다. 매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캐릭터 및 문화 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시의 회의 이후 다른 진전이 없다. 하지만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그러지 않도록 캐릭터 개발 사업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및 실행 관리가 필요하다.

④ 전문가 4

축제의 장을 하나의 타운으로 놓고 보았을 때 타운 내에 하나의 랜드 마크가 필요하다. 강릉 단오제 역시 단오제 축제 현장 안에 단오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와 단오 캐릭터 그리고 강릉 단오제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웹툰을 이용한 문화 PPL 역시 강릉단오제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홍보하게 되면 캐릭터 자체가 브랜드 힘을 가지게 된다. 캐릭터 스스로가 브랜드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캐릭터를 궁금해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강릉 단오제 홍보로 연결된다.

⑤ 전문가 5

강릉 단오제의 랜드 마크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강릉단오제 축제장에는 방문객들의 인상에 남는 거대한 조형물이 없다. 강릉 단오제를 상징하는 랜드 마크이자 상징물이요, 포토 존이 되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⑥ 전문가 6

천년 축제에 맞는 천만 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천만 명이 즐길 수 있는 더 볼거리도 제공하고 천 만 명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⑦ 전문가 7

남원에는 춘향 테마파크, 광한루, 산성, 만인의 총, 남원산성 등 여러 문화 관광 포인트들이 코스로 조성되어 있다. 강릉 단오제도 강릉의 관광 포인트를 하나로 엮어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강릉 전체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천 만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강릉 단오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전략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오제에서 소원성취 하고 싶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굿판으로 모을 수 있도록, 강릉 단오제 방문객들을 강릉 관광객으로 확장 시킬 수 있도록 강릉관광을 전략화 해야 한다.

⑧ 전문가 8

단오제가 너무 단오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가 좁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의미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좀 다른 모습에 부분들이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야 한다. 전통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생각을 좀 풀어놓고 생각해 보자. 강릉 단오제에서 홍보해야 하는 것은 ‘굿’ 이다. ‘단오 굿’ 은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되는 유일한 문화 콘텐츠이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굉장히 큰 ‘굿’ 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종교의 시작은 무속신앙이다.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민간 사상에 무속 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큰 굿’ 과 그 ‘굿’ 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단오 굿을 문화 상품으로 하는 어른들을 위한 상품 제작도 필요하다. 어른들이 소원을 빌러 올 수 있도록 ‘굿’ 문화를 스토리텔링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매력이 있는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다.



IV. 2016 강릉단오제 현장모니터링

KBS사장기 농악 경연대회

1. 모니터링 개요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3.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목적

-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진단 평가.
 - ▶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 ▶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2016 강릉단오제를 평가하고,
 - ▶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과제를 도출 하여
 - ▶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모니터링 조사방법 및 항목

- 모니터링 조사방법
 - ▶ 선행 연구를 통하여 2016 강릉단오제 축제 프로그램 연구 및 강릉 단오제 문헌조사 및 현황 자료를 파악 함.
 -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위해 정성적인 방법 및 정량적 방법을 모두 사용 하였음.
 - ▶ 이를 위해 2016.05.11~06.12 까지 전문 교육을 받은 평가요원에 의해 참관 및 소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 함.
 - ▶ 항목별 모니터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리커드 5점 척도를 추가하여 점수화 함.
 - ▶ 또한, 단위 프로그램 별 평가와 분석을 정량화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크리스트 및 인터뷰지를 설계하여 모니터링요원들의 참여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 함.
- 모니터링 조사항목
 - ▶ 모니터링 항목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 ▶ 첫째, 2016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 동안 (2016.05.11~2016.06.12, 33일간) 진행된 프로그램 항목 별 모니터링 함.
- ▶ 둘째, 2016 강릉단오제 축제 기간 동안 (2016.06.05~06.12, 8일간) 의 시설 및 홍보, 진행, 운영 등 프로그램 외 항목을 모니터링 함.
- ▶ 각 모니터링 조사항목은 리커드 5점 척도를 통해 정량적 측정을 동시에 진행 함.
- ▶ 각 조사항목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 함.

〈 표 29 〉 모니터링 항목 및 세부 내용

구분	항목	세부 내용
단위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항목	주제성	• 축제조직위가 정한 “축제 중심 주제” 와 “개별 단위 프로그램 각각의 주제” 가 충실하게 부합하는가?
	참여성	• 축제 방문객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체험 형과 관람 형으로 구분하여 참여정도를 측정 하도록 함.
	고유성	• 지역이나 축제의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가?
	신기성	• 처음 경험하는 프로그램이거나, 비슷한 사례의 프로그램이더라도 다른 차별화된 신기성이 프로그램에 존재 하는가?
	의외성	•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경험한 후 재미와 흥미를 북돋울만한 요소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 있었는가?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편의시설	•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화장실 개수 · 청결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장소의 효율성 및 동선의 적절성
	홍보 및 안내	• 축제 홍보의 효율성(사전 · 중 · 후),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공간 배치	• 무대 · 전시 공간 · 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먹거리 공간,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진행 및 운영	•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당 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개최 시기(시간)의 적당 성

3) 모니터링 조사 기간 및 장소

○ 모니터링 기간

- ▶ 2016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 및 축제 기간의 모든 일정을 직접 참관 및 모니터링 함.
- ▶ 2016 강릉 단오제 모니터링 일정 : 2016.05.11~2016.06.12 , 총 33일.

○ 모니터링 장소

- ▶ 2016 강릉단오제 축제 공간 전 일대

구분	행사 장
A 구역 : 메인행사장	• 제단, 공연장, 단오체험 촌, 씨름장, 그네터,, 종합안내소, • 향토먹거리 촌, 창포쉼터 등, 메인 시설물 설치
B 구역 : 단오문화관	• 단오 문화관(주제관), 신주교환소 등
C 구역 : 이불전 및 다문화 체험관	• 체험 부스 및 이불 전 등
D 구역 : 난장	• 풍물시장
E 구역 : 난장	• 서커스 및 과학 체험관, 먹거리 촌 등
F 구역 : 단오섬	• 단오섬, 섭다리

4) 모니터링 분석 내용 전개 및 구성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내용 전개 및 구성

- ▶ 2016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의 날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순서대로 기술함.
- ▶ 상시적으로 운영된 체험 프로그램들은 항목으로 묶어 분석 결과를 기술함.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내용은 날짜별 및 공간별로 상세 기술할 것임.
-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날짜별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정 문화 행사	날짜	장소
신주 빚기	2016. 5. 11	칠사당
대관령 산신제	2016. 5. 21	대관령산신당
대관령 국사성황제	2016. 5. 21	대관령 국사 성황사
구산서낭제	2016. 5. 21	구산서낭당
학산서낭제	2016. 5. 21	학산서낭당
봉안제	2016. 5. 21	홍제동 여성황사

- ▶ 이상 위 항목의 프로그램을 제외 한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분석 내용” 은 공간별로 기술 할 것임.

2 2016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 신주 빚기

(1) 신주 빚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 ▶ 장소 : 1부 / 신주 빚기 지정문화재행사 - 강릉 도호부관아 칠사당
2부 / 신주 빚기 체험 행사 - 강릉 도호부관아 서헌
- ▶ 시점 : 5월 11일 수요일 음력 4월 5일 9:00~16:00





(2) 신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 순서

〈 표 30 〉 신주 빚기 체험 과정

					
① 세정	② 부정 굿	③ 하미 물기	④ 술을 빚기	⑤ 신주 숙성	⑥ 단오 신주

(3) “신주 빚기” 행사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신주 빚기는 단오제 행사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행사임. • 단오제의 지정문화 행사로 주제에 매우 적합함. 	
참여성	4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을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너무 좋았음. • 신주 빚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은 신 	

		<p>주 빚기 체험 참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관과 무녀로 이루어진 행렬과 칠사당에 도착하여 술독을 소독하고, 굿을 하고, 신주를 빚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관람형태로 훌륭한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임.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홍보자료가 필요. • 신주 빚기 체험은 모집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선착순 모집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기엔 홍보가 많이 부족함. • 청년층은 소수이며, 중장년층과 아이들이 대다수임. • 관람과 체험이 2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행사나 볼거리가 없음. • 사회자분이 처음에 신주 빚기 단계를 설명해주시는데 설명이 너무 간결함. • 부가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체험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낌. • 기자들로 인해 체험을 하는데 정신이 산만했음. • 신주를 보관하는데 비용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줬으면 함. •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친절하지 않아 무서웠음. • 체험을 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조금씩 말이 달라서 헷갈림. 		부정을 닦는 아이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손으로 직접 신주를 빚는 경험이 이색적임. • 보통 요리를 할 때 마스크를 끼는 것과 다르게 한지를 입에 물고 신주를 빚음으로써 부정할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신선했음. • 그냥 제사만 올렸다면 신기함이 없었겠지만 술을 빚는다는 것이 신기했음. • 제관과 무녀가 같이 어우러져 한다는 것이 신기했음. 		신주 체험 장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는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로, 다른 지역들의 전통적인 행사와는 차별성을 띄고 있음. • 신주 빚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당의 부정 굿을 통해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을 씻어버리는데 이 또한 다른 축제에서는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특별한 문화 행사임. • 신주를 빚는 것은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음. 		신주 빚기 체험
의외성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참여함. • 강릉 사람들조차 생소한 행사에 외국인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음. • 외국인을 위한 매뉴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음. 		

(4) 신주 빚기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구분	세부내용	내 용
편의 시설	1. 주차시설 2. 식수시설 3.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4. 화장실 개수 · 청결도 5. 오폐수처리시설, 6. 쓰레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식수시설 준비 되어 있지 않음. • 화장실은 칠사당과 임영관의 공중화장실1개, 동대청에 간이 화장실 한 개가 설치되어 있음.
홍보 및 안내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4.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 프로그램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인원 참여 하지 못함. • 신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신주를 빚는 방법이 A4 용지에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움. • 신주를 빚는 이유와 신주 빚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홍보·안내판이 필요 함.
공간 배치	1. 무대 · 전시공간 · 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2. 먹거리 공간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 체험 행사가 진행된 강릉임영관 서현만 이용함. • 강릉 임영관 서현 앞 뜰 및 임영관 대도호부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함.
진행 및 운영	1. 원활성과 적절성 2. 순서의 적절성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식으로 되어 있어 신주를 빚는 체험을 하기가 힘들었음. • 신주 빚기 본 행사와 신주 빚기 체험 행사 기간 동안 2시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음. • 2시간 동안 즐길 만한 관광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음. • 2시부터 4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신주 빚기 체험이 처음해보는 전통 체험인 것에 비해 짧은 시간 빠르게 진행 됨. • 주중에 열리므로 유아동 및 청소년들이 신주 빚기 체험을 하기에 좀 이른 시간임.

(5) 신주 빚기 프로그램 분석 결과

- ▶ 단오제의 지정문화 행사 “신주 빚기” 는 전통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가치가 높은 문화 행사.
 - “신주 빚기” 행사는 신께 올릴 술을 빚는 의식을 통해 신과 소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단오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주제성 강한 전통 문화행사임.

- “신주 빚기” 행사는 강릉단오제의 첫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전통 문화 행사임.
- “신주 빚기” 행사는 전통주인 신주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므로,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관광 상품적 가치가 있음.
- 그러므로 “신주 빚기” 행사를 강릉단오의 첫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브랜딩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보와 강원도 유형문화재 터에서 진행되는 전통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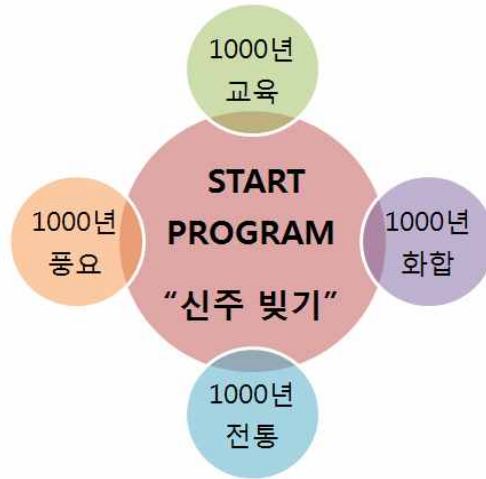


국보 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객사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강릉 칠사당

〈 그림 4 〉 강릉 대도호부 문화재 터

- “신주 빚기 ” 지정문화재행사가 진행되는 칠사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곳임.
 - “신주 빚기” 체험 행사는 강릉대도호부의 임영관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곳은 우리나라 국보 제 51호 임영관 삼문(강릉 객사문)이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임.
 -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 전혀 없음.
- ▶ “신주 빚기” 문화 체험을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행사로서 브랜딩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
- 1000년의 전통 : 1000년의 전통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진행하여야 함.
 - 1000년의 풍요 : 풍요와 복을 염원하는 1000년의 프로그램으로서의 홍보.
 - 1000년의 교육 : 전통 문화·역사에 초점을 둔 교육행사 프로그램으로서의 홍보.
 - 1000년의 화합 : 지역 구성원이라는 시민 의식 함양 및 고취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마케팅 활동이 필요 함.



〈 그림 5 〉 신주 빛기 홍보마케팅 전략 키워드

- ▶ “신주 빛기” 를 알리고 “신주 빛기” 체험 단계가 직관적이고 일관적이며 명료한 내용이 적힌 안내서 필요.
 - 전통 술 빛는 단계를 보여주는 직관적 메시지가 부족하여 체험 진행이 어려움.
 - 진행을 도와주는 제관들의 지시사항이 달라 진행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됨.
 - 외국인 체험자를 위한 안내 외국어 설명서가 없어 체험 진행이 어려움.
 - 그러므로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게 디자인된 안내서와 다국어 안내서가 필요함.

- ▶ “신주 빛기” 행사를 2016 강릉단오제의 맛보기, 프리 퀘일 행사로 확립.
 - 2016 신주 빛기 행사는 1부의 신주 빛기 지정문화재행사와 2부의 신주 빛기 체험 행사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음.
 - 1부 “신주 빛기 지정 문화행사” 는 아침 9:00~12:00까지 2부 “신주 빛기 체험 행사” 는 오후 1:00~ 4:00까지 분리되어서 진행됨.
 - 1부와 2부 사이를 대체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2부 체험자들이 기다리기 지루하였으며, 2부만 참가한 체험자들은 신주를 빛는 문화적 의미와 전통적 가치가 체험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웠음.
 - 또한, 강릉대도호부 임영관의 넓은 마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 임영관의 넓은 터를 2016 강릉단오제의 문화 행사 및 전통 놀이를 미리 체험 해볼 수 있는 프리퀘 (Prequel) 형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 투호놀이, 줄다리기 놀이, 윷놀이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더불어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 행사 순서를 소개하는 전 행사로의 프로그램 이 필요함.

- ▶ 신주 빛기 체험 행사 운영 개선방안
 - 유치원생부터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외국인들 까지 총 65명의 인원이 체험 참

가를 신청함.

- 참가자들은 제례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가의 부정굿을 시작으로 신주를 빛는 체험을 진행 함.
- 하지만, 유아 참가 인원과 외국인 참가자가 있다는 사전 정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비닐장갑이 준비되지 않음.
-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등 참가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
- 좌식으로 되어 있는 행사 자리를 실제 신주 빛는 행사와 마찬가지로 입식 행사로 바꿀 것을 제안 함.

〈 그림 6 〉 강릉 입영 관 내



신주 빛기 체험 안내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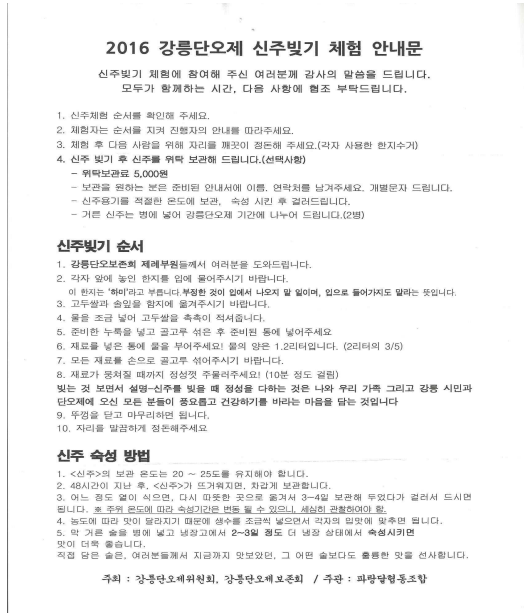
사용하지 못한 강릉 입영 관 너른 터



〈 그림 7 〉 신주 빚기 체험 행사



아이의 손에 맞지 않는 장갑



한글로만 제작된 체험 안내문



2016 좌식 형태의 신주 체험 행사



입식 형태의 신주 체험 행사

2)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1)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일시

- ▶ 장소 : 대관령 산신당
- ▶ 시점 : 5월 21일 토요일 음력 4월 15일

(2)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신제, 국사성황제 등 각각의 주제에 맞는 행사를 진행함. • 복장을 잘 갖추어 제를 진행함. • 제사 하나하나마다 긴 절차를 정성스럽게 진행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관람 형 행사로 다수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기에는 대기 공간이 협소함. • 멀리서도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 공간 확보가 필요함. • 취재진의 프레스 존 설치가 시급함. • 취재진에 의해 관람을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 • 제례가 끝나고 단오신주와 시루떡을 시민들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참여 함. • 관람 시민들 대부분 제사를 관람하는 형태로 수동적 관광형태를 보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자체는 고유한 만큼 그 과정들이 신기하지만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절차는 유사해보였으나 전통의상을 입고, 특유의 목소리로 제를 지내는 것이 신기함.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는 강릉의 고유문화유산으로 알고 있는데 ‘단오’ 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들과 부합함. • 김유신장군께 제사를 지낸 뒤, 범일국사께 제사를 올림 • 신이 강림했다고 믿는 신목을 선택함. • 신목을 모시고 내려와 서낭당에서 시민이 마련한 음식으로 요기를 함. •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임.
의외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목 모시기’ 를 보고 강릉단오제의 지역적 특색을 알게 됨. • 대관령 산신과 연관되어 있는 강릉 ‘단오제’ 를 알게 됨. • 사람들의 소원으로 장식된 신목을 보는 것이 흥미로움.

(3) “산신제 · 성황제 · 봉안 제”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구분	세부내용	내 용
편의 시설	1. 주차시설 2. 식수시설 3.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4. 화장실 개수 · 청결도 5. 오폐수처리시설, 6. 쓰레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령양떼목장입구와 구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 행사이용에 적합함. • 주차시서 및 시간별로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음. • 식수시설이 매우 부족함. • 휴게실의 화장실과 대관령 산신당에 작은 화장실이 있으나 비위생적이어서 사용이 불편함. • 쓰레기통이 있었으나 관리되지 않음. • 시민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임.
홍보 및 안내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4.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칠사당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대관령 산신제 및 성황제, 신목행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 • 안내요원의 배치 및 서비스-친절도는 좋음.
공간 배치	1. 무대 · 전시공간 · 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2. 먹거리 공간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의 관람공간과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취재 공간 분리가 필요함. •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행사에 가까이 접근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방해를 받음. •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 장소가 산속에 있어 협소함.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진행 및 운영	1. 원활성과 적절성 2. 순서의 적절성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례 행사 및 무속 행사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됨. • 진행요원들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함. • 관광객 및 시민들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보임. • 오전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행사 중간마다 음식과 식수를 제공함.

(4)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프로그램 분석 결과

- ▶ “강릉 단오제”의 차별성과 고유성 전통성을 보여주는 지정문화행사
 -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등 의 행사는 강릉단오제를 타 지역 전통 문화 축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전통 지정문화 행사임.
 - 대관령 및 영동지역의 산신 사상 및 무속 신앙, 그리고 유교가 접목되어 탄생한 독특한

지역 문화임.

- 지정문화행사를 전승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위원회의 노력이 엿보임.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진행 요원 배치 및 셔틀 버스 운행이 좋았음.

▶ 지정문화 행사의 효율적 홍보 부족 및 스토리텔링 부족

- 대관령 및 영동지역의 독특한 지역 문화가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함.
- 무속신앙 및 제례 행사에 대해 왜 이러한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및 산신 설화 등이 관람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
- 그러므로 대관령 산신 설화, 범일 국사 설화, 연화부인 설화 등 단오제 12신에 대한 신화 이야기에 대한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사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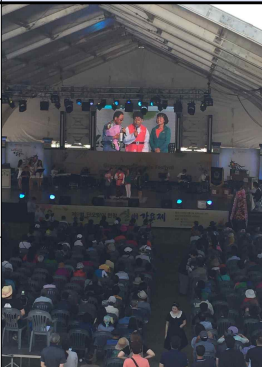

▶ 비효율적인 공간구성

-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일반 관람객들이 편하게 제례 행사 및 굿 행사를 관람하기 힘들.
- 산비탈에 협소한 공간은 문화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을 수용하기 부족함.
- “신목” 선택 및 “신목 베기” 등의 신목 행사에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지만, 깊은 산 속이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
-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며,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존 설치가 시급함.

3) 2016 단오제 본 행사

(1) 2016. 06.05 – 단오제 1일차

□ 단오맞이 제 9회 한·청 실버 가요제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된 사람 없이 다 함께 즐기자는 문화적 장치로서 이루어진 실버가요제는 주제성에 부합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 : 참가자를 관람하고 응원함. 참가형 : 실버가요제 참가자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 참가자의 기량이 높음. MC가 실버가요제를 진행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는 점에서 전국노래자랑의 형식과 유사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도시로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강릉에 실버가요제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무대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 뒤 전광판에 정식행사는 언제라고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관람객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듦.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올 사람, 요깃거리를 사올 사람들이 잠깐 시간을 내어 다녀올 수 있었고 이 점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한 요소라고 생각함.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MC가 배치되어, 동시통역을 해줌. 장애인에 관람객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엿보임. 	

총평 : 실버가요제를 준비한 참가자가 기량과 열정을 보고 이 무대를 위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느낄 수 있는 무대였으며 관람객 역시 그 노력에 부응하여 호응을 잘 해주었음. 모두 하나 되는 것이 축제가 단오제라고 의미를 둔다면,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무대임.

▶ 주제성 프로그램 모니터링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나라는 어깨에 젊음은 겨레에” 라는 슬로건 아래 노령화시대에 걸 맞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화합의 장임.
- ‘하나 됨’ 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젊음’ , ‘노년’ 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장이 형성이 됨.

▶ 참여성 프로그램 모니터링

- 가족단위의 참여가 주를 이루며, 어르신들의 참여를 온 가족이 응원하는 모습이 흐뭇함.
- 무대 위 어르신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대단함.
-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 시장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시켜야 함.



▶ 신기성 및 고유성 프로그램 모니터링

- 특별한 진행 순서나 진행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어서 아쉬움.

▶ 의외성 프로그램 모니터링

- 어르신들의 끼, 정열, 흥이 젊은이들의 열정에 뒤쳐지지 않음에 놀람.
- 어르신들의 정열에 함께 해주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역 사회의 참여 정신이 돋보인 무대였음.

□ 전주세계소리축제 이창선대금스타일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소리인 국악과 월드 음악을 조절한 공연으로 세계 음악의 조화를 선보였지만 강릉 단오제의 주제에 적합한지는 약간 의문이 듦.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 형태로 중장년층이 주된 관객의 연령층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을 비롯한 외국의 악기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지친 관객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공연이었음. 대금을 서양 악기인 드럼과 기타와 함께 연주함에도 거슬리는 부분 없이 조화로운 소리여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았음. 	이창선 대금 연주 ²⁾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소리축제' 에서 공연했던 이창선 대금스타일은 흔히 관람할 수 없는 공연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스타일이라고 해서 대금만을 가지고 연주하며 지루한 공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럼과 기타를 함께 연주해서 신선했고, 대금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처음인데 의외로 맑고 청아해서 인상적이었음. 	

총평 : 국악과 월드 음악을 조절한 공연으로 국악의 전통적인 특징은 잘 살리면서 다른 나라의 음악과 융합하여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음. 다만, 공연진행 방식이 조금 지루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우리의 소리인 국악과 월드 음악을 조절한 공연이 한국 전통 음악과 세계의 음악이 하나가 되는 음악의 조화를 선보임.
- 지방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악의 형태로 자칫 지루할 수 있었으나 신선하게 하게 다가왔음.
- 동양과 서양의 소리의 조화가 “강릉단오제” 의 1000년의 화합의 장을 연상시킴.

2)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jh17333>

- ▶ 참여성 모니터링
 - 다양한 연령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하였음.
- ▶ 신기성 모니터링
 - 대금과 외국의 악기들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관객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 공연이었음.
 - 서양 악기인 드럼과 대금 등 우리 국악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것이 신기했음.
- ▶ 고유성 모니터링
 - ‘세계소리축제’ 에서 공연한 이창선 대금은 쉽게 관람할 수 없는 대금 공연임.
 - 이창선 대금 공연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악기의 조합으로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었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대금의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인상적이었으며, 우리의 전통 악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 또한, 여러 악기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인상적이었음.
 - 하나로 화합되는 경지가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무대였음.

□ 강릉원주대 / 삼개사 관노가면극 (아리마당)

▶ 관노가면극 프로그램 설명

▪ 정의

강릉지방에서 단오제의 일환으로 전승되는 가면극으로, 탈놀이,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언(無言) 가면극이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지역명인 ‘강릉’ 과 ‘관노(官奴)’ 라는 연희자의 특수한 신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칭이다. 강릉관노가면극은 토착적·자생적 가면극을 지칭하는 마을 굿 놀이 계통의 가면극이다.

▪ 내용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은 양반광대, 소매각시, 장자마리 2명, 시시딱딱이 2명이다.





- 양반은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기르고, 담뱃대와 부채를 가지고 위엄을 부린다.
- 소매각시는 하얀 얼굴에 쪽진 머리를 하였으며 양쪽 볼에 연지를 찍었다.
- 장자마리는 일명 ‘보쓴 놉’ 이라 부르는데, 머리부터 자루 모양의 장삼 비슷한 것을 땅에 끌리도록 쓴다. 또한 허리에는 둥근 대를 넣어 두 손으로 안고 춤을 춘다. 옷에는 여기저기 해초를 달았다.
-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모습의 벽사가면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었다. 입술은 두껍고 한 자 오 푼 이상 깨졌고, 코는 울퉁불퉁하며 뻑뻑하게 얽고 붉은 칠, 검은 칠을 한 아주 무서운 탈이다.
- 강릉관노가면극은 제1과장 장자마리 개시마당, 제2과장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제3과장 시시딱딱이의 횡방마당, 제4과장 소매각시 자살소동, 제5과장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화해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다섯 마당으로 진행된다.
- 한국의 가면극 가운데 유일하게 묵극(默劇)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지방의 가면극은 각 과장의 내용이 서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강릉관노가면극은 각 과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양반과 소매각시를 중심으로 한 서사적인 내용의 연희가 진행된다.
- 맨 먼저 장자마리가 놀이판을 열고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시시딱딱이의 횡방, 양반이 소매각시의 정절을 의심하자 소매각시는 자살소동을 빚고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 관노가면극의 특징 7가지

- 서낭제 계통 극으로 ‘팻대’ 라는 신격 상징물을 모시고 연희를 하여 단오제라는 공동 부락제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착 놀이를 시사한다.
- 한국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으로 춤과 몸짓언어로 전체를 표현하는 묵극(默劇)양식이다.
- 관민 공동놀이로서 연희 자가 관노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 양반광대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을 나타내며 희극적 요소와 익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소매 각시의 행위를 통하여 규별성, 도덕성, 정조관을 엿볼 수 있다.
- 장자마리의 행동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벽사진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시시때때를 통한 예방 주술적 의미와 내용상 갈등 요인으로 충실한 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 강릉원주대학교/ 삼개사 관노가면극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만 전승되는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강릉 단오제를 가장 대표하는 공연이 되었음. • 강릉 단오제의 성격에 부합하여 많은 공연단이 관노가면극을 공연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자마리와 시시때때의 호응 유도로 관람형태였지만 관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가면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듦. • 소매각시의 소생과 함께 강강술래 하듯이 큰 원을 만들어 도는데 관객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저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좋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의 동작만으로 공연의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이 신기했음. • 관노가면극을 한 팀에서만 공연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팀이 있었고, 그 중 대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관노가면극이 있다는 점이 신기했음. 	관노가면극 공연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음. • 강릉 관노가면극만의 행복한 결말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방 가면극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형태의 관람객들이 많아서 의외였음. 	

총평 : 강릉 단오제를 가장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며 말을 하지 않고, 춤과 동작만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면극임.

▶ 주제성 모니터링

- 강릉지정문화재행사로 국내유일의 무언극이라는 특성을 가진 가면극임.
- 강릉단오제 일환으로 전승되는 강릉관노가면극은 사랑·오해·화해의 스토리를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표현하는 무언극임.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강릉의 무형문화재임.

▶ 참여성 모니터링

- 무형문화재 13호인 관노가면극은 보존회 관노가면극 이외에도 강릉원주대학교, 삼개사, 임영회, 영동초등학교 등 다양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관노가면극을 전승보존, 공연을 하고 있음.
- 총 5개의 장 중간마다 관객과의 호흡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무언극이어도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극의 전개가 어렵지 않아 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음.
- 빠른 극 이해는 관객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냄.
- 하지만 아리마당에 전통 문화 해설 전문 MC가 있었다면 더 높은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 신기성 모니터링

- 마지막 5장 양반과 각시의 화해의 장은 모든 관객이 하나가 되어 둥근 원을 만들어 주는 장면이 인상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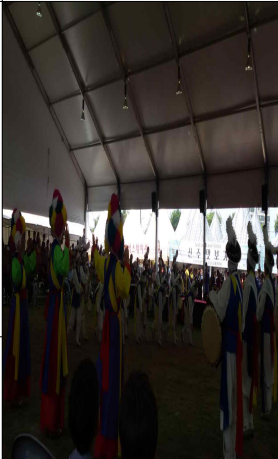
▶ 고유성 모니터링

-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성을 지님.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관노가면극은 단오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연회의 성격을 지니는 놀이임.

▶ 의외성 모니터링

- 많은 단체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관노가면극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음.
-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과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장치가 필요함.

□ 흥제동 농악대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터 단오제에서는 농악을 연주해왔는데 농악을 크게 올려 단오장을 더욱 떠들썩하게 할수록 신은 만족해하며 한해 농사에 풍년을 내린다고 생각했음. 흥제동 농악대는 그에 부합함. • 강릉에서 전수되고 있는 농악대로 강릉단오제의 흥을 돋는 역할을 함. •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농악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오제의 주제에 적합함.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 : 첫날 단오장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행사장인 아리마당 내는 만석이었고, 바깥까지 사람들이 서서 무대를 관람했음. 	흥제동 농악대 공연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짓는 형태로 진행되는 농악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농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농악대라서 신선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무용수와 소고연주자 한 팀과 전통악기 연주하는 한 팀으로 나눠 농사과정 시연하는 역할과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다른 농악과 차별화된 모습이었음. •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흥내 내어 재현하는 형태의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는 농사풀이 농악이지만 마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자에 딱딱 맞춰 진행되는 가장무용수의 농사풀이 흥을 북돋는 역할을 하였음. 	

총평 : 모내기과 김매기 등의 농사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다.” 라는 소리로 끝을 내며 지나간 농사의 순간들을 정성스럽게 보냈음에 신이 보상을 해주었음으로 끝을 내는 모습이 얼마나 풍년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음.

공연자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1시간동안의 행사를 진행함에 절대 소홀하지 않았음 끝까지 힘을 내어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농산물에 저 분들의 땀과 끈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음.

강릉 농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고, 퍼포먼스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단오’ 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시작된 행사임.
- 그러한 의미에서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흉내 내어 재현하는 농사놀이 형태가 ‘판굿’ 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단오제의 주제성에 적합한 전통문화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농사짓는 과정을 재현하며 농악을 함께 볼 수 있어 종합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음.
- 농사짓는 법을 모르는 현대인들과 아이들에게 공연되는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전통문화 전문 MC와 아리마당의 스크린 설치 혹은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준다면 관람객들의 참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통 문화 교육의 장, ‘강릉 단오제’ 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과정을 한편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극화 하여 구성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강릉의 농사 문화와 강릉농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대였음.
- 공연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 의외였으며 어르신들의 뒤를 이을 젊은 공연자들을 육성이 절실함.

□ 부평 구립 풍물단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구립풍물단은 주로 농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문화로 북, 장구, 팽과리, 징, 나발 태평소 따위를 치거나 불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풍물놀이를 전승하는 공연단임.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형 : 풍물공연과 더불어 춤도 추고 다양한 볼거리, 이를 테면 전통놀이 시연을 하고 원판 돌리기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호응이 좋았음.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도 무대로 나가서 공연자들과 춤을 출 수 있어서 흥이 넘치는 분위기였음. 관람형 : 단오제를 개최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터라 더욱더 많은 관람객이 몰려왔고 관람객들은 풍물단의 공연이 끝나고 풍물단이 퇴장할 때 매우 아쉬워했음. 주로 관람형태이고, 중장년층이 주 관객층이었음. 	<p>부평구립풍물단 1</p>  <p>부평구립풍물단 2</p>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와 관람자가 구분되며 진행되었던 기존경험 속의 풍물놀이와 달리 이 공연에서는 이 둘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줌.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풍물놀이로 농악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이기 때문에 전통악기를 다루는 공연단이 설 수 있으며 전통축제가 아니라면 보기 힘든 풍물공연이라 생각함. 	부평구립풍물단 3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서 모니터링한 농악과 비슷할 줄 알았으나 관객과 더욱 소통하려고 했으며 전통악기뿐만 아니라 전통놀이까지 연구한 점이 보였음. 	

총평 : 연습을 철저히 해온 부평구립풍물단의 신명나는 뛰어노는 공연 관객도 흥겨워하고 즐거워했음. 무엇보다 단지 연주악기를 다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통하려고 전통놀이를 행사에 끼어 넣은 것이 인상적이었음. 또한 퇴장했던 풍물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는데 채 식지 않은 공연장을 아쉬워하던 관객들에게 감동까지 주었던 공연을 보여주었음. 관중들을 마당으로 이끌어내 함께 춤을 추며 놀았음. 풍물놀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깨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부평구 축제위원회와 강릉시가 문화예술 교류 협약을 맺음으로써 부평구립풍물단이 강릉단오제의 포문을 엮.
- 농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우리나라 고유 풍물놀이를 아리마당을 뛰어다니며 신명나게 연주함.
- 타 지역에서 “강릉 단오제” 를 찾아와 함께 하는 모습이 강릉 단오제의 위상과 정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 매우 흥겹게 볼 수 있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풍물놀이가 친숙하지 않은 일반 관람객들도 어깨를 들썩이게 할 만큼 신명나는 무대였음.

▶ 신기성 모니터링

- 관객과 호흡하고 관객의 신명을 유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살아있던 무대였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풍물놀이로 농악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공연이었음.



▶ 고유성 모니터링

- 전통 풍물단과는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전통악기와 전통놀이를 엮어 역동적인 풍물놀이로 진행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 우리의 전통 가락과 공연도 현대인들에게 신명을 이끌어 내고 공감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에 도움을 창건하기 위하여 한양의 사방에 장승을 세우고, 송파 등지의 탈꾼들을 불러들여 도움지의 잡귀를 쫓고, 왕조창성을 기원하는 굿판을 벌이면서 시작한 놀이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 : 주로 관람형태이고, 중장년층이 주 관객층이었음. 체험형 : 탈을 쓴 공연자가 관중들을 찾아다니며 소통하려고 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를 사용한 건지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극에 집중할 수 없었고 흥미를 끌지 못했음. 아기를 낳는 장면 등 탈놀이에서 볼 수 있는 풍자적이고 희화화한 장면들이 몇몇 눈에 보였음. 	송파산대놀이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송파구 송파지역에서 전승되던 중요무형문화제 제 49호로 지정된 탈놀이로 관노가면극과 같이 탈을 쓰고 공연을 한다는 점에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들만의 고유한 공연형태를 지님. 전통적인 무형문화재 축제에 진행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는 동의함. 말소리가 있는 가면극으로 무언극으로 이루어지는 관노가면극과 차별성이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이었음에도 초반 공연에 대한 정보가 없고, 대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극이 지루하게 느껴짐.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스크린을 알수있도록 하거나, 마이크의 성능 개선이 필요함. 	9장 취발이놀이 아이를 낳는 소무

총평 : 송파산대놀이는 왕조의 번성을 위해 잡귀를 쫓는 부정 굿의 성격이 강한 공연임. 송파산대놀이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각 장마다 관객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음. 공연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전통문화해설 MC 배치가 필요함.

▶ 주제성 모니터링

-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의 초청 공연문화프로그램임.
- 중요무형문화재 제 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 는 한양에 도움을 창건하기 위하여 한양의 사방에 장승을 세우고, 송파 등지의 탈꾼들을 불러들여 도움지의 잡귀를 쫓고, 왕조창성을 기원하는 굿판을 벌이면서 시작한 탈놀이임.
- “송파산대놀이” 가 왕조창성을 기원하는 굿판이라면, “강릉단오제” 의 굿판과 “관노가면극” 은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굿판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은 점이 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공연자의 대사가 탈 너머로 전혀 들리지 않고, 극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 이해하기 어려움.
- 등장인물도 많아 극의 이해도가 떨어져 극의 참여도 역시 낮아짐.
- 탈을 쓴 공연자가 관중을 찾아다니며 소통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를 도와줄 전문 진행 MC 혹은 보조 요원이 없음.

▶ 신기성 모니터링

- 처음 보는 형태의 탈과 익살스러운 대사가 재미있었음.
- 사전 정보와 극중 대사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임.



▶ 고유성 모니터링

-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 는 대사가 있는 탈 극이라는 점이 신기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국가중요무형문화재공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전혀 없음.
- 사전에 공연될 무형 문화재 “송파산대놀이” 에 대한 교육적, 문화적, 역사적, 고용적 효용 측면에 대해서 관람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함.
- 아리마당의 전통문화해설 MC 배치 필요.
- 아리마당의 스크린 설치 및 LED 전광판 설치가 필요함.

□ 다노네 다노세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의 핵심을 이루는 제례와 단오 굿, 관노가면극, 무속타악 등을 무대화 한 작품이 바로 '다노네 다노세' 인데 강릉단오제의 핵심을 이 공연 하나로 알차게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음.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 : 관람객들이 공연에 상당히 집중해서 볼 수 있었음. 문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 잘 정돈되어있고, 조명과 음향이 무대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었음. 참여형 : 문화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방법뿐이었음. 의외로 청년층 관람객이 많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문화관과 같은 실내 사물놀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다노네 다노세' 의 사물놀이는 조금 더 격정적이고 다이내믹했음. 	다노네 다노세 1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노네 다노세' 는 단오제에서 획기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단오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 날을 기점으로 한 달 전부터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은 전반적인 단오제 준비 행사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연에서는 제례를 비롯하여 단오제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잘 구성했다고 생각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을 쫓 해오면서 대관령산신제때와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나와 제례를 하기에 계속 저것만 보여주면 어찌지 싶었는데 제례는 간략하게 끝이 나고, 이어서 무당의 굿, 관노가면극, 사물놀이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채로운 무대를 볼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음. 	

총평 : 다노네 다노세는 단오제의 재미있는 볼거리만을 함축적으로 엮어낸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무대라고 말하고 싶음. 단오제를 알고 싶은 사람, 단오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 등에게 짧지만 관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 그러나 흥미만을 담은 무대로 그치지 않고 교육적, 전통적, 역사적인 무대로 꾸밈기에 추천하고 싶음. 다노네 다노세 무대를 보고 연신 환호성을 질렀던 관중들처럼 단오제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도 단오제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연장을 나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듬.

▶ 주제성 모니터링

- 천년의 신화와 역사를 간직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를 한 무대에서 감상 할 수 있도록 무대화한 공연작품임.
- 단오제례, 단오 굿, 관노가면극, 무속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됨.
- ‘강릉단오제’의 ‘단오 굿’의 핵심을 이 공연 하나로 알차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굿’ 공연도 공간에 따라 상품성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생각임.

▶ 참여성 모니터링

- 관객들이 공연에 상당히 몰두함.
- 단오 문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어서 조명과 음향이 무대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었음.


▶ 신기성 모니터링 및 고유성 모니터링

- 한 달 전부터 이루어지는 단오제준비 행사부터, 제례를 비롯한 단오제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것과 무대에 놓인 신목 역시 “강릉 단오제”의 고유한 무대를 설명하고 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강릉 단오제’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련된 몸짓과 역동적 음향으로 만들어낸 한 번쯤은 꼭 봐야할 무대임.
- 단오제를 알고 싶은 사람, 단오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창의력 넘치는 무대임.

□ 에시자 오시자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단 ‘단오 굿’ 에 사용되는 춤사위와 장단으로 꾸며진 공연임. • 단오문화관에서 장단만으로 구성된 음악 공연이라는 점이 신선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을 감상하는 관객들의 호응이 엄청남. • 격하게 쪼개는 무격 박자가 관객들의 혼을 들었다 놔다 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가와 무가음악을 굿판이 아닌 공연장에서 듣는 경험은 신선했음. • 굿판에서는 취약한 스피커 때문에 음이 깨져서 무가음악이 좋은지 몰랐으나, 음향시설이 좋은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신명나서 놀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전통 굿을 굿판이 아닌 공연 무대에서 소리와 춤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는 것이 의외성을 지녀 매우 좋았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굿’ 이라는 지정문화재가 ‘공연장’ 이라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관객에게 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짐. • • 악기 연주자 및 무가음악의 예술성을 발견하게 됨. • • ‘굿 당’ 에서만이 아닌 공연장에서도 공연이 지속적으로 공연되었으면 좋겠음. 	

총평 : 단오문화관에서 공연되는 “에시자 오시자” 공연은 매우 충격적이었음.
 굿판이 아닌 공연장에서 만난 무가음악과 무가동작은 서양이 발레와 여느 다른 공연 문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음.
 오히려 자잘하게 쪼개지는 무격의 박자는 관객을 더 신명나게 만들었음.
 망자의 굿판소리의 경우 배경으로 이해를 돕는 영상이미지를 추가하면 더 좋겠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인 “강릉단오제” 는 제례, 가면극, 무당굿의 지정분야를 중심으로 전승됨.
- 단오 굿에서 진행되는 가무·악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공연작품으로 우리전통 무가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임.
- 단오제 행사 전반에 걸쳐 민중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오 굿 중 소리와 몸짓을 따로 떼어내어 굿판이 아닌 현대식 공연무대에서 공연 화 했다는 것이 인상적임.

▶ 참여성 모니터링

- 색다른 무경 박자와 “굿” 의 새로운 이미지 연출로 관객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전통 문화를 전통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것 역시 새로운 문화 창조에 필요함.
-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시자, 오시자” 공연은 전통 굿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굿을 멀리하던 현대인들에게 굿에 대한 열린 인식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주는 무대였음.
- 삼동무속사물놀이는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사물놀이 형태로서 북2, 팽과리1, 장구1, 징1개로 구성된 연주임. 즉흥적으로 연주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준 높은 문화 공연으로 객석의 흥분과 참여도가 높았음.

▶ 의외성 모니터링

- 강릉단오제가 지정문화재를 다른 형태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음.
- 강릉단오제의 ‘단오 굿’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 무대였음. 청보장단과 제마수 장단으로 나뉘는 ‘단오 굿’ 음악과 우리 무가 음악이 터부시 될 이유가 없는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세련된 장단의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됨.
- 이러한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공연 문화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2) 2016. 06.06 – 단오제 2일차



□ 소리장단국악원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단오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겪었는데, 이곳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소리 공연을 하여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음. • 단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신명나게 놀다’ 에 있어 우리의 것으로 흥을 돋우었으므로 그 가치가 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 수리마당의 특성상 관중들은 호응으로 무대에 참여함. • 관람형 : 수리마당은 관중들이 좌석에 앉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상하는 형태의 무대 구성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에서나 다른 지역축제에서나 한번쯤은 들었던 아리랑과 한번쯤은 보았던 부채춤에서 색다른 점은 마땅히 없었음 • 어렸을 적에 잘 느낄 수 없었던 한(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뭔지 모를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듬.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증을 내어 무엇 하랴. 성을 내어서 무엇 하랴.” 아리랑 특유의 기다림의 아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감동적이었음. •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동적이 무대였으나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크게 없었음. • 다듬이질을 하면서 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크게 들어 내지 않고 스스로를 그저 위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 인상적이었음.

총평 : 공연 시작 전에 우리의 소리인 아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설을 해주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음. 공연을 하는 사람과 공연을 보는 사람 모두 중장년층으로 후대가 우리 것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듬.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의 전통소리와 전통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였음.

- ▶ 주제성 모니터링
 - k-pop에 가려 잘 들리지 않던 우리의 전통 소리를 단오무대에 올림으로써 우리 것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음.
 - 우리의 것으로 ‘신명나게 놔’ 으로 흥을 돋운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돋보임.
- ▶ 참여성 모니터링
 - 관중의 반응도가 상당히 높음.
- ▶ 신기성 모니터링
 -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리랑’ 과 ‘부채춤’ 등 색다른 무대 공연은 아님.
 - 하지만 한(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은 공연이었음.
- ▶ 고유성 모니터링
 - “성화를 내어 무엇 하랴.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랴.” 아리랑 특유의 담담함의 정서가 감동적이었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됨.
 - 공연을 하는 사람과 공연을 보는 사람 모두 어르신들이 많음.
 - 우리 전통 문화를 전승유자계승하기 위해 젊은 연령대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 프랑스 가나페스티벌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에서 이 축제를 하는 도시를 세계문화유산지정도시라고 정했다고 하는데 이 축제에서 보여주는 노래와 춤 모두 농민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풍요와 기원을 소원했던 단오제와 주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멀리 프랑스에서 온 공연자들을 위해 MC는 관중들에게 프랑스 인사 몇 가지를 알려주었고, 관중들은 프랑스 공연자들이 왔을 때 '봉쥬르' 하고 인사를 했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모습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학산 오독떼기와 풍물단을 합쳐놓은 것 같았는데 한국처럼 떠들썩하게 힘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했음.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회원국인 프랑스의 가나 지역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이 추는 화려한 민속춤을 강릉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음. 그런 점에서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 번 느꼈음. 	프랑스 가나 공연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춤과, 민요를 보여주었으므로 고유성이 있고 한국인의 축제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축제의 장을 넓히려는 노력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음.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회원국인 프랑스의 가나 지역의 이색적인 무대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처럼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라면 구경하기 어려움.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에 정열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무대에 오른 프랑스 공연자의 연령층은 매우 다양했고 다양한 종류의 전통의상도 함께 볼 수 있어 프랑스에서 직접 축제 무대를 본 듯한 느낌이었음. 	

총평 : 단오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인의 공연을 초청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단오제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오제 주제와 부합하도록 프랑스 농민들의 축제를 무대에 올려 보여준 점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강릉단오제”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프랑스초청공연임.
- “강릉단오제”가 세계적 인류무형유산의 축제가 되기 위해 전 세계의 무형문화재 공연이 다채롭게 열리는 것이 이색적임.
- 또한, 다양한 해외 공연이 “강릉단오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음.
- ‘단오제’에 적합한 주제로 프랑스 농민들의 축제로 공연을 구성하였으며, 프랑스 농민들의 농기구를 이용한 동작들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음.

▶ 참여성 모니터링

- 주 관람자들이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집중도가 높음.

▶ 신기성 모니터링

-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회원국인 프랑스의 가나 지역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이 추는 화려한 민속춤을 강릉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움.
- 강릉 단오제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느낌.
- 프랑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모습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학산 오독떼기와 풍물단을 합쳐놓은 것처럼 비슷함.
- 또한, “매듭 만들가풀기 동작”에 사용되는 색은 우리 오방색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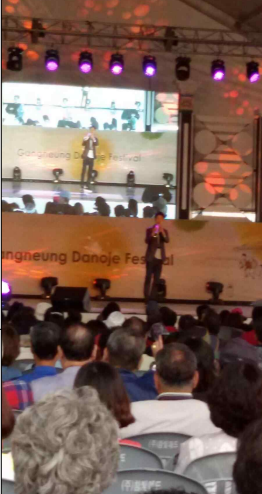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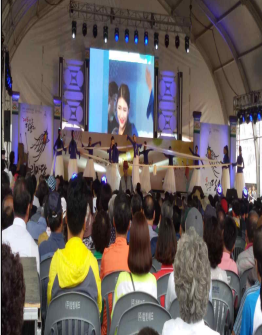
▶ 고유성 모니터링

- 프랑스 전통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한국인의 축제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축제의 장을 넓히려는 노력이 엿보였음.
- 프랑스 농촌 문화를 우리 농촌 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음.

▶ 의외성 모니터링

- 배경 스크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가나 페스티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
- 프랑스 가나 페스티벌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관람객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행위예술로만 그칠 수 있음.
- 프랑스 전통 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중간 중간 공연자의 인터뷰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면 좋겠음.

□ 부천시 공연단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단오제에 참여한 시민 모두가 신나게 논다는 점에서 부천시 공연단의 다채롭고 다양한 공연은 주제에 부합함. • 사물놀이 + 현대무용 + 벨리댄스 + K-Pop댄스 + 비보잉 등 다양한 몸짓을 선보이며 2016단오제의 키워드 ‘몸짓’에 부합하는 공연들을 보여주었음.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마당의 특성상 관람형의 공연이었으나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 공연마다 관객의 호응과 관심이 대단했음. • 관람형태였고, 중장년층이 주 관객층이었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무용과 벨리댄스, 비보잉 등은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했지 전문 공연단의 공연은 처음이었는데 매 공연순서마다 모든 관객들이 몰입해서 관람하였고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느껴질 정도였음. 	부천시 공연단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무대들의 공통점을 요약해보면 무대마다 2가지 스타일의 공연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 첫 번째 스타일은 장르의 고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스타일은 장르의 고전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는 점임. 이점에서 부천시 공연단만의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공연시작을 했을 때 이들 동안의 단오제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수히 봤던 사물놀이를 하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색다른 무대가 펼쳐져서 의외였고 부천을 왜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음. • 무용단이 유명한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수준급이라서 놀랐고, 무대구성이 지루하지 않았음. 	

총평 : 각각의 공연들이 모두 완성도가 높았고 관객들의 관심과 몰입이 굉장했음.

그러나 각 공연이 단오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단오제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단오제 기간 동안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임.

▶ 주제성 모니터링

-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단오제에 참여한 시민 모두가 신나게 즐김.
- 자매도시 부천시는 “사물놀이 + 현대무용 + 벨리댄스 + K-Pop댄스 + 비보잉” 등 다양한 몸짓을 선보이며 2018단오제의 키워드 ‘몸짓’에 부합하는 공연들을 보여줌.
- 자매도시를 초청해 강릉 단오제의 진면목을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는 등 문화교류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 참여성 모니터링

- 수동적 관람 형태의 수리마당에서의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의 호응과 반응이 좋았음.
- 객석이 가득 찼으며, 청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고른 연령대의 참여가 두드러짐.

▶ 신기성 모니터링

- 현대무용, 벨리댄스, 색소폰연주, 비보이 공연 등 현대적 공연들이 전통 공연에 지친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줌.
- 젊은 연령층의 관객 호응도가 높았으며, 참가자들의 고른 연령대가 돋보이는 무대였음.

▶ 고유성 모니터링

- 전통 스타일의 무대와 전통에 기반을 두어 현대적 역동성을 첨가한 창조적인 무대를 선보임.
- 부천시 공연단의 공연 장르가 매우 다양하며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음.

▶ 의외성 모니터링

- 타 도시와 우호적이 협력관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 여러 각국 도시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함.
- 부천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술성을 지닌 여러 시와의 문화단체들과 교섭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강릉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강릉학산 오독떼기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구 소품 등을 직접 준비하여 농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2016강릉단오제의 키워드가 '몸짓'이라는 점에 아주 부합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함. • 또한, 단오제는 한해의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를 지냈었는데 모내기를 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단오의 성격에 적함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 : 아침시간이라서 그런지 공연장에 빈자리가 많이 보였음. • 참여형 : 이번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형의 공연임.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내기는 실제로 본적이 없고 매체를 통해서만 본 것이 전부였는데 공연장에서 실제로 모내기 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품을 잘 준비했고 실제로 맨발로 모내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음. • 창을 하는 사람은 3명으로 농사를 할 때 창을 하는 사람, 다음에 진행될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 보조가 있었음. 아쉬운 점은 풍악을 울릴 때 상황을 설명해주어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요 중에서 가장 그 색채가 잘 들어나는 학산오독떼기를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이 이름부터가 강릉 학산오독떼기의 고유성을 나타내준다고 생각함. • 창 + 풍물 + 몸짓(소품), 3박자가 맞춰 이루어진 공연이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풍물과 창을 했던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모내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김매기, 비가 올 때의 김매기, 벼베기의 모습 등 논농사 전반의 걸친 모습을 짜임새 있게 보여준 점이 이 공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함. 	

총평 : 농기구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논농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무엇보다도 기계화된 농기구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 농기구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강릉학산 오독떼기는 전통기구, 전통음악 등 다양한 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학산 오독떼기 유래

- 학산 마을의 대표적인 농요인 <오독떼기>의 유래와 관련하여 “옛날 신라 시대 화랑 무리들이 강릉 근방을 순력하면서 풍류도를 닦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국선들이 부르던 노래가 곡조만 살아서 내려왔다” 는 견해가 소개되기도 함.
- 강릉지방 농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조서 제7대 임금인 세조 12년의 실록에 보임. 세조는 특히 농요를 좋아하여 농요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궁중에서 노래를 듣기도 하였는데, 세조 1년 윤 3월에 동해안 지방을 순행하면서 ‘농가’ 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아 노래하게 하였고 임금의 행차가 구산에 머물렀음.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 이미 강릉지역의 농요가 음악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를 만큼 세련되었음 알 수 있음.

▶ 학산 오독떼기 특징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 오독떼기” 는 한 해 논농사의 과정에서 부르는 일체의 현지 농요로 구성됨. 작업 순서에 따라 모내기소리인 <자진아라리>, 논 매기 소리인 <오독떼기, 꺾음오독떼기, 잡가, 사리랑, 담성가, 싸대>, 벼 베기소리인 <불림소리>, 타작소리인 <마댕이소리> 등이 주를 이룸.
- 학산에서는 모내기 할 때 <자진아라리>를 주로 부르고, 논 맬 때는 <오독떼기>와 <꺾음오독떼기> 그리고 <잡가> · <사리랑> · <담성가> · <싸대>를 부름.
- 벼를 벨 때는 <불림소리>를 하고, 타작을 할 때는 도리깨질 소리로 <마댕이소리>를 부름.
- 그 밖의 향토민요로는 산에서 등짐을 지고 내려오며 부르는 <등짐소리>, 유희요 <고사리 꺾기>, 단오제에서 영신가로 부르는 <영산홍>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논 맬 때 부르는 <오독떼기>가 예술성이 가장 뛰어나고, 지역 주민들이 큰 자랑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노래이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그 명칭을 <강릉학산 오독떼기>라 함.

▶ 주제성 모니터링

- “학산오독떼기” 는 “강릉단오제” 의 지정문화행사의 하나로 그 전통성과 주제성이 확실한 전통문화 행사임.
- 농기구 소품 등을 직접 준비하여 과거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하며 극을 구성하였으며, 이런 종합 예술적 극 구성은 ‘학산 오독떼기’ 소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됨.

▶ 참여성 모니터링

- 오전 11시에 시작된 공연이어서 관람객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음.
- 강원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학산오독떼기’ 는 오독떼기는 강릉시의 여러 논매는 소리 중에서도 지역적 고유성이 가장 뚜렷한 노래임.
- 이러한 소리를 너무 이른 시간에 공연을 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 할 수 없어 아쉬움.

▶ 신기성 모니터링

- 실제로 본적 없는 모내기를 공연장에서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품을 준비가 철저함.
- 실제로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듯 맨발로 극을 진행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학산오독떼기’를 생생하게 그려냄.
-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참 좋아 우리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임을 알게 됨.



▶ 고유성 모니터링

- 강릉시의 여러 논매는 소리 중에서도 지역적 고유성이 가장 뚜렷한 노래인 ‘학산오독떼기’는 지역 고유성 및 단오제의 역사성과 주제성을 잘 반영함.

▶ 의외성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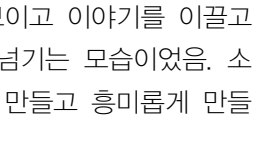
-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농촌 문화와 단오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없음. 그러므로 농촌문화를 새로운 형태의 체험 문화로 상품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보조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나 잘 전달되지 않음. 아리마당 전문 MC배치와 LED스크린 설치가 필요함.
- 지역 전통 문화 전승과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비교적 관람객이 많은 시간대에 지정문화재 공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가톨릭관동대 /임영희 관노가면극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노가면극이라면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장자미리2명, 시시딱딱이2명이 있어야하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있었고 각각의 역할대로 공연의 흥을 돋우는 모습이 관노가면극 연출에 적합했다고 생각함. 	 <p>관노가면극</p>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형 : 공연자들은 마지막 장을 어린 관중들을 무대 중앙으로 데려와 함께 즐기는 장으로 만들려고 했음. 관람형 : 외국인 관중들도 몇몇 눈에 띄었고, 관중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무대에 보답하며 재미있게 관람하였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관동대 관노가면극은 에너지와 볼거리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이며 춤과 몸짓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관노가면극도 단오제의 고유성에 부합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서 봤던 관노가면극에 비해 연기력에 많은 보완이 필요 있어 보임. 	

총평 : 관노가면극에서 장자마리는 포를 뒤집어쓰고 있어 ‘보싼 놈’으로도 불리며 머리에 계화를 꽂고 눈과 입, 코만 뚫어 놓았고 옷에는 둥근 테를 넣었는데 해초와 곡식을 매달아 풍요를 상징하는 토지신으로 본다고 함. 양반광대의 가면은 흰 얼굴이 긴 수염, 평털을 단 검은 고깔로 표현하며 권위를 상징하는 긴 담뱃대와 접이부채를 가지고 등장함. 양반광대는 국사성황의 수호신격이라고 함. 소매각시는 국사여성황으로 생산, 생명력, 봄을 의미하며 시시딱딱이는 험하게 생겨 병을 막아주는 여역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함. 단오의 역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이를 관중들과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관노가면극은 단오제 내내 여러 차례 공연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무언극인 만큼 공연마다 움직임의 에너지와 구성력에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극이라는 생각이 듭.

□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올렸던 제사라는 점에서 주제에 부합함. 단오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곳 이외의 다른 지역의 굿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된 양주소놀이굿은 우리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등장시켜 노는 놀이굿인데 이것은 동네와 가정의 악귀를 쫓고 농사나 사업,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강릉 단오제의 주제에 적합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객들은 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흥미롭게 관람했고 소들은 마치 진짜 소처럼 관람들에게 살갑게 다가왔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어미소와 송아지가 등장하여 무대를 돌아다녔는데 어미소의 움직임과 송아지의 움직임이 상이하여 송아지는 마치 진짜 송아지가 호기심 가득하게 무대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듦. 굿에서 동물을 구체적 형상을 꾸며서 놀이를 한다는 점이 신기하고, 재밌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를 꾸며서 만들어 굿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희적 성격이 부각된 놀이적 성격이 강한 굿이며, 소를 끌고 온 마부가 무당과 함께 해학적인 재담과 소리로 진행됨.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경의례에서 발전한 연희의 하나로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므로 경기도 양주 지역만의 고유성을 띠며.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 공연단은 직접 만든 시루떡을 관중들에게 공연 중에 나눠주며 먹음. 한국의 과거 농사에서 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신성시했는데, 그 소를 극에 직접 투입했다는 점이 신선한 요소였음. 	

총평 : 어미소와 송아지가 공연 중에 돌아다니며 관중들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아내’ 를 성가시게 굴어도 마치 진짜 소처럼 재치 있게 넘기는 모습이었음. 소들을 꾸며진 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인화가 이 공연을 몰입하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었음.

▶ 양주소놀이굿 요약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70호 양주소놀이굿은 우마 송배와 농경의례인 소먹이놀이에 기원을 두고 무손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 등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놀이임.
- 마부타령의 가사는 장편 서사가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세련되어 민속예술의 한 부류로서 연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민속의례에서 민속예술로 승화된 작품임.

〈 표 31 〉 양주소놀이굿

장	내용
1장	길놀이로 시작되는데 악사를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며 마을 입구에서 출발해 공연자용으로 입장한다.
2장	먼저 송아지가 춤추며 들어와서 이리저리 고개를 옆으로 가웃거리며 마당을 돌다가 굿당에 뛰어들어 무녀들의 입을 맞추면서 장난을 하고 뛰어간다. 나가던 소가 다시 등장하여 먼저보다 빠른 동작으로 가웃거리면서 마당을 돌며 재롱을 부리고 마부와 만신의 대화가 시작된다.
3장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상을 마련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만신의 제석거리로 막이 오른다. 만신과 장고치는 사람이 주고받는 만수받이 소리가 끝난 다음 만신이 한바탕 춤을 추고 부채를 펴가며 소장수를 불러 재담이 시작된다.
4장	원나부와 곁마부 등이 등장하여 마부타령이 이어지면서 소의 생산지와 절의 내력, 소의 색깔내력 등에 관하여 재담으로 이어진다.
5장	마부타령이 끝나면 만신이 영감(원마부)을 불러서 소의 마모색(소의 생김새)를 물으니 영감이 나와 소의 머리 부분부터 몸 전체에 대한 내력을 타령조로 소개하는 내용
6장	굿을 하는 도중 소장수가 나타나고 마부는 소장수에게 큰 소는 오천 냥, 작은 소는 칠백 이븐 네 냥하고 소 값을 흥정하는데 마부의 주장에 관계 없이 마부 마누라 만신이 간섭하여 돈을 가로채어 세는 것으로 소흥정은 마무리 된다.
7장	공연출연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져 함께 흥겹게 춤추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 주제성 모니터링

-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된 양주소놀이굿은 농촌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던 소를 등장시켜 노는 놀이 임.
- 동네와 가정의 악귀를 쫓고 농사나 사업,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강릉 단오제의 주제에 적합함.
-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의 성격의 놀이 판이 타 지역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과 고유성을 알 수 있는 공연이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소가 관람석 사이로 돌아다니며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킴.
- 관객들에게 ‘얼씨구’ , ‘좋다’ , ‘잘한다’ , ‘예쁘다’ 등의 추임새로 양주 공연단의 무대를 함께 응원하고 북돋아 주기를 주문하였고, 관객들 역시 신명나게 함께 하였음.

▶ 신기성 모니터링

- 길놀이 - 양주소놀이 굿 - 모듬북 공연 - 국악합주 - 가위치기 공연을 준비함.
- 양주소놀이굿 보존위원회는 양주소놀이굿 만으로는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기대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공연문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함.
- 젊은 공연자들이 연주하는 모듬 북 공연과 가위치기 공연은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쳐 우리 전통 공연문화 시장에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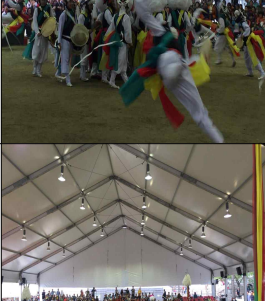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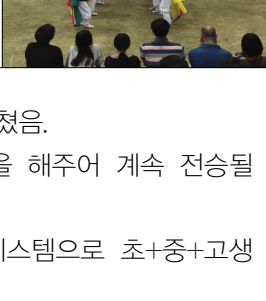
▶ 고유성 모니터링

- 농사를 맞아 부부가 소를 두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극이었음.
- 극에 소가 출현하는 유일한 극으로 ‘양주 소놀이 굿’ 만의 전통성을 지님.

▶ 의외성 모니터링

-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소놀이 굿’ 에 대한 정보가 관람객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힘들.
- 탈을 쓰고 있어 대사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해가 힘들었음.
- 극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돕고, 관람객의 참여를 돕는 전문 안내 요원 및 아나운서의 배치가 시급함.
- 전통공연과 현대적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이 인상적이었으며,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음.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금릉빛내농악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세고 힘차게 풍악을 울리고 공연단 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공연으로 단오장을 떠들썩하고 흥겹게 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는 단오제의 성격에 적합하고 '몸짓'이라는 점에서 주제에 부합함.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이지만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님께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점이 강릉 단오제의 주제와 적합함.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찬 공연으로 관람객들은 주로 관람하는 역할이었으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강약 조절로 관객들은 더욱더 무대에 몰입하였고 농악대 다수의 자반뒤집기는 정말 큰 볼거리였으며, 다른 농악대와의 큰 차이점이었음. 다른 지방의 농악들과 다르게 군악적인 영향이 강한 군사굿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다른 농악들보다 힘차고, 후반부쯤에 양 쪽으로 패를 나누어서 대결하듯이 벌이는 연주가 인상 깊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악의 대부분이 농사굿인데 비해 유독 빛내농악은 군대행진용의 '군사굿(진굿)'으로 전승되어 매우 강렬하고, 전투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어린친구들에게 많이 전수하여 전문 공연이 직접 참여시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는 이 공연단만의 고유한 특징임.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학생의 친구들이 공연에서 직접 참여하여 소고를 치며 상모를 돌렸는데 프로와 견줄만한 실력이라 깜짝 놀랐음. 군악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봤음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힘차고, 흥겨운 분위기였음. 다른 농악들과 제일 달랐던 점은 사냥꾼 분장을 한 할아버지의 존재였음. 	

총평 : 군악의 성격이 강하고 젊은 에너지가 가득하여 무대의 활기가 넘쳤음.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금릉빛내 농악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어 계속 전승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음.

우리 농악보존회도 금릉빛내 농악보존회와 같이 체계적인 전수시스템으로 초+중+고생들에게도 전수하여 활력 넘치는 농악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금릉 빗내 농악의 유래

- 금릉 빗내 농악이 전승되어 오고 있는 빗내 마을은 삼한시대 감문국에 속했던 지역으로서 넓은 개령들을 앞에 두고 뒤에는 감문산성의 성터가 있으며 군사를 동원할 때 나팔로 신호했다는 취적 봉이 있는 역사적인 고장으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의 다른 지명임.
- 한국농악의 대부분이 ‘농사굿’ 인데 비해 ‘금릉빗내농악’ 은 ‘군사굿(진굿)’ 으로 전승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01 편성인원** ▶ 빗내농악의 편성인원은 36~46명 정도로 구성되는 진굿 (군사굿)으로서, 마을에서는 보통 가구당 1명씩 동원되어 놀이패가 구성된다
- 02 복색과 장식** ▶ 옷은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에다 검은색 조끼를 입으며, 홍·황·청 (紅·黃·靑) 3색의 복색과 머리에는 전립과 흰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고깔을 쓰고 있다.
- 03 상쇠의 복색** ▶ 상쇠는 등판에 장군을 상징하는 금빛 장신구가 달린 복색을 하고, 앞 이마에 꽃을 달았으며, 체에 5색천을 달아 지휘자임을 상징하고 있다.
- 04 놀이의 구성** ▶ 놀이내용은 12마당인 골매기굿, 문굿, 마당굿, 영풍굿, 판안다드레기, 기러기굿, 허허굿, 쌍둥이굿, 판굿, 영산다드레기, 진굿, 상사굿으로 구성된다.
- 05 놀이의 특징** ▶ 빗내농악은 순수한 경상도의 내륙 농촌에서 전승된 풍물이며 농사굿이 아닌 진굿(진풀이)으로 12마당의 굿판이 명확한 차이를 가지면서 마치(잔가락)의 종류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그림 8 〉 금릉 빗내 농악 특징

▶ 주제성 모니터링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님께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점 “강릉 단오제”의 내용·형식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
- 거세고 힘찬 군사적 농악은 지역색을 가진 색다른 형태의 ‘몸짓’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인 공연이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한 힘찬 북소리와 동작들은 관람객들의 환호를 저절로 이끌었음.
- 전열 가다듬기, 상모돌리기 등을 통해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공연 구성을 효율적으로 잘 하였음.

▶ 신기성 모니터링

-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상쇠의 모자는 상서로움 혹은 부정을 이기기를 바라는 염원의 백색임. 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백색이기도 함.
- 농악에서는 볼 수 없는 포수의 등장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악에 대해 무척 신기했음.

▶ 고유성 모니터링

- 고대 취락을 이루어 온 전형적인 농촌인 빗내 마을의 풍물놀이에서 이어온 빗내농악은 빗신과 전쟁에서 파생된 320년의 역사를 지닌 경상도 특유의 진굿임.
- 금릉 빗내 농악은 군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며, 가락의 바뀔과 진풀이가 매우 다양함. 전남 진도의 북춤과 비슷하나 북의 크기와 그 맛이 색 다름.
- 편성대에 큰 북이 장구 앞에 서고 큰 북은 북채 두 개를 두 손에 들고 치.

▶ 의외성 모니터링

- 군사적 농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왜 나타났는지를 지역 문화를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감상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면, 관람객 및 참여자의 입장에서 공연을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전통 문화 공연에 대한 자료가 강릉단오 축제 현장에 충분히 준비 및 배포가 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 및 방문객들의 일회적 관람거리에 그침.
- 금릉 빗내 농악과 같은 특색 있고 가치 있는 전통 무형 문화재를 발굴하여 이를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통합 체험 프로그램 개발필요.

□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앙상블이라는 주제에 걸 맞는 공연으로 해금, 피리, 피아노, 드럼, 베이스가 조화를 이루며 이색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공연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지 못함. 하지만 참여한 관객들의 집중도와 호응도는 매우 높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국악 악기와 서양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이색적이었음. 재즈음악과 어우러진 창작 국악이 매우 아름다운 무대였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고유의 것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훌륭한 무대.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악기 콘트라베이스, 드럼, 생황, 해금, 피아노의 궁합이 이렇게 환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움. 동서양의 하모니가 단오제의 유·불·무속 신앙의 하모니와 같다는 생각이 듦.

총평 : 우리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와의 조화로운 음악이 매우 인상적이 무대였음.

재즈 화 된 우리 창작 국악이 평소 우리 전통 음악이 어려운 젊은 층들에게는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무대였음.

▶ 주제성 모니터링

- 해금, 피리, 생황, 피아노, 드럼, 베이스로 이뤄진 그룹으로 우리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킴.
-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양과 서양 악기의 앙상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다르면서도 같고, 주제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아름다운 무대였음.

▶ 참여성 모니터링

-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관람객의 참여가 부족함.
- 단오문화관이 실내공연장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단오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단오장 곳곳에 모니터와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새롭게 창조된 우리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으며 그러한 시도가 신선했던 무대임.

(3) 2016. 06.07 – 단오제 3일차

□ 제12회 강원다문화가족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단오의 주제에는 벗어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호응도가 좋았음.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요제로 별다른 신기성은 보이지 않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의 축제와 행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적 특색이나 강릉단오제에서만만의 고유성을 찾아보기 힘든 프로그램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에 선 다문화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러 나온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인상적임. 	

총평 : 단오와 주제는 부합하지 않으나 다문화가정과의 하나 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며 화합의 장을 만들.

▶ 주제성 모니터링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무대이며, “강릉 단오제”를 세계인의 축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위한 주제아래에는 소통하기 적합한 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무대를 선보임.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명절 때 마다 각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가족 노래 경연 대회 형식을 따르고 있어 신기성은 떨어짐.

▶ 의외성 모니터링

- 무대선 다문화 가족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가족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하나 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따스해지는 자리였음.

□ 강릉시립교향악단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에서 창단·운영된 악단의 공연인 것 외에는 강릉단오제의 주제와는 맞는 부분을 찾기 어려움. 	 <p>강릉시립교향악단</p>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객석이 꽉 찼을 정도로 참여했으며 감상형태로 호응도 역시 좋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현악의 세계를 완벽하게 재편해낸 탁월한 곡 해석으로 청중들의 심금을 울림.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레퍼토리와 참신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강릉 단오제만 에서의 공연을 보여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저 강릉시에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이라 큰 기대가 없었지만 높은 수준의 공연으로 관객들도 감동받았으며 만족스러워했음. 	

총평 : 강릉단오제와의 깊은 연관성은 없지만 강릉시에서 창단·운영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축제에서의 또 다른 빛을 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임.
강릉단오제와 조금 더 연관성을 만들어 무대를 꾸민다면 더 높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성 모니터링

- 강릉에서 창단·운영되는 교향악단의 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며 감상하였으며 호응 역시 좋았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탁월한 곡 해석과 웅장한 음향으로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연이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전통문화공연인 단오장에 서양의 클래식 공연이 참신한 레퍼토리로 진행되어 새로웠음.

□ 경포농악대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와 농사의 과정을 보여주며 판굿의 주축이 되는 농악의 주제가 적합함. 	 <p style="text-align: center;">경포농악대</p>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석에는 주로 가족단위나 노년층이 함께 참여함. • 이동 중에 구경하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농악만의 특유의 향토적 특색을 가지고 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굿으로 과거의 각 마을 농악대의 내용이 한데 어우러져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농악과 크게 다르거나 눈에 띄는 점이 없어 의외성을 찾을 수 없음. 	

총평 : 경포동 지역주민들이 농악을 선보여 꾸민 무대로 전통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대 배치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와 농사의 과정을 보여주어 단오의 주제와 적합한 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오전 11:00 첫 시간에 공연이 시작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 하지 못함.
- 관람객들이 구경을 하려다가고 무엇을 공연하는지 잘 몰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강릉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농악만의 향토적 특색을 가짐.
- 강릉농악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을 가리키며 두산동 농악대, 월호평동 농악대, 저동 농악대, 사천 답교 농악대 등 네 개 마을 농악대를 아울러 강릉농악이라 통칭함.
- 강릉농악을 ‘농사풀이농악’ 이라는 ‘판굿’ 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흥내 내어 재현하는 형태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임.

□ 충남무형문화재 흥성결성농요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농요로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의 주제와 적합.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가락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며 특히 노년층의 참여가 많았음.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농요로 친숙한 느낌을 주었으나 별다른 신기성은 느끼지 못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어, 모심는 소리인 <겹상사소리>는 충남 내포 지역 일대만의 대표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일을 마친 후 아이들을 목말 태우고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총평 :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의 주제와 적합하게 어울리며 다른 지역과의 농경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이 됨.

▶ 충남무형문화재 흥성결성농요 유래

- ‘결성 농요’란 결성면 일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모든 일노래를 총칭
- 용신제·모내기·건쟁이·뚝막이·아시매기·설참놀이·만물·행진·마당두레놀이의 아홉 마당으로 구성됨.
- 그중 일노래는 ‘모내기’, ‘김매기(건쟁이)’, ‘뚝매기(가래질)’, ‘초벌(아시벌)매기’, ‘지게놀이’, ‘만물매기’의 여섯 마당에서 불림.

▶ 충남무형문화재 흥성결성농요 내용

- 두레꾼들은 아침 일찍 마을 앞 당산 터에 용대기를 세우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지낸 뒤, 논으로 나가 <상사리소리>를 부르며 모내기를 함.
- 모를 심은 후 약 10~15일이 지나면 논을 매는데, 이때 호미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잔 풀을 맴. 이를 ‘건쟁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작업임.
- 다음은 장마와 수해로 무너진 논둑을 고치는 ‘뚝막이’를 하면서 <가래질소리>를 함.
- 건쟁이를 하고 난 10~15일 후에는 호미로 논을 매는 ‘초벌(아시벌)매기’를 함.
- ‘지게놀이’는 무더운 여름철 새참을 이용해 노는 놀이로 해학이 깃들여 있으며, ‘만

물매기’ 는 마지막으로 논을 매는 것이고, 만물매기가 끝나면 두레꾼들은 모여서 풍물을 치며 한바탕 신나게 놔,

▶ 주제성 모니터링

- 결성 농요’ 란 결성면 일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모든 노동요를 칭하는 것으로 홍성 지방의 특색있는 농악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어떤 공연인지 몰라 망설이던 관람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함.

▶ 신기성 모니터링

- 무동들이 어깨에 올라 공연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이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건쟁이’ 라는 독특한 작업도 인상적이었음.

▶ 고유성 모니터링

- 두레꾼들은 아침 일찍 마을 앞 당산 터에 옹대기를 세우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지내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토속신앙을 나타내며, 일을 마친 후 두레꾼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신나게 노는 것 역시 신명나는 우리 고유한 전통 문화를 보여줌.
- 하지만 ‘건쟁이’ 라는 잔풀매기 문화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작업으로 홍성 지방만의 차별화된 고유문화임.

▶ 의외성 모니터링

- 비슷한 것 같지만 각 지역마다 다른 농악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부각시켜 관람객들이 즐기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일반 관람객들은 홍성결요의 ‘건쟁이’ 와 ‘지계소리’ 의 의미와 차별성을 알 수 없음.
- 알려지지 않은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고 즐기게 하기 위해 아리마다의 시설이 전통문화 공연의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주문진 관노가면극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는 제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를 가짐으로 주문진 관노가면극은 단오의 주제에 매우 적합하며 빠질 수 없는 공연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가족단위나 노년층의 관객임. 호응도가 좋으나 이동성이 많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사 없이 사랑, 오해, 화해의 다섯 마당을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하는 탈놀이를 선보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의 무연가면극이라는 고유성을 가지고 강릉단오제에서 관노들에게 연행되던 가면극으로 연행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가면극에서 보이는 풍자나 저항의식보단 제의를 중심으로 펼쳐짐. 	

총평 : 영원한 스테디셀러로 강릉 단오제의 주요 볼거리인 관노가면극은 모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임.

하지만 시간대와 상황별로 관람객의 차이가 크고 특히 노년층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주제성 모니터링
 - 강릉지정문화재행사로 국내유일의 무연극이라는 특성을 가진 가면극임.
- ▶ 참여성 모니터링
 - 총 5개의 장 중간마다 관객과의 호흡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 신기성 모니터링
 - 국내 유일 무연극이라는 형식적 요소가 신기함.
- ▶ 고유성 모니터링
 -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연 가면극으로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성을 지님.
- ▶ 의외성 모니터링
 - 타 지역의 가면극에서 보이는 풍자나 저항의식보다는 제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구조가 인상적임.

□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에서 만나는 또 다른 축제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초청한 정선아리랑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락을 지닌 민요로 역사와 민족성을 구현한 것이 단오의 주제에 적합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흥겨운 무대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호응을 보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적인 구성을 가진 새로운 공연의 형태가 보는 이들을 흥미롭게 함.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리랑 중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모든 아리랑의 고향으로 평가되는 정선아리랑의 참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의 전문 아리랑예술단체로 젊은 단원부터 노년층의 단원까지 구성되어 무대가 다채로운 무대가 보임. 	

총평 :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것에 대한 또 다른 축제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보는 이들도 즐거워하여 축제의 흥을 더할 수 있는 무대로 보임. 앞으로 비슷한 의미와 주제를 가진 또 다른 축제들도 초청을 꾀할 필요를 느낌.

▶ 주제성 모니터링

-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 민요임.
- 그중 ‘정선 아리랑’은 향토민요아리랑을 대표하는 ‘아리랑’으로서 호남 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의 일원의 ‘밀양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대표함.
- 강원도에서 지정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가지 ‘강릉단오제’, ‘아리랑’, 영월의 ‘장릉(단종능)’과 함께 강원도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전통문화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같은 시간대 영신행차 및 신통대길 길놀이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참석을 하지 못함.
- 하지만 참석한 관람객 대부분 공연이 끝날 때 까지 높은 호응과 집중력을 보임.

▶ 신기성 모니터링

- ‘아리랑’에 대한 전승 역사와 ‘아리랑’의 가치를 악극의 형태로 구성하여 관람객

들이 이해하기 쉽고 몰입하기 쉽도록 연출함.

▶ 고유성 모니터링

- 우리나라 영서, 영동지방에 분포되어 예부터 토착민들에 의해 구전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향토 아리랑을 ‘아라리’라 부름.
- 이렇게 구전되던 ‘아라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중흥을 가져온 것은 조선후기임.
- 한일합방 후 일제말엽까지 영화 “아리랑”으로 우리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과 한을 애절한 가락에 기대어 이겨 낸 우리 민족의 노래임.

▶ 의외성 모니터링

-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화하여 관객들이 ‘아리랑’의 역사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자춤, 뱃놀이 등 다양한 전통적 퍼포먼스를 추가하여 관객들의 호기심과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음.
- 정선아리랑 예술단 단원들의 기량이 매우 뛰어나 극을 감상하는데 편안함.
- 하지만 음향시설이 불안전하고, 대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관람석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 이에 관객들이 많이 불편해 함.

□ 솔향 인형극단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을 주제로 두고 봤을 때, 홍길동전을 바탕으로 만든 인형극을 강릉 사투리로 대사를 꾸며 아이들에게 강릉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참여보다는 가족단위가 많이 보였으며 특히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투리로 꾸며 지역 색을 느끼는 재미가 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훈과 지혜를 담은 재미난 동화를 비롯해 강릉 단오제, 허균의 홍길동전, 난설헌을 주제로 한 인형극 등 강릉지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를 담고 있어 훌륭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연으로 평가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들이 손수 바느질해 만든 인형들이 인형극에 쓰이며 정성을 들여 공연하는 것이 느껴짐.

총평 : 인형극을 통해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담고 교육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프로그램임.

▶ 주제성 모니터링

-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고향,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홍길동전을 바탕으로 만든 인형극 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강릉사투리로 진행되는 공연이 이색적이었음. 강릉 사투리에 관람객 대부분 호감을 보이는 무대였음.

▶ 신기성 모니터링

- 대중들에게 익숙한 ‘홍길동전’을 강릉 사투리로 바꾸어 지역문화를 알리고 재미를 선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공연이었음.



▶ 고유성 모니터링

-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강릉 단오제, 허균의 홍길동전, 난설헌을 주제로 한 강릉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를 담아낸 문화 콘텐츠임.

▶ 의외성 모니터링

- 세련된 무대 연출과 소품의 개선 및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시나리오 수정이 필요함.

□ 매직타임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픽 성공개최를 염원하여 만든 매직쇼 프로그램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은 주로 아이들이 많았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선보여 아이들의 호응이 무척 좋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을 땔 수 없는 신기한 마술들로 몰입도가 높았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지만, 강릉출신으로 경력 15년의 최석훈 프로마술사는 이미 강릉에서 수상한 마법학교를 개교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활기 기대하는 주목을 받고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를 거의 혼자 진행했음에도 허전하거나 부족함이 없었음. 	

총평 : 강릉단오제와 부합한 주제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화려한 마술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여 축제의 흥을 돋우게 하는 역할을 함. 아이들의 참여가 큰 프로그램인 만큼 좀 더 마술의 소재에 강릉단오제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올림픽 성공개최를 염원하여 만든 매직쇼 프로그램이었으나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마술 공연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움.
- 마술공연 구성을 전통과 현대의 하나 됨, 혹은 문화 올림픽을 위한 문화 마술 등 테마 콘텐츠를 기획해야 함.

▶ 참여성 모니터링

- 참여 할 수 있어서 유· 아동 관객들의 참여 및 호응이 매우 높음.






▶ 신기성 모니터링

- 눈을 땔 수 없는 신기한 마술들을 선보여서 몰입도가 매우 높았음.

▶ 의외성 모니터링

- 단오제와 마술을 접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음.

□ 신통대길 길놀이 (성내광장)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의 제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의 위패와 신목을 제단으로 모시는 영신행차의 일환으로 한국적인 길놀이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더할 나위 없이 맞음.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21개 읍면동의 주민들과 일반 참여 시민들이 함께하여 월등한 호응을 보임. 이번에는 한복을 입은 시민, 단체들의 행렬에 참여를 확산하였으나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을 맞이하기 위한 영신행차에 각기 1년을 준비한 길놀이 퍼포먼스를 거리에서 펼침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엄청난 흥을 보임. 타 지역의 관람객들도 처음 경험해 보는 길놀이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 해로 4회를 맞이하여 최근 가장 성공한 강릉 단오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평가받음. 지역주민의 화합은 물론이고 마을의 역사와 자랑 거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행사였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좀 더 역동적이고 풍성할 것을 기대한 만큼 퍼포먼스의 수준 높았음. 행사 진행에 있어 보여주기에 급급한 인상을 받음. 행렬 시간이 지체되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 중간에 흐름이 끊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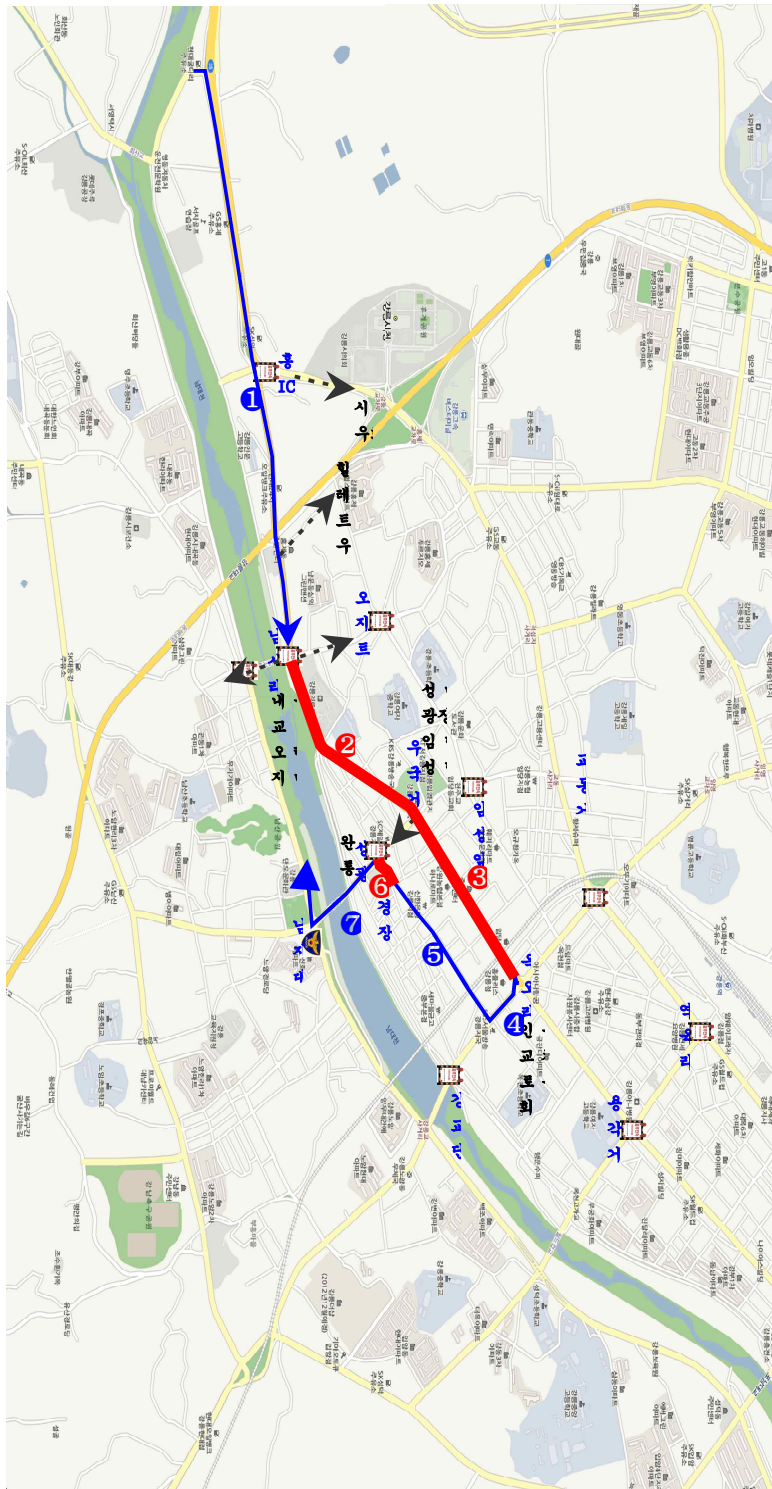
총평 : 강릉 단오제의 영신행차 전통을 현대적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속되어 온 점에서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임.

하지만 지정문화 행사인 영신행차가 주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마을 퍼레이드가 단오제와 맞지 않는 콘셉들이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 됨.

많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동시간대에 몰리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함.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단오제라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주제성 모니터링
 - 단오의 제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의 위패와 신목을 제단으로 모시는 영신행차의 일환으로 한국적인 길놀이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 강릉단오제 보존회 및 무격이 주관하는 행사로 강릉단오제 지정문화행사임.
- ▶ 참여성 모니터링
 -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들과 일반 참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전국 최대의 길놀이임.
 - 한복을 입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행렬에 참여하였음.
- ▶ 신기성 모니터링
 - 여성황신의 친정인 경방택에 들른 국사성황신 부부를 모셔 남대천 가설 제단으로 옮겨가는 영신행차에는 화개와 탈놀이 흥겨운 가락으로 그 흥을 돋움.
 - 그 뒤를 각 마을들이 길놀이 퍼포먼스를 하면 따라감.
- ▶ 고유성 모니터링
 - 최근 가장 성공한 강릉 단오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지역주민의 화합은 물론이고 마을의 역사와 자랑거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행사였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강릉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좀 더 역동적이고 풍성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퍼포먼스의 수준에 그쳐 아쉬움.
 - 보여주기에 급급하여 시간이 지체되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흐름이 자주 끊김.



구분	이동구간	이동예정시간
①	홍제동 여성황사 ~ 내곡교	19:00 ~ 19:40
②	내곡교 ~ 강릉우체국	18:00 ~ 21:00
③	한국은행 ~ 옥천오거리(씨네몰)	18:50 ~ 21:40
④	옥천오거리 ~ 금성로입구	19:30 ~ 22:00
⑤	금성로 일방통행로	16:00 ~ 22:00
⑥	성내동광장	
⑦	우체국 ~ 남산교	18:00 ~ 22:00

〈 그림 9 〉 영신행차 이동 경로 및 시간

(4) 2016. 06.08 – 단오제 4일차

□ 부정 굿 (단오제단)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을 모시고 단오 굿을 하기에 앞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오제에 적합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임. 주요 관람객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95% 정도임.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채움.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굿은 본격적인 굿하기 전 구당을 정화하는 의례로 행해지는 굿인데 실제로 무녀의 춤을 보니 신기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짐. 강릉 단오제처럼 신을 모시는 축제에서만 볼 수 있으며, 굿이라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운 후 공중에 날림. 굿이라고 하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고 관객들한테 말을 걸며, 얘기도 함. 	

총평 : 신을 모시고 단오 굿을 하기에 앞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가셔내기 위하여 무속 인들이 하는 굿인데 시작하기 전에 술, 떡을 나눠줘서 정신이 산만했음.
 굿을 하는 시간이 짧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굿이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국서성황님을 모시고 단오 굿을 하기에 앞서 부정한 것을 물리기 위해 올림.
- 2016년 ‘단오 굿’ 제차 순서는 “ ‘부정굿’ – 하회동참굿 – 조상굿- 축원굿- 세존굿 – 종잡이굿 – 군웅장수굿 – 성주굿 – 축원굿 – 심청굿 – 지탈굿 – 제면굿 – 칠성굿 – 용왕굿 – 꽃노래 굿· 뱃노래 굿· 등노래 굿 – 송신제· 소재· 환우굿 ” 임.

▶ 참여성 모니터링

-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이지만 상주 관람인원이 매시간 마다 300명이 넘는 인기 장소임.
- 주 관람 층이 50대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많음.

▶ 신기성 모니터링

- 부정을 물리치고 깨끗하고 신성한 상태에서 놀이 판, 굿판을 벌인다는 것이 신에 대한 우리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음.

▶ 고유성 모니터링

- 강릉 지역 고유의 무속신앙이 내포되어 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단오 굿’에 대한 설명이 우측 LED 판에만 설치되어 있어 좌측 관람객들은 확인하기 어려움.
- 평균 관람객 연령이 55세 이상인 점을 감안 관람석의 안전성과 안락성 편의성이 증대되어야 함.
- 기존의 다리를 피고 앉은 평상을 입식으로 앉을 수 있는 평상으로 대체 혹은 입식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대체해야 함.
- 단오제단의 ‘음향시설’ 개선이 시급함. 단오문화관에서 공연되었던 ‘에시자 오시자’ 공연에 비해 단오 굿 음악의 노이즈가 심해 난청 및 귀가 아픔.

□ 하회동참굿 (단오제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에서는 산신령과 남녀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대관령국사성황 모시기를 포함한 단오 굿이 열리는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연 재해를 입지 않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단오제를 하는 의미와 적합함. 굿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길 바람.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임. 주요 관람객들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부정 굿을 할 때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임. 굿을 하는 동안 관람객들이 제단에 올라가서 소원을 빔.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굿을 하는 도중 관람객들이 무녀 옷에 돈을 꽂고 인사하고 감. 박수를 유도하고, 무녀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사랑가를 부르는 자유로운 모습이 신기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신들 중 남녀로 되어 있는 성황님 부부가 화해하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즉 국사성황님과 여국사성황님이 평소에는 대관령과 강릉시내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굿을 하는 동안은 두 분이 화해하여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굿을 받으라는 것으로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굿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로 되어 있는 성황신 부부가 굿을 하는 동안 화해하시라는 내용이 흥미를 유발하며, 단오기간에 하는 굿에서 서로가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단오굿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무녀가 굿을 하는 도중 얘기를 계속해 진지함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 조금 아쉬움. 노래를 부르는데 특유의 창법이 있어서 내용이 잘 안 들렸음.

총평 : 국사성황신을 위한 굿이었고 본격적인 단오굿의 시작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녀 옷에 돈을 꽂는 것이 신기했음,
 예정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어 시간을 맞춰 오면 굿을 못 볼 수 있음,
 예정시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임.

▶ 주제성 모니터링

- 하회굿, 또는 하후굿이라고도 하는 이 굿은 여러 신들 중 남녀로 되어 있는 성황님 부부가 화해하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국사성황님과 이 평소에는 대관령과 강릉시내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굿을 하는 동안은 두 분이 화해하여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굿을 받으시라는 뜻이 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단오 굿’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전통 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젊은 층들의 발걸음이 잦아들기 시작함.

▶ 신기성 모니터링

- 남·녀 신을 모셔 놓고 그들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굿을 올리는 것은 신을 하나의 인격신으로 대하는 우리의 정서가 독특함.






▶ 고유성 모니터링

- 신의 합방 시키고, 화해를 위한 굿을 올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역 문화를 만들었고 계승시켜온 ‘강릉단오제’의 힘이 느껴짐.

▶ 의외성 모니터링

- 인격신인 단오 신 ‘국사성환신’과 ‘여국사성환신’에 대한 정보가 없어 누구를 위해 제를 올리는지, 왜 화해를 하는 굿을 지내는지, ‘단오 굿’을 처음 관람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음.
- ‘단오 굿’에서 행해지는 단오 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화 및 설화들을 관람객들이 알기 쉽도록 단오제단 앞에 가설무대를 설치해야함.

□ 강릉아리랑보존회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강릉’ 이라는 문구에 적합함. • 아리랑을 듣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화합되는 느낌이었음. • 우리나라의 전통의 소리를 알리고 강릉만의 차별화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단오제와 적합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만 하는 형태였으나 메기는 소리는 공연단이하고 받는 소리는 관객들에게 시키는 참여형식도 있었음. •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금 부르는 곡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부르는 곡인지 설명해줘서 더 집중됨. • 옛날의 소리여서 그런지 주 관람층은 50~70대임.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옷, 물건들을 가지고와 노래를 불러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 • 아리랑 말고 다른 종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음 • 기타가 반주를 해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조화로워서 신기했음 •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높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이 불러 신기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정선 아리랑이었는데 아라리, 엮음 아라리, 자진아라리를 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이 유일하고, 자진아라리를 강릉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진아라리를 강릉에서 듣는다는 것이 강릉만의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무대 앞에서 춤추시는 어르신들이 2~3명 정도 있었음. • 지루할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시 한 번 듣고 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음. 	

총평 :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아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강릉단오제에서 3가지의 아리랑과 그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특별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강릉 아리랑 보존회가 주관한 무대로 강릉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데 적합한 전통공연이었음.
- 강릉 지역의 향토 아리랑과 차별화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단오제와 적합했음

▶ 신기성 모니터링

- 단순한 소리뿐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전통 소품들을 이용해 전통 무대를 꾸민 것이 인상적임.
- 전통을 재현한 무대 구성이 상상력을 자극해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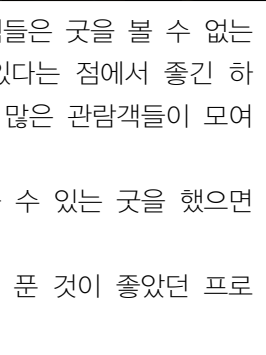
▶ 고유성 모니터링

- 정선, 진도, 밀양 아라리 말고도 강릉 아라리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귀한 무대였음.
- ‘아라리, 엮음 아라리, 자진아라리’ 를 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이 유일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진아라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강

▶ 의외성 모니터링

- ‘아리랑’ 의 흥에 겨워 무대 앞에서 춤추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우리 가락의 흥겨움을 느낌.
- 우리 가락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 공연을 상설 기획해야함.

□ 기획공연 굿위드어스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는 신주를 담그고 굿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양한 굿을 단오기간 내내 볼 수 있는데 이 공연 역시 굿을 한다는 점에서 단오제와 적합함. • 굿을 통해 부정을 가시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신께 기도하는 점이 단오제의 성격과 맞음.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씩 무녀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통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함. • 주요 관람객들은 50~70대 사람들이었는데 저녁 9시에 공연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섭고 진지한 감이 있는데 이 공연은 '굿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식의 공연이었음. • 단오굿에서 볼 수 없었던 남자무당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단오제단에서 하는 단오굿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공연이었다고 생각함.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을 퍼포먼스 식으로 풀어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 봄. • 굿이라는 고유성은 있으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굿인 것 같아 고유성은 없었음.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굿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기 힘들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루했음. • 판소리를 듣는 듯했음. • 공연하는 사람들의 목이 다 쉬어서 마음이 아팠음 • 해학적으로 하는 굿이 있다는 것이 의외였음. 	

총평 : 굿이 보통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밤에 오는 관람객들은 굿을 볼 수 없는데 밤에 이뤄지는 공연이라 밤에 오는 관람객들이 굿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공연을 했음. 공연시간이 좀 더 빨랐다면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음.

무슨 굿인지 어떤 내용인지 시작 전에 알려주며,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굿을 했으면 좋겠음.

굿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해학적이고 퍼포먼스 식으로 푼 것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음.

- ▶ 주제성 모니터링
 - 무녀의 아름다운 춤을 무대에 올린 공연으로 ‘단오 굿’ 중 신을 위한 몸 짓에 집중해 극화 한 공연임.
- ▶ 참여성 모니터링
 - 공연시간이 늦은 9:00로 너무 늦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관람객들이 관람하지 못함.
- ▶ 신기성 모니터링
 - 굿을 퍼포먼스의 형태로 올려 이색적인 공연이었음.
- ▶ 고유성 모니터링
 - ‘단오 굿’ 중 굿의 몸짓에 집중하여 꾸민 무대로 신의 위한 인간의 아름다운 몸짓을 그려낸 무대였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늦은 시간에 열린 무대로 상당히 이색적인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관람객이 많지 않았음.
 - ‘단오 굿’ 에 대한 배경 설명과, 어떠한 내용의 무대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불편해 함.
 - 단오제단에서 하루 종일 ‘굿’ 공연을 하는 무녀들과 단오 굿 음악 공연 팀들의 공연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공연을 보기 안쓰러웠음.

□ 구정초교 오독떼기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강릉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김매기소리의 하나임. 강릉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학산오독떼기를 단오제에서 들을 수 있고 강릉에 이런 농요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점이 좋음. 계속 전승이 되어 옛것을 아직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천년의 힐링로드라는 주제에 적합함. 아이들도 공연하는 점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단오제의 느낌에 적합함.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임. 주요 관람객들은 아이들의 어머니, 어르신들이 많았고 점심시간이라서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음 .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매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재연하여 생동감이 있었음.(벼를 심을 때 줄을 맞춰서 심는 것 등) 그래서 아 저게 뭐할 때 부르는 노래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 어른들이 부를 때에는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귀여웠음. 아이들이 한다고 해서 완성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해서 완성도 있었음.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때문에 가사가 잘 들렸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독떼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강릉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강릉 단오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고유성이 있었음. 학산 오독떼기가 전수되는 학교는 구정초등학교가 유일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옆에 오독떼기를 전승하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같이 옆에서 계속 노래 부르시고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보니 훈훈하고 보기 좋았음. 25분 만에 끝남.

총평 : 강릉에만 전해 내려오는 학산오독떼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전승되어 아이들도 부른다는 것이 신기했음. 김매는 상황에 맞게 연기하고 그에 맞는 소품을 준비해서 보여준 것, 그리고 맑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진지함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음. 너무 빨리 끝나서 늦게라도 보러오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는 게 아쉬움.

- ▶ 주제성 모니터링
 - “학산 오독떼기” 를 전수받고 있는 구정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공연마당을 꾸밈.
- ▶ 참여성 모니터링
 - 아이들이 직접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
- ▶ 신기성 모니터링
 -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무거웠던 전통문화가 가볍고 친근하게 다가옴.
 - 전통문화 및 역사 교육 콘텐츠로 기획하는 방안 및 모색이 필요함.
- ▶ 고유성 모니터링
 - 강릉시의 여러 논매는 소리 중에서도 지역적 고유성이 가장 뚜렷한 노래인 ‘학산 오독 떼기’ 를 구정초등학교가 잘 전수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새로운 느낌의 오독떼기였으며 아이들이 하는 공연이어서 많은 어른들의 관심을 받음.
 - 84세의 전승자들과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꾸민 무대에서 세대를 넘는 화합의 장을 보게 됨.
 - 어르신들의 전통문화를 아이들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무대 공연을 많이 기획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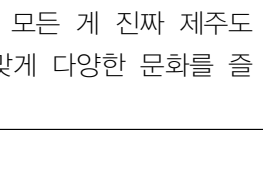
□ 강남동농악대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은 농사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격려하거나 추수를 기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고 단오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연 재해를 입지 않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기원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적합함. • 농악대는 모두가 화합을 하며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오제의 주제와 적합함. • 여러 종류의 농악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굿을 할 때 연주하는 농악도 있었음. 단오제는 신과 소통하는 향토 제례 의식인데 이에 적합했음. • 강릉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계속 문화가 전승되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좋았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임. • 주요 관람객들은 어르신들이 많았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음. • 보는 사람이 많고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보는 사람들이 많았음.
신기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놀이, kbs사장기 농악경연대회에서 이 공연을 또 볼 수 있었음. • 강릉 지역에는 농악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무대 자체에서 다른 농악대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사물놀이와는 다르게 무동도 등장하고 소고도 연주하고 전통 관악기 연주, 행진, 춤, 연극, 기예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한다는 것이 신기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농악보존회 산하에 강남동농악대가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순서도 다 외우고 어른들에 뒤처지지 않고 잘해서 놀랐음. • 지루할 틈을 안주는 프로그램 구성이었음. • 농악대 무동에 외국인 아이가 있었음.

총평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농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서 지루하지 않고 흥이 났음.

맨 마지막에라도 관객과 다 같이 춤추고 소통한다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평가됨.

□ 제주여총 구좌읍민속보존회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역을 채취하면서 마을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고 단오 역시 단오제를 통해 화합이 됨. • ‘단오의 몸짓’ 이라는 주제에 맞게 단오제를 통해 국내외 문화축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메역 자문은 제주도에 볼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도 같이 나와서 춤추게 하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음. •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관람함. • 극의 중간에 음식을 나눠먹는 음복행사를 대체하는 퍼포먼스를 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냄. • 보통 아리마당에 있는 무대는 사용하지 않는데 아리마당의 전체를 다 써서 공연한 것이 좋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해녀의 삶을 짧게 다큐멘터리로 본 듯한 느낌이 듦. • 소품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놀랐음. • 무당이 남자인 것이 신기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어촌마을 마다 상강에서부터 이른 봄이 올 때까지 미역이 자라는 시기에 채취를 금하는 금채기를 둠. 영등굿을 치른 음력 2월 하순이 돼 비로소 미역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면 마을 주민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데 이를 ‘메역자문’ 이라하는데 구좌읍 민속보존회는 공연에서 미역 금채기가 풀리는 날, 복새통이 된 어촌마을 풍경을 표현함. 특히 풍물과 ‘네 젓는 소리’ 와 ‘서우제 소리’ 등 노동요와 굿에서 불리는 무가(巫歌)를 장면마다 삽입하여 흥을 돋움. • 소품, 언어, 해녀, 의상 등 모든 것이 제주도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음. • 실제 제주도 구좌읍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서 진짜 제주도에 온 듯한. • 배를 끄는 사람, 무당 외엔 남자가 없었음. 다 여자 해녀였음. 	

총평 : 단오제에서 해녀가 일하는 모습, 배를 타고 나가서 미역을 채취하고 말리는 모습 등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공연을 봐서 너무 좋았고, 소품, 행동, 언어, 모든 게 진짜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음. 단오의 몸짓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좋았음.

- ▶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메역조문”
 - 작품설명 : 상강에서부터 이른 봄까지 미역이 자라는 시기는 마을규약으로 채취를 금지함. 영등굿을 치른 음력 2월 하순이 되어야 비로소 미역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며 마을주민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 하는데 이 행사가 메역조문임.
 - 마당설명
 - 첫째마당 : 앞풀이 / 걸궁패가 우렁차게 몰아친 뒤 대상군이 앞으로 나서서 시작을 알림.
 - 둘째마당 : 영등굿/ 요왕을 맞아들이는 의례인 요왕맛이를 하며, 요왕님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제를 지냄.
 - 셋째마당 : 메역조문 / 대상군이 메역조문의 시작을 알리면 <네 젓는 소리>에 맞춰 테우잡이들은 테우를 젓고, 잠수들은 체험치듯 돌아다니며 미역을 채취함.
 - 넷째마당 : 메역장만 /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어 마당판 여기저기 삼삼오오 자연스럽게 무리지어 앉아 미역을 지직에 넘.
 - 다섯째마당: 세화장터 / 세화장으로 이동해 미역을 팔기 위한 흥정을 함.
 - 여섯째마당: <서우제소리>가 이어지고, 훗소리를 따라 부르며 신명나게 춤판을 벌임.
- ▶ 주제성 모니터링
 - 농촌지역에서 모내기를 마친 후 가을 풍작을 기원하며 치르는 제가 단오임.
 - 제주 영등굿은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 형태로 신에게 복을 비는 우리 민족의 ‘발복신앙’ 과 그 맥을 같이 함.
- ▶ 참여성 모니터링
 - 해녀들이 나눠주는 음복음식과 이색적인 풍어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심.
- ▶ 신기성 모니터링
 - 농촌, 어촌처럼 서로 상이한 배경문화를 지닌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민속 문화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 고유성 모니터링
 - 둘째마당의 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이자,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임.
- ▶ 의외성 모니터링
 - 제주 앞 바다를 옮겨 놓은듯한 섬세한 무대 소품과 준비, <메역조문>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준비한 안내 책자가 있어 공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로스안데스 한국안데스문화원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세계인의 어울림’ 이라는 주제에 적합함. • 단오제를 통해 국내외 문화축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안데스음악은 로스안데스에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적합함.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관람객 40명, 군인40~50명 정도가 관람함. • 관람객들은 박수와 호응, 앙코르를 하여 로스안데스 음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줌. • 음악 시작 전, 한국인 연주가가 연주하게 될 음악의 제목과 주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음악에서 쓰는 악기와는 다른 악기로 악기소리의 아름다움 보단 자연의 소리를 내주는 연주로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가사와 내레이션은 없고 기합소리를 내어 음악에 더욱 몰입되게 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중부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로스안데스는 ‘안데스로 가는 길’ 이라는 뜻을 의미함. • 로스안데스 팀의 구성원은 한명의 한국인과 세명의 에콰도르인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데스 음악이란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음악자체에 집중과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빠져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음. 각종 악기와 입으로 물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 새 소리, 풀잎이 부딪치는 소리 등을 내었고, 그 맑고 웅장한 소리들이 잠시 현실을 잊고 자연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해줌.






총평 : ‘세계인의 어울림’ 이라는 단오제의 의미와 부합했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안데스 음악을 들으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초원을 아무생각 없이 달리고 있는 기분이 들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여행하며 힐링하는 느낌임.

관람하는 내내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고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었고 그 덕분인지 음악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음.

- ▶ 주제성 모니터링
 - 단오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세계인의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적합함.
- ▶ 참여성 모니터링
 -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박수와 호응, 앙코르를 하여 로스안데스 음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줌.
-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단오제에서 자주 듣는 농악소리와 차별된 자연의 소리를 내주는 연주로 소리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 의외성 모니터링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생소한 안데스 음악에 대해 걱정을 함.
 - 하지만 각종 악기와 입으로 물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 새 소리, 풀잎이 부딪치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어낸 소리들이 자연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해줌.
 -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중국사천성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세계인의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적합함. • 중국의 소수민족 춤과 시조를 읊는 것에서 중국의 전통을 알 수 있었고 단오 역시 우리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형식의 공연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 관람하는 방식의 공연. • 주로 자녀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많았고 놀랍고 재미있는 공연에 적절한 호응과 반응을 보여줌. • 변경을 할 때 아이들과 공연 도중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자가 무대 앞으로 나와 같이 사진촬영을 해주었음. • 질서 없이 사진촬영이 이어졌고, 그것을 통제해주는 현장요원이 없어서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의 사진촬영이 끝나서야 다시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음. • 공연자체가 신나고 재미있다 보니 관람객들이 박수를 유도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칬.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만의 복장과 변장, 노래, 춤, 소품들을 사용하여 중국의 고유함을 느낄 수 있었음. • 한국에는 한국만의 흥과 예술이 있듯이 중국만의 색감과 기예의 흥미진진함, 놀라움이 있었음. • 이백의 시를 읊는 시낭송은 한국의 시낭송과 달리 힘이 있고 진취적인 느낌을 주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가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옴. • 공연을 하나하나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짐. • 중국인 사회자와 한국인 사회자가 있었는데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연을 하고 배경은 이렇다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좋았지만 사회를 보는 시간이 좀 길었음. 	

총평 : 세계인이 즐기는 단오제라는 것에 적합했음. 중국의 노래, 춤, 시낭송, 서커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연이었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다고 느낄 정도로 재미있는 공연이었음. 변경할 때 다소 질서 없는 부분이 보여, 현장스태프의 필요성을 느낌.

▶ 주제성 모니터링

- 사천성 장유시 이백시편연출단은 (사)울곡연구원과 중국 사천성인민대외우호협회간의 상호 문화 교류 협정에 의해 참가함.
- 사천성 장유시는 두보와 함께 중국 최고의 고전시인으로 꼽히는 이백의 생가가 있는 곳임. 이는 울곡 이이의 생가 및 허준·허난설헌의 생가가 있는 강릉과 비슷함.

▶ 참여성 모니터링

- 이백의 대표적인 시 <장진주>를 시 낭독과 몸짓으로 표현한 공연무대는 이백의 시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 관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음.
- 하지만 뒤이은 “태백권 시선검” 과 인써커스와 태극을 이용해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인 “인상태극”, 사천의 연극 중 가장 유명한 “변검토화” 공연은 관람객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음.

▶ 신기성 모니터링

- 중국의 소수민족 장족의 민속 춤 “길상” 에서부터 유명한 “변검” 공연까지 중국의 문화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음.
- 중국의 도시 장유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 무대였음.

▶ 고유성 모니터링



- 소수민족의 춤과 유명 시인의 시, 그리고 서커스와 태극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무술 공연까지 민속문화를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변형시킨 다채로운 무대였음.

▶ 의외성 모니터링

- 변검 공연자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어린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가로질러 다녀 공연진행에 차질이 생김.
- 하지만 이를 통제해주는 안전 요원 및 현장요원이 없어서 공연을 다시 시작하고 집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 공연들이 진행되어서 깊고 오랜 시간 공연을 즐기지 못한 점이 아쉬움.

(5) 2016. 06.09 – 단오제 5일차

□ 강릉예총 국악·무용협회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하나에 전통 노래, 춤, 악기연주 그리고 댄스스포츠, 창작무용까지 천년의 축제에 걸맞게 전통부터 현대까지 한 무대에 감상 할 수 있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로, 주로 관람객은 어르신들이 많았음. 시키지 않아도 관람객들이 노래에 맞춰서 박수 쳐 주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떠남.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공연이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춤, 노래, 악기 연주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고유성을 찾기 힘들.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다발을 주러 올라오시는 분도 계심. 무대 앞 조명 옆에서 관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음. 	

총평 : 북춤, 살풀이춤, 사철가, 댄스스포츠, 창작무용, 전통악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지루했음.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의 공연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 필요함.

▶ 주제성 모니터링

- 전통 노래, 춤, 악기연주, 댄스스포츠, 창작무용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무르익은 단오제 분위기로 관람객들 스스로 노래에 맞춰서 박수와 춤을 추심.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었음. 강릉의 향토색을 더 살려 다채롭게 공연을 기획하면 좋겠음.

▶ 의외성 모니터링

- 공연진행 방해, 위험한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이 보이지 않음.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화합이라는 주제와 적합함. 관객들의 호응과 몰입하는 모습 또한, 관객과 예술단의 화합이라고 느껴짐.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임. 수리마당의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보는 사람들도 많았음. 시키지 않아도 관람객들이 장단에 맞춰 박수를 많이 쳐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맹인공연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수준 높은 공연. 시각적으로 눈빛을 교환하며 박자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맹인이기에 청각과 감을 통해 서로가 조화롭게 공연하는 것이 신기하였음. 한 개의 악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악기를 다룸.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타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무대였지만 공연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자체가 고유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도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장애인과 다를 것 없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줌. 맹인과 일반 예술단 이라는 것을 구분 할 수 없이 조화롭게 공연을 함. 다른 인종,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있는 편인 우리나라지만, 많은 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다른 공연과 차별 없이 즐기고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음.

총평 : 단오제의 전통 문화 공연을 잘 소화해 내는 모습을 보고 맹인 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맹인들의 능숙한 사물놀이 연주를 보며 전통음악을 잘 느낄 수 있었음. 단오제라는 풍요를 기원하는 긍정의 의미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각을 깨뜨려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창단한 ‘실로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조선 세종시대 당시 궁중의 무용과 연주를 담당하는 부처인 ‘장악원’에 소속된 정식 ‘악공’인 “관현맹인”을 부활시킨 것임.
-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단오제” 화합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킴.

▶ 참여성 모니터링

- 객석이 모두 메워져 서서 관람하는 관람객도 있었으며, 연주자들의 연주에 맞춰 열심히 화답해 주는 관람객들의 공연 예절이 매우 좋았음.

▶ 신기성 모니터링

- 실력 있는 시각장애인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후 예술단을 구성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수준 높은 전통공연을 진행함.
- 장애인과 예술, 직업, 공연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든 ‘관현맹인’은 장애인의 능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무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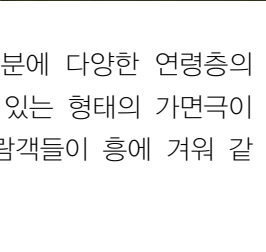
▶ 고유성 모니터링

- 조선 세종대왕시대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에 따라 만들어진 궁중 정식 악사를 부활시킨 “관현맹인”은 다름과 특별함,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해준 전통무대임.

▶ 의외성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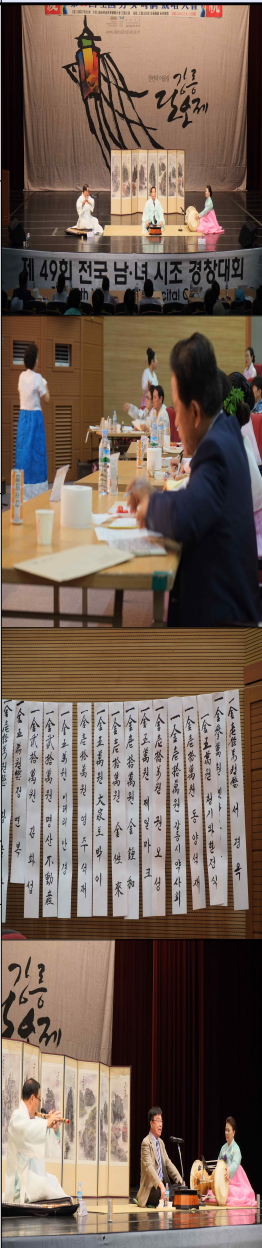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 실력도 놀라움의 대상이었지만, 관람객들의 올바른 관람 예절과 호응이 훌륭했음.

□ 관노가면극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제 13호인 관노가면극은 무언극으로 말없이 탈을 쓴 채 몸짓으로만 행해지는 가면극임. 익살스러운 몸짓과 양반광대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을 표현하는 극인데 이를 잘 표현해 줌. 정절, 규범성 등을 표현하며 한국의 정서를 잘 나타내 주었고,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공동부락제인 단오제의 특성처럼 관노와 관민의 공동 놀이라는 점이 잘 부합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면극의 시작 전, 극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관객들의 이해를 도움.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이지만, 극을 진행하는 내내 극 공연자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 극의 마지막에 학생, 어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춤을 춤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묵극의 형태로 말없이 진행되는 극 속에서 재미와 흥을 이끌어 냄. 일반적인 가면극과 달리 희화화와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해학성을 보이는 재미 위주의 가면극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전통적인 강릉 고유의 가면극이며, 무언극이라는 관노가면극의 특성이 있음. 정절, 규범성, 도덕성을 느낄 수 있었던 한국적 정서의 극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반에 관람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으나, 극의 마지막에 젊은 학생들이 흥에 취해 같이 어울려 춤을 추는 것이 의외였음. 대사가 없이 진행되기에 어떻게 극 내용상의 재미를 표현할까 했지만, 특유의 몸동작과 악기로 극의 긴장감과 이완을 잘 표현해 주어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었음. 전통적인 가면극이지만 그에 맞게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음. 	

총평 : 다른 공연들보다 익살과 재미를 추구하는 가면극이라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었음.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형태의 가면극이여서 관객들의 참여성과 몰입도를 더 높여줄 수 있었음. 많은 관람객들이 흥에 겨워 같이 춤을 출 수 있어 공연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 짐.

□ 제49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시조를 경창하는 대회로 전통을 알고 계승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큰 행사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형태로 관람객은 시조 경창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인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음. 대회가 길고 시조를 경창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보는 사람이 많이 없었음. 모든 사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체험형이면서 일반 사람들도 관람하는 관람형이 함께 나타남.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이 직접 장구, 피리를 연주해 주는데 참가자의 목소리에 맞춰서 연주하고 목소리와 악기가 조화로웠음. 피리를 부는 심사위원 분이 참가자에게 “음이 맞지 않다, 목소리 더 크게 내라,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랑 거리를 두는 것이 점수를 잘 받는다.” 등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회의 느낌보다는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느낌이었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조 경창대회가 강릉단오제에서 열림.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에 대회사, 관계자소개 등 대회를 시작하기 전 소개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음. 엄숙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편안하고 마치 폭포수 옆 바위에 앉아 선비가 시조를 읊는 것을 듣는 느낌이었음. 참가자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음에도 호흡도 딸리지 않고 쪽 시조를 경창하는 모습이 의외였음. 	

총평 : 강릉단오제의 주제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았으나 시조경창이라는 흔하지 않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좋았음.

시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소 지루할 수 있음. 향후 단오에 관한 시조 창작하여 경창하기 같은 대회로 발전하여 단오제의 한 프로그램으로써 기인할 수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전통 시조를 경창 하는 대회로 우리 시조의 운율을 알고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있다는 것이 신선함.

▶ 참여성 모니터링

- 관람객의 대부분은 시조 경창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지인 혹은 가족들, 협회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음.
- 시조 경창 대회를 즐기기 위해 참가한 젊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심사위원이 직접 장구, 피리를 연주해 주는데 참가자의 목소리에 맞춰서 연주해주고, 참가자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는 전통 악기 소리가 매우 조화로웠음.
- 조선시대 선비들의 시조 경창이 저러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매우 고급문화라는 생각이 듦.

▶ 의외성 모니터링

- 시조경창대회의 상금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금액을 한쪽 벽면에 쪽달아 놓은 모습이 인상적임.
- 강릉 및 지역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 낸 성금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 “강릉단오제”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됨.

(6) 2016. 06.10 – 단오제 6일차

□ 윷놀이대회 (단오섬)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참가자들이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한 마음, 한 공간에서, 한 뜻으로 마을 대항전을 치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전원의 참여도가 매우 높음. 마을 대항전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고취 시키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흥겨움.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 섬에 각 동별로 모인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기고, 윷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매우 신기함. 모이신 주민들이 모두 어르신들이라 매우 놀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으로 모두 함께 한다는 <강릉 단오>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연령이 모두 평균 연령 60이상으로 추정됨. 전 연령대의 구성원이 참가하여 전통 놀이를 즐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윗 세대가 아랫 세대에게 함께 사는 가치와, 즐거움을 전통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승해 줄 수 있는 좋은 놀이 체험의 장임. 	

▶ 주제성 모니터링

- 마을 대항전을 통해 함양 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젊은 세대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

▶ 참여성 모니터링

- 마을 대항 윷놀이에 참가한 평균 연령이 60이상으로 추정됨.
- 마을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매우 아쉬움.

▶ 신기성 모니터링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우리 세시 명절 전통놀이 윷놀이를 마을 별 대항전을 치름.

▶ 의외성 모니터링

- 참가자의 고른 연령대 분포를 위해 강릉 단오제 마을 대항 윷놀이 대항전에 대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함.
- 단오섬 공간을 개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화합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한·일·중 3개국의 청소년을 모아 문화를 교류하며 전망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단오관련 퀴즈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의미는 좋았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와 일본, 중국의 학생과 교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단오관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 함. 진행을 하는데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함으로 다른 연령층의 관람객들은 참여에 어려움을 보임.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신기성이 없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축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참여와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 프로그램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문화와 단오를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의 소통과 하합의 장이 마련됨. 	

총평 : 강릉단오제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글로벌 마인드’ 에 중점이 맞춰져서 일정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좀 더 많은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 주제성 모니터링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중·일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를 위해 청소년들이 만든 무대임.
- “글로벌 에듀케이션 콘텐츠 단오” 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콘텐츠가 부족함.

▶ 참여성 모니터링

- 넓은 수리마당이 학생들만의 공연 공간 및 관람공간으로 전략해 버림

- 장년층들의 관람객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관람하지 못하심.
- ▶ 신기성 모니터링
 - 세계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강릉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움.
 -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본질과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획의 장이 됨.
- ▶ 고유성 모니터링
 -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꾸민 대취타 행렬 및 일본청소년들이 꾸민 일본 신화 무대는 다른 축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프로그램임.
- ▶ 의외성 모니터링
 - 청소년들의 관심과 즐길 거리 위주로 진행된 행사임.
 -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대를 기획하는 것이 “단오제”에 바람직
 - 무대의 테마를 청소년이 바라 본 “강릉단오제”로 새로운 시각의 “단오” 무대가 필요함.

□ 프랑스가나 페스티벌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단오의 주제인 ‘단오와 몸짓’ 을 토대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무대를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충실성만은 보이지만 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임. 프랑스 가나 지역의 전통음악과 화려한 민속춤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지만 단오제의 주 주제와는 맞지 않음.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지만 자리를 잡고 끝까지 관람하는 경우는 적었음. 노년층의 참여가 많고, 젊은 층의 참여도는 거의 없음. 공연의 형태로 참여도를 찾기는 힘들.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민과 귀족, 전통무용 의식으로 나눠 다채롭게 무대를 보여줌. 프랑스와 가나지역의 전통음악과 민속춤이 모두 처음이었기에 흥미가 있었지만 더 이상의 신선함이라던가, 재미가 생기지 않았음. 직접 프랑스인들이 강릉단오제에서 프랑스의 전통 민속춤을 추는 것 자체는 신선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에서만만의 고유성을 말하기 어렵지만 쉽게 볼 수 없는 프랑스 가나 지역의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직접 현지인들이 강릉단오제에서 공연하였기에 고유성이 더 깊게 느껴짐.
의외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초청 및 교류 공연으로 몸짓이나 춤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기대만큼 큰 이목을 끌고 집중되지는 않았음. 무대 위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음향이 아닌 직접 악기로 연주한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어 좀 더 프랑스 문화에 다가가기 쉬웠음.

총평 : ‘단오의 몸짓’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었으나,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나 설명으로 흐름을 더하고 단오와 비슷한 의미나 가치를 소통한다면 더욱 볼만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임.

공연 자체가 전통음악에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민속춤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감하며 즐길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


□ 중국 사천성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의 몸짓’ 이라는 주제와의 연관성은 보이나 단오의 진면목을 넓히기보다 사천성과 이백을 알리고자하는 무대로 보임 • 단오와, 사천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며, 너무 많은 공연으로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했음.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하고 힘 있는 무대로 시선을 끌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함. •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공연을 보는 경우가 많았음. •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같이 즐기기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뛰어난 공연실력으로 화려함과 전문성이 돋보여, 관람객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좋은 반응을 보였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천만한 묘기에 보는 관객들도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스릴이 넘쳤으며 엄청난 몰입도와 호응을 보임. • 공연에 수화로 해석해주는 것이 매우 좋았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볼 수 없는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음악과 중국 3대 가무 중 하나인 천극을 통한 변검공연을 관람 할 수 있었음. • 중국의 전통 무용과 민요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중국인이 직접 공연해줌으로 고유성이 크게 평가됨 • 처음보는 공연으로 중국만의 분위기가 많이 표현돼 직접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의 표현이 잘 된 공연이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공연이 다양했으며, 공연단의 지친 모습 없이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다움이 눈에 띄게 좋았음. • 중국어를 몰라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전달 됨.

총평 : 중국사천성 공연은 전체적으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중국전통이 느껴지는 공연이 많았으며, 신기하고, 눈에 띄는 공연이 많아, 다들 집중 깊게 관람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음.

강릉단오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진짜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며, 다양한 해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

□ 예시자 오시자 단오의 몸짓 날개를 달다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강릉단오제의 에너지를 발산한 기획 공연으로 매우 적합함.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강릉 단오굿의 다양한 연의적 요소들을 새롭게 구성한 작품으로 단오제의 주제와 매우 적합함. 	 <p>예시자오시자 수리마당 공연</p>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연령층이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였음.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는 때는 관객이 하나가 되어 열광하는 모습을 보임. 중간 중간 MC가 관람객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호응을 유도해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좋았음. 강릉 단오굿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임.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굿에서 진행되는 가·무·악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공연 작품이라 우리 전통 국악의 놀라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음. 단오굿과 달리 좀 더 현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띄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음. 우리의 전통적인 타악의 소리와 현대의 피아노 음율이 만나 듣기에 좋고 소리를 내주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굿을 재구성하여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공연으로 고유성을 가짐. 단오굿 안속의 풍악으로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이 섞여 평소 보지 못하던 공연이었음. 전통악기를 다루는 사람부터 무용하시는분의 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표현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단오굿과는 다른 느낌을 주며 전통 국악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에너지에 관객들도 감탄함. 단오굿처럼 팽과리 소리나 흥겹게 나가거나 큰 소리가 나는 공연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차분한 공연이었음. 	

총평 : 강릉단오제의 빠질 수 없는 단오굿의 무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굿의 예술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줌.

타악의 소리는 잘못하면 시끄럽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예시자 오시자는 그런 부분 없이 매끄럽게 귀에 잘 들림. 중간 중간 무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매우 좋은 공연이었음.

현대적인 분위가 많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분위기도 많이 나는 공연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는 단오제를 가장 잘 표현한 프로그램이라 평가됨.

□ 관노가면극 발표회 및 퍼레이드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의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제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를 가지며 매우 적합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이 돌아오를수록 관객들도 흥이 올라 무척 호응이 좋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지만 각 과장이 연관되어 사랑, 오해, 화해의 다섯 마당을 춤과 동작을 위주로 내용이 이해가 감.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 볼거리이자 주요무형문화재로 전승되어 가치를 가짐.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에 비중이 큰 프로그램인 만큼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같은 관노가면극이여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준비해 와서 공연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총평 : 강릉 단오제의 스테디셀러로 주요 볼거리로 자리 잡아 모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임.

하지만 긴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흐름과 상황을 알맞게 맺고 끊어 보는 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제성 모니터링

- 관노가면극을 전수받고 있는 단체들의 경연마당으로 다양한 단체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줌.

▶ 참여성 모니터링

- 관객과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련한 관노가면극단의 모습이 보임.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관노가면극을 전승하는 단체들이 초등학교부터 노인층까지 많은 연령대가 있는 것을 보고 전통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전승되고 있음 확인함.

▶ 의외성 모니터링

- 초등학생들의 관노가면극 공연에 열성적으로 답해주는 관객들이 있어 훈훈했음.
- 또래 관람객 및 관람자들에게 관노가면극 참여 유발의 효과를 위해, 또래 아이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단오 휴일 혹은 토요일에 경연대회를 해야 함.

□ 달맞이 농악대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를 기원하는 강릉단오제와 농사의 과정을 동작으로 흥내 내어 재현한 농사풀이가 주축이 되어 농악이 주제와 적합하다고 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노년층이 많이 보였으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악대로 구성원이 모두 여성임. • 직접 공연을 하진 않지만 농악대 깃발을 들고 박자를 맞추며 흥을 돋우고, 공연의 제목을 하나씩 넘기면서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농악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굿이며 과거의 각 마을 농악대의 내용이 한 데 어우러져 지역적 정체성과 전통이 살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농악과 비슷한 공연을 보였으며 호응도 비슷해 보임.

총평 : 강릉 농악의 전통과 가치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나, 다른 농악과의 큰 차이나 눈에 띄는 점을 찾기 어려워 달맞이 농악대만의 특징과 색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농사의 과정을 동작으로 풀어 설명하며, 풍요를 기원하는 농악으로 단오 주제와 부합됨.

▶ 참여성 모니터링

- 노년층의 참가가 적극적임. 젊은 연령층과의 공감 문화를 형성해야 함.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농악 구성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됨.

▶ 의외성 모니터링

- “단오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기존의 농악과 차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 아세안 스쿨투어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함께 즐기는 축제에서 아세안 스쿨투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 자리를 만들고 세계에 단오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의 모든 중학교 교사와 학생 450여명이 참여해 아세안 회원국의 문화와 역사, 놀이, 체험을 배웠고 함께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 스쿨투어인 만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젊은 층 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음. 바로바로 통역을 해줌으로써 언어의 어려움 없이 참여 가능함. 학생들의 질문에 즉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임.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크쇼’의 순서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사관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큰 몰입도와 호응을 보였음. 국가연합의 소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 세계 각국의 대사관분들을 직접보고 질문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졌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참여 나라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아세안 스쿨투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함. 아세안 스쿨투어는 사업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협약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이해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중간에 아세아 국의 전통 공연과 비보이의 축하 무대로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학생들이 가장 열광하는 모습을 보임. 어렵게 느껴졌던 각국의 대사관분들께서 서툰 한국말까지 해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보임. 딱딱한 분위기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편하게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였음. 	

총평 : 강릉 단오제에서 청소년층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하지만 좀 더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의 문화적 다양향성 공존의 가치에 이해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단오에 대한 가치이해도 함께 해야 함.

- ▶ 주제성 모니터링
 - 아세안 스쿨투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 자리를 만들고 세계에 단오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됨.
- ▶ 참여성 모니터링
 - 강릉시의 모든 중학교 교사와 학생 450여명이 참여해 아세안 회원국의 문화와 역사, 놀이, 체험을 배웠고 함께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boy 댄스와 영상, 타 문화의 전통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하나 되는 자리임.
- ▶ 신기성 모니터링
 - ‘토크쇼’의 순서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사관이 즉답하는 방식을 채택 큰 몰입도와 호응을 보였음.
 - 국가 간의 소통을 단오문화관에서 함께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높게 평가됨.
- ▶ 고유성 모니터링
 - 아세안 스쿨투어는 사업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협약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이해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음.
 - 아세안 협약의 중요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 서로의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됨.
- ▶ 의외성 모니터링
 - 아세아 국의 전통 공연과 비보이의 축하 무대로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임.
 - 각국의 대사관들이 서툰 한국말로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임.
 - ‘단오’와 같은 다른 나라의 축제를 서로 알고 비교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음.

□ 극단 마루한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을 보여줬으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고, 전통을 기반으로 소통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나 강릉단오제와 큰 연관은 없어 보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많았으며 특히 아이들의 호응과 몰입도가 좋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과 연극놀이가 함께하여 시선을 끄는 공연을 보여줌. 권선징악과 소박한 교훈을 전해줬으면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어른들에게는 행복을 그리게 되는 공연이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연극을 꾸몄다는 점에서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공연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린이부터 어른세대까지 아우르는 흥겨운 극을 보여줌. 아이들에게는 경험해보지 않은 놀이문화,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됨.

총평 : 권선징악의 교훈을 가지고 전통기반으로 한 현대문화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극단으로 알찬 공연을 보여줌. 강릉단오제와 연관되어 극을 꾸미면 좀 더 아이들에게 이해가 쉽고 관심과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연극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을 보여줌.

▶ 참여성 모니터링

- 아이들의 호응과 몰입도가 좋음. 프로그램 홍보가 없어 관람객이 많지 않음.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이야기 연극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의 문화와 소통하는 연극을 꾸밈.

▶ 의외성 모니터링

- 어린이부터 어른세대까지 아우르는 흥겨운 극을 보여줌.

(7) 2016. 06.11 – 단오제 7일차

□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지역 학생들이 평소에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지역 학생들이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자리로 단오제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고, 사회자가 관객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방문객들과 교감하는 나눔 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다양한 레퍼토리에 집중하면서 무대를 볼 수 있었음. 익숙한 곡들의 연주로 지루하지 않는 공연이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음악과 우리 국악을 같이 연주하는 무대가 인상적이었고, 신나고 재미있는 무대가 연출됨. 목관 · 금관 · 현 · 타악기로 구성된 무대는 다양성 사운드를 조화를 보여주었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속에 국악의 신명나는 소리가 합쳐져 참신했음. 국악과 양악의 조합이 이색적이었음. 수리마당에서 진행하는 공연 대부분은 수화통역사가 MC 옆에서 바로바로 통역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고유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서양악기만을 연주 하였는데, 학생들 소속 단체에서 서양악기가 아니라 전통악기를 가르쳐주어 이런 자리가 있었을 때 어린 학생들이 국악을 연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무대였음. 오케스트라만으로는 고유성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국악과 양악의 만남으로 특별한 공연이 되었고 처음 보는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함.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곳에서 어린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지만 수준급 실력을 보여주어 깜짝 놀랐음.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의 의외의 조합이 잘 어울렸음.(특히 태평소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조합은 최고였음.)

총평 : 어린 학생들이 연주한 오케스트라만의 공연이었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무대가 될 수 있었지만, 국악의 만남으로 좀 더 신선하였고, 좋은 공연이 됨. 강릉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나눔 콘서트로 진행되었지만, 전 연령대의 고른 참가는 약간 아쉬움.

□ EATOF공연단 몽골튜브도/중국길림성 (수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 단오제에 많이 오는 연령층인 장년층 노년층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임.
참여성	3	• 주로 공연단을 관람하는 형태라 방문객의 참여가 어려워 보임.
신기성	4	• 평소 TV에서만 보거나 알지 못하거나 했던 다른 국가의 전통 음악과 무용을 실제로 본다는 점에서 신기했음.
고유성	2	• 몽골의 전통문화와 우리 전통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음.
의외성	2	• 흥미 위주로 재미있는 공연이긴 했음.

총평 : 다른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단오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이 의미 있는 좋았음. 몽골의 문화 공연을 통해 지역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몽골 튜브도는 강원도와의 자매결연도시로, 강원도가 농업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양 지역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몽골사막의 바람소리, 새소리, 사막의 아름다움을 사람의 목과 몸으로만 표현한 이색적인 공연이었음.

▶ 신기성 모니터링

- 유목 축산의 전통에 따라 말에 대한 묘사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공연이 신기했음.

▶ 고유성 모니터링

- 태양을 숭상하는 몽골의 문화와 말과 친숙한 몽골의 문화를 보며 우리 문화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음.

▶ 의외성 모니터링

- 인간의 몸을 이용해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 신기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훌륭한 공연을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관람하지 못해 아쉬움.

□ 전통혼례시연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혼례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축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단오제의 성격과도 부합함.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례자가 하는 말을 옆 사회자가 한글로 해석해 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여 영어로 번역 해줘서 보는 이들을 배려해줘 관람객들의 참여를 도왔음. 혼례인 만큼 혼례 하는 당사자들의 날이기 때문에 관람객의 참여도 있을 수 없었음. 혼례를 하는 당사자의 관련된 사람들로 둘러 쌓여 있어 관람객이 앉은 의자에서는 보기 힘들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 축제 중에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통 혼례를 한다는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함. 전통혼례의 형태와 절차를 알 수 있었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혼례를 보여주기 위해 신부가 가마를 타고 등장하는 점 신랑이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는 점 같은 작은 요소들까지 잘 살려 냄. 전통 혼례 자체의 고유성을 느낄 수 있었음.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방식 그대로 혼례를 진행함.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히 그냥 배우들이 나와서 전통 혼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가 될 사람들이 나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 혼례식을 올린다는 점이 의외인 점이고 참신함. 어려울 것만 같았던 전통혼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진행함으로 이해하기 쉬웠음. 영어로도 설명해줌으로서 외국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해 할 수 있었음. 	


총평 : 실제 부부가 될 사람들이 나와 하객들을 초대하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음.

요즘은 서양 결혼식 말고, 전통혼례를 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이 더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전통혼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그런데, 그 전에 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소 지루하였음.

전통혼례를 설명도 잘해주었고, 영어로도 설명해주는 것은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혼례를 직접보기에는 혼례관계자들이 바로 옆에 서 있어서 관람하기 너무 힘들었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떠나지 않았음.

□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농악들 중 평택에서 시작된 농악으로, 한 국적이고 흥미로운 공연임. 농악자체가 화합을 하며 공연을 해야 함으로 단오 제 주제와 적합함. 우리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농경문화를 표현 한 농악대는 농사의 주요 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오와 관련이 깊어 단오 주제와 잘 맞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연 구성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관객들이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음.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해주며 참여도를 높이고, 평택농악 시작 전 설명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 임.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음. 다른 농악과는 달리 노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층이 즐기며 관람했으며, 외국인이 제일 많이 보인 농악임.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농악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 음. 재미와 관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큰 동작들이 많아 공연에 몰입도가 높은 무대였음. 아이들이 나와 재주를 부리는 것이 매우 재미있는 볼거리였음. 다른 농악과는 달리 많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는 농악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경쾌한 농악 이었음. 상모와 버나놀이, 무동놀이 등이 참신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의 평택농악을 전승받아 계속 유지해온 사람 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무대였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고유성은 당연 독보적임. 평택농악은 예로부터 내려온 평택농악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으며, 향토성이 깊게 배어있음. 우수성과 전통성이 돋보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의외였으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한 농악으로 훈훈한 무대였음. • 기존의 농악들은 다 비슷하였지만 평택농악만큼은 그 차별성이 보였음. • 지루할 틈이 없는 농악이었음. • 대부분의 농악은 노년층이 즐겼지만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즐기는 농악이었음. 	
-----	---	--	---

총평 : 농악이 서커스처럼 흥미롭고 신이난다는 점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공연이었음. 농악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무대를 꾸리지만 평택농악은 평택농악만의 특별성이 확실히 보였음. 평택농악의 전통성에서 선조들의 풍부한 흥과 멋을 알 수 있었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을 보면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가 계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할 필요를 느꼈음. 단오제 프로그램 중 단오의 주제성과도 적합하고 제일 즐겁게 관람했던 프로그램. 관람객들과 함께 춤추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평가됨.

▶ 평택농악

- 풍물은 마을의 당산제를 지내거나 지신밟기를 할 때, 또는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마을에 경사가 났을 때 등 결코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
- 평택 농악은 정초에는 지신밟기를 하고 농사일이 시작되면 두레풍물을 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우리나라 농악들 중 평택에서 시작된 농악으로, 한국적이고 흥미로운 공연임.
- 농악자체가 화합을 하며 공연을 해야 함으로 단오제 주제와 적합하며, 무등을 탄 아이들의 공연이 인상적이었음.

▶ 참여성 모니터링

- 평택농악 시작 전 설명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며,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해주어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임.

▶ 신기성 및 고유성 모니터링

- 다른 농악보다 더 역동적이며, 재미와 관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큰 동작들이 많아 공연에 몰입도가 높은 무대였음.

▶ 의외성 모니터링

- 어린아이들의 농악공연이 신기했으며 세대를 넘나드는 훈훈한 무대였음.

□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가면극.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친숙한 가면극이어서 흥미로움. 수영야류는 정월대보름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축제의 형태로 함께 즐기며, 행하는 축제라는 부분에서 관련이 있음. 하지만 단오제의 주 주제와는 크게 맞지 않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내용을 진행해야하는 특성상 관객들의 참여 없음. 시작 전 수영야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비교적 쉬움. 같이 춤추며 즐기는 할아버지들이 존재함.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 당시의 생활을 잘 반영함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관람함.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에서 보던 내용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가면 같은 것이 신기함. 연극과 탈춤의 공존하는 공연으로 신선함. 장신구들 하나하나가 신기했음.(가면, 한복 등)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공연이었음. 옛날부터 전해오던 마을사람들끼리 함께 즐기던 마을축제 잘 표현됨. 당시의 생활상을 잘 반영함.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면을 쓴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무용과 사물놀이를 하는 것이 의외였고 그 시간이 꽤 길었음. 느린 장단임에도 즐거운 분위기가 나서 놀랐음. 	

총평 : 본격적인 극을 시작했을 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대사를 해야 하는 만큼 관객들에게 대사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대사를 하는 배우들 각자에게는 마이크가 없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소리가 작아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마이크 소리도 조금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음.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아 집중하지 못하여 수영야류는 기억에 남는 놀음 공연이 되지 못함. 마이크 소리문제라기 보다는 아리마당 자체가 주위의 소음을 막지 못해 주위의 잡음이 많이 들려 대사 소리가 안 들림. 대사가 안 들렸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춤이나 행동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수 있었음.

당시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는 공연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관람객이 있었으며,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꽤 있었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생활을 반영하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면,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수영야류 소개

- 국가무형문화재 43호인 수영야류는 ‘들놀음, 들놀이’ 를 한자로 ‘야류’ 라 적은데서 비롯된 명칭임.
- 수백 년 전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주둔 했을 때, 수사가 합천 초계 밤마리(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 대광대패의 오광대를 불러다 놀게 한데서 시작됨.
- 놀이과정
 - 제1과장 : 양반 / 양반과 말뚝이를 대립시켜 극이 전개 됨.
 - 제2과장 : 영노 / 수심에 잠겨 남아 있는 ‘수양반’ 앞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영노가 검은 보자기를 쓰고 소리를 내면서 등장함.
 - 제3과장 : 할미 · 영감/ 영감과 본처인 할미와 첩인 제대각시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함.
 - 제4과장 : 사자무/ 사자와 범(담보)이 춤추며 싸우다가 범(담보)이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무용극

▶ 주제성 모니터링

- 수영야류는 정월대보름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축제의 형태로, 함께 즐기며 행하는 축제라는 부분에서 ‘단오제’ 의 사회적 기능이 유사함.

▶ 참여성 모니터링

- 같이 춤추며 즐기는 관람객이 존재하나,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아 공감하기 힘들.

▶ 신기성 모니터링

- 커다란 말뚝이 탈과 담백한 관노가면극과 달리 화려하고 커다란 장신구들 하나하나가 신기했음.(가면, 한복 등)

▶ 고유성 모니터링

-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의 문화재로 그 전통성 및 고유성이 “강릉단오제” 에 뒤지지 않음.

▶ 의외성 모니터링

- 양반을 희롱하는 탈놀이가 존재하고 전승되어 온 것을 보며 지금의 문화 콘텐츠와 유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됨.

□ 사천농악대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고유의 농악대. 단오제의 성격과 잘 맞음 강릉의 오랜 전통이 있는 사천 농악대로 강릉 단오제의 느낌이 많음. 농악자체가 화합을 하며 공연을 해야 함으로 단오제 주제와 적합함. 우리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농경문화를 표현한 농악대는 농사의 주요 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오와 매우 관련이 깊음.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이들이 농악대 공연 안에 들어와 공연에 참여함. 하지만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없었음. 마지막에는 관객들과 함께 모두 춤을 추는 등 재밌는 장면이 연출됨. 관람객의 대부분은 노년층이었고 젊은 층은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뿐이었음. 관람형식으로 그냥 사진 몇 장만 찍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존재함.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함께 모여 춤을 춘다는 것이 신기함. 농악에서 밧줄로 새을 쫓는 부분은 평소 농악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선함. 경고를 받으면서도 함께 즐기며 춤추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신나는 농악이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에 사용된 소품들이 예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잘 살아있어 보기 좋았음. 국가지정 문형문화재로 사천농악대만의 지역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강릉시 사천면에서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 농악으로 그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들과 함께 공연자들이 춤을 추고 흥겹게 서로 즐기는 모습이 새롭고 낯설었음. 하지만 흥겹게 모두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흥미로운 무대였음. 어린이가 약간의 서툰 실력으로 농악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습이 귀여워서 농악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줬음. 농악깃대가 유독 눈에 띄었음.

총평 : 강릉지역 대표농악 공연임. 중간 중간에 몇몇 관람객이 공연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주의를 줄 수 있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 포교사단 관노가면극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부터 강릉 단오제와 아주 잘 맞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 중간 마다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직접 극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람객들의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유도해 재미있는 볼거리가 제공됨 재미있고 인상적인 무대였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의 내용 자체는 우리 옛 정서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보기에 신기한 점은 딱히 없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시간 안에 고유의 내용을 모두 다 담아 냄.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 이라고 해서 정해진 내용만 보여줄 거라는 생각과 달리 관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 모두 재미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었음.

총평 : 강릉에서 시작된 극이어서 그런지 관노가면극 자체를 단오기간동안 많이 보여줌.
관노가면극을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좋은 역할을 함.

□ 강릉학산오독떼기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독떼기는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농요로 단오제과 관련성이 높음. 오독떼기는 농사짓는 과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판굿의 형식으로 진행 됨.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 딱 관람의 형태로, 관람객들과 같이 모심는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농요소리는 잘 들려 농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신발을 벗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생동감 있음. 벼농사 과정마다 각기 다른 민요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민요와 제창방식이 듣기에 좋았으며, 신선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학산 오독떼기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사소리로 고유성은 뛰어남.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강릉지역의 농요는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기량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어, 고유성이 뚜렷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요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벼농사 짓는 모습을 잘 묘사 하면서 농요를 불러주었기에 이해하기 편함. 농사에 빠질 수 없는 새참을 나눠주는 모습이 좋음. 아리마당에서의 공연이 맨발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당의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음. 공연자들의 안전을 위해 아리마당의 안전 요원 배치 필요함. 	

총평 : 강릉 오독떼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며 내려온 것으로 꼭 지켜야 할 무형 문화재로 생각됨.

국악기, 농요가락, 벼농사 묘사, 모든 것이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이 잘 들리지 않음.

오독떼기에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설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함.

□ 제22회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를 경축하기에 알맞은 프로그램 강릉지역에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취지에 잘 맞았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연대회에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전문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 경연대회인 만큼 관람하러 온 사람들과의 참여성은 많이 떨어짐.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물놀이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끔 시선이 많이 가는 사물놀이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보기에는 많은 지루함을 느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예능단체 및 개인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단오만의 경연대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 없이도 국악의 소리가 엄청 잘 들려 국악의 다시 한 번 감탄함. 학생들의 실력이 전문부 못지않게 뛰어남. 	

총평 :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고취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보러온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우선 경연대회 시간이 너무 길었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음. 수상한 사람들의 소감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의 문제로 듣지 못한 점도 많이 아쉬움.

▶ 주제성 모니터링

- 전통 문화예술전승의 올바른 지평을 열고 강릉지역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임.

▶ 참여성 모니터링

- 청소년부, 일반부, 단체, 개인으로 나뉘어 경연대회를 펼침.

▶ 신기성 및 의외성 모니터링

- 어린 학생들 및 일반인들의 참여가 적극적임.

▶ 고유성 모니터링

- 학생, 예능단체 및 개인의 같고 닳은 기량을 선보이는 마당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고취를 위한 목적이 있음.

(8) 2016. 06.12 – 단오제 8일차

□ 조전제 (단오제단)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 기간 동안 아침마다 올리는 유교식제사.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식 제례로 주로 남성중심주의적 성향이 있어 남성주도 아래 이루어짐. 조전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집중도가 높음. 외국인들은 큰 관심을 보임. 주 관람객은 어르신들이 많았으나, 관람석이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불편해 보임.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사가 끝난 뒤 제사에 올렸던 떡과 술을 관람객에게 나눠줌. 소재지는 소원지를 불태워 신께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함. 한번쯤은 체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체험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식 제례로 남성중심주의적 의례로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고유성이 보임. 제례의식은 예능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강릉의 기관단체장들이 헌관을 맡아 제례를 올려 그 고유성이 뛰어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광판에 설명문이 나와 조전제를 이해하기 더욱 편했음. 떡과 술을 나눠줄 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어 불편함이 많음. 질서에 맞게 나눠줄 필요가 있음. 	

총평 : 조전제는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로 딱딱한 분위기가 존재함. 고유의 유교식 제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제례와 잘 어울림. 향냄새부터 모든 공간이 진짜 제례를 지내며,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좋게 평가됨.

- ▶ 주제성 모니터링
 - 음력5월4일부터 7일까지 단오제가 계속되는 동안 아침마다 올리는 유교식 제례를 이룸.
 - 강릉의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강릉의 인사들이 제관을 맡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를 올림.
- ▶ 참여성 모니터링
 -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관객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임.
- ▶ 신기성 모니터링
 - 제관들의 고유한 복장과, 제를 올린 후 제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문화를 그대로 재현함.
 - 관람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임.
- ▶ 고유성 모니터링
 - 강릉단오제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전승 기능을 인정받는 분야가 단오제례, 단오 굿, 관노가면극임.
 - 단오제례의 제례는 유교의례의 규범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복식과 홀기, 축문을 갖추어 진행함.
- ▶ 의외성 모니터링
 - 제례 행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제례행사의 절차와 제례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름.
 - 단오제단에서 치러지는 행사들은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의 본질이며, 이러한 본질적 문화재를 상세하게 알리고 전달하기 위한 안내서비스가 필요함.
 - 또한, 제례에 쓰인 제수들을 나눠먹는 음복 과정에서 관람객들에게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안전요원 확대 배치
 - 안전요원 서비스 교육 실시
 - LED전광판을 통한 음복 행사 안내 사전 공지 서비스

□ 세존굿 (단오제단)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존굿은 단오굿 중 하나로 단오 주제와 매우 적합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이 집중해서 세존굿을 봄. • 무녀에게 돈을 주거나 무녀 곁에서 기도하는 관람객들이 있었음. • 떡을 나눠줄 때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많았음. • 단오제단에서 굿을 관람하는 상시 인원은 대략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시 관람객이 많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함. • 굿이란, 섬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알고 있었지만, 노래와 악기연주가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존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신으로 삼신만의 고유성을 가짐.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했던 분위기의 굿과 달라 흥미롭게 세존굿을 봄. •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가면서 연출하여, 사람들의 관심 끌어내고, 집중하며 관람할 수 있었음. 	

총평 : 굿의 특성 때문이지는 몰라도 약간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당의 특유의 소리와 아니리로 관심을 끌어내어, 집중하며 볼 수 있었음.

무속신화를 구연하는 세존굿은 세존과 당금애기의 결합과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굿이 됨.

무당 옆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음. 관리자들의 핸드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떡을 나눠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기심이 눈에 많이 보임. 떡을 나눠주는 관리자를 잡아끌거나, 떡을 뺏어가는 행위가 많이 보임.

▶ 주제성 모니터링

- 시존굿이라고 하며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당금애기노래하고도 함. 세존굿은 생산을 담당하는 세존과 당금애기의 결합과정을 그린 무속신화를 그린 굿임.
- 당금애기설화와 관련된 이 굿은 세존이 당금애기와 결합 한 뒤 당금애기는 아들 셋을 얻고 아들 삼형제는 태백산의 문수보살, 서황맞이, 요왕맞이(용왕)이 되고, 당금애기는 삼신, 삼한세존을 마련하여 자손을 불러 주고 복을 주는 신이 되었다는 서사무가의 한 종류임.

▶ 참여성 모니터링

- 단오제단에서 제례행사부터 단오굿을 하루종일 관람하는 어르신들이 많음.
- 인기가 있는 굿일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함.
- 굿 중간 중간 마다 나눠주는 떡을 받으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룸.

▶ 신기성 모니터링

- 세존 굿의 등장인물 당금애기 설화는 우리나라 천지창조신화의 한 축을 이루는 이야기임.
- 세존 즉, 인간이었던 당금애기가 자식과 복을 관장하는 삼신할미가 된 “영웅신화”의 서사적 구조를 따름.

▶ 고유성 모니터링

- “세존굿”은 서사무가 장르에 속하는 신화이야기로, 무당이 장구나 북의 장단에 맞춰 부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르임.

▶ 의외성 모니터링

- ‘세존 굿’의 세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라는 것과 ‘삼신할머니’가 자식과 복을 관장하는 신이 된 배경을 풀어내는 굿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름
- <바리데기> 이야기처럼 “세존 굿”의 <당금애기> 이야기를 관람객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굿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 ‘세존 굿’을 국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전통문화현장학습의 장으로 기획하여 전통문화 전승 방법과 대중화를 꾀하여야함.
-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굿이 본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함.

□ 수원시립공연단 관무재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관무재는 조선시대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만 시행된 중요한 시험으로 단오제를 축하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며 관람함. 특히 남자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관무재를 관람함. 무과시험을 극화한 만큼 배우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이 위험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무재를 뮤지컬 형태로 꾸며 신선했음. 중간 중간 웃긴 요소가 많았음. 조선시대 왕의 명령에만 치러졌던 중요한 시험인 관무재를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좋았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시대 있었던 관무재를 뮤지컬 형식으로 노래와 무용을 더해 그 고유성이 더 깊음. 조선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 고유성은 뛰어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아리마당의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수원관무재는 대사나 설명, 음향 등 모든 것이 다 잘 들림. 위험한 공연 소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당의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음. 공연 배우들이 직접 현장의 안전을 챙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됨. 	

총평 : 관무재의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 수원 관무재에 대한 간단하지만 명확한 설명과 관무재에 관한 팸플릿을 나눠 줌.

수원 관무재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충분히 관무재를 이해하며 관람할 수 있었음.

다소 짧은 공연시간으로 아쉬울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공연이었음.

▶ 주제성 모니터링

- 수원 시립공연단의 “관무재”는 조선시대 왕의 명령이 있을 때 행한 무과 시험으로, 조선 정조 대왕이 자신의 어머니의 환갑을 위해 행하였던 무과시험을 극화해서 만든 공연임.
- 정조대왕의 효심과, 조선의 무예의 기량을 엿볼 수는 공연임.

▶ 참여성 모니터링

- 배우들의 조선 무예 시범 공연과, 전통 소리 공연 등 볼 거리가 많아 관객들의 호응이 높음.
- 남자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음.

▶ 신기성 모니터링

- 창작극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왕의 꿈과 효심, 디테일한 무대 소품 준비 및 인상적인 무예 퍼포먼스요가 조화를 이룬 공연임.






▶ 고유성 모니터링

- 우리 역사를 참조하여 전통에 기반을 두어 새롭게 창작한 창극으로 이러한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되고 공연되어야 함.

▶ 의외성 모니터링



- 조선시대 무예를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공연 소품들이 위험한 것이 많았으나,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있지 않음.
- 공연 배우들이 관람객의 안전을 수시로 돌보며 다니는 광경이 종종 목격됨.
- 남자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배우들의 공연 동작을 따라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이 없음.
- 프로그램 시작 전 수원시립공연단에서 나눠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강릉단오제 축제 전역에 고르게 배치하여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 관노인형극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민속연희인 관노가면극의 인형극 버전으로 단오제 주제에 적합함. 강릉 단오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아이들이 관노가면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노가면극과 달리 성우가 대사를 하며 인형극을 하여 이해도와 몰입도가 높았음. 관람형인형극이었지만 중간중간 관람객들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이끌어내 관람객들과 소통을 이룸. 대부분의 관람객은 어린이였으며, 가족단위가 많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관노가면극보다 성우의 대사가 많아 이해도가 높았고, 인형을 활용하여, 확실한 차별성을 가짐. 인형극 바로 옆에서 성우가 국악기를 다루며 대사를 하여 참신한 느낌을 줌. 인형극이라는 작은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활용해 멀리서도 잘 보였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사투리 대사로, 재미는 물론,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인형극이었음.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우리의 고유 전통 문화재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피커로 나오는 음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국악기로 음향 효과를 주어 좀 더 현장감이 듬. 기존의 관노가면극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인형극이라는 소재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음. 	

총평 : 스토리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인형임. 기존의 관노가면극과 비교해 볼 때, 관노 인형극은 이해가 쉽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음. 어린이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며, 즐기며 관람한 것으로 보아 어린이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보임.

□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아리마당)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도 지역에서 병·재난을 막기 위해 추었던 탈춤으로 200~300년의 역사를 지님. • 부정한 것을 막고 평안과 복을 축원하는 것이 “강릉단오제”와 유사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보는 커다란 말뚝이 탈과 대사가 많은 탈춤에 많은 관람객들이 호기심을 보임. • 아이들의 참여가 많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모습의 탈이 나와 극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 남성적이고 힘있는 탈춤 동작들이 인상적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의 <은율탈춤>은 황해도 서쪽 지대의 향토문화를 반영한 전통문화공연임. • 고유한 장단과, 소품들이 이목을 끌기 충분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에 대한 사전 정보와 극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음. • 탈을 쓴 배우들의 대사가 전혀 전달되지 않음. • 각 장을 요약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MC배치가 필요함. 	






총평 : 은율 탈의 특징은 흑 주위에 5가지 색상이 있는데, 황색은 중영의 신, 청색은 동쪽의 신, 적색은 남쪽의 신, 백색은 서쪽의 신, 흑색의 북쪽의 신 즉, 5방위 신을 뜻함.
 은율탈춤은 모든 공간을 관장하며 잡귀의 침범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임.
 은율탈춤의 탈은 그 생김새와 이름이 매우 이색적임. 독특한 형태의 탈들과 이름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나, 이를 잘 설명하지 못함.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소개

- 황해도 서쪽지대의 중심지였던 은율은 쌀, 사과, 참외 등의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금으로부터 약2~3백 년 전, 반란 때 난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쓴 것에 유래되었다고 전해짐.
- 또한, 탈춤을 추면 병과 재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하여 탈춤을 추었다 전해짐.
- 은율탈춤 장 구성
 - 제1과장 사자 춤
 - 제2과장 상좌 춤
 - 제3과장 8목중 춤

- 제 4과장 양반 춤
 - 제 5과장 노승 춤
 - 제 6과장 미알할미와 영감 춤
- 전체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장인물은 말뚝이, 사자, 상좌, 목중, 최팔이, 노승 첫째양반, 둘째양반, 병신양반, 새맥시, 원숭이, 미알영감, 미알할미, 무당 등이 등장함.
 - 은율탈춤의 교독이 타령, 대꽃타령, 병신난봉가, 나니가 타령등은 황해도 지방의 지방색이 향토색이 깊은 민요들임.
 - 춤동작은 활발하고 씩씩한 황해도 탈춤의 남성미를 풍김.
- ▶ 주제성 모니터링
- 병과 재난을 방지하기를 기원하고 향토색이 진한 음악이 연주되는 은율탈춤은 황해도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전통문화 공연임.
 - ‘강릉단오제’를 통해 강릉의 지역문화를 이해 할 수 있듯이, “은율탈춤”을 통해 황해도 서쪽지대의 지역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연이 됨.
- ▶ 참여성 모니터링
- 색다른 탈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함.
 - 대사가 많은 탈춤이었으나, 대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관람객들이 극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가 쉽지 않아 극 몰입도가 점점 낮아짐.
- ▶ 신기성 모니터링
- 여러 형태의 탈들이 신기함.
 - 아리마당에서 공연되었던 다른 지역의 탈춤과 달리 장단과 배우의 몸짓이 활력이 넘치고 남성스러움.
- ▶ 고유성 모니터링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61호로 지정된 “은율탈춤”은 황해도 지역에서 300년 이상 지속되어 내려온 지역의 향토성과 민간 신앙을 잘 드러내는 전통 공연임.
 -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행사 ‘관노가면극’과 비교 분석 해 볼 수 있는 전통 문화 공연임.
- ▶ 의외성 모니터링
- 많은 등장인물과 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 탈을 쓴 배우들의 대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극의 재미가 떨어짐.
 - 아리마당의 음성시스템을 확충 및 보강이 필요함.
 -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평양민속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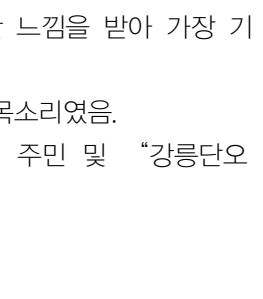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서 예술분야에 직업적으로 종사한 탈북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2002년 12월 6일 자유총연맹 후원으로 창단함.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작을 위해 기획 된 공연단의 공연은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하지만 평양에서 지내는 단오제나 북한에서 연행되는 단오제와 관련된 문화 공연은 진행되지 않아 그 주제성이 떨어짐.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공연을 본다는 것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이 높음. 참여를 유도하는 능수능란한 평양민속예술단 MC의 진행이 인상적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채로운 종목과 작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요들을 각색 및 편곡한 점이 신기함. 북한의 공연 문화가 우리의 것과 상당히 달라 신기함.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민속예술단이 공연은 북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 북한의 공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그쳐 창조적인 공연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함.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미디어나 해외 여행지에서 공연되는 북한의 문화 공연을 보는 듯함. 	

총평 : 평양예술단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해의 장을 마련해 새로운 공연문화를 창작하기 위한 사명으로 조직됨.

하지만 북한 지역의 전통 문화 공연 보다는 북한 주체사상 아래 기획 공연된 공연 문화에 불과하며, 북한 공연에 대한민국의 성인가요를 엮은 피상적인 공연에 그침.

북한에서 행해지는 단오문화와 단오에 관한 전통공연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EATOF공연단 몽골튜브도/중국길림성 (단오문화관)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중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강원도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 튜브도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무대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태의 공연이었기에 참여성은 낮음. • 관람객들 대부분이 가족단위였으며, 중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돌아가는 관람객은 없던 걸로 보아 집중도 높은 공연으로 판단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가 유명했던 중국길림성의 공연은 한지와 가위로 한지공예를 표현한 것이 참신함. • 몽골 전통음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연임. • 서로 다른 국가가 음악이라는 것으로 동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각국의 전통음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만의 특유의 음식과 옷차림이 잘 나타남. • 몽골의 특유의 분위기가 잘 나타남. • 몽골의 전통음악과 악기로 몽골의 고유성이 잘 보임. • 몽골의 자연과 몽골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들이 이색적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중국 공연 모두 처음 보는 흥미로운 공연 • 특히 몽골 공연은 악기소리와 목소리가 특이함. • 국적은 다르지만 서로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소통함. 	

총평 : 무대 시작 전, 아나운서의 설명으로 각국의 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쉬웠음. 길림성에 많은 소수 민족들을 만나보며,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다양한 공연 중, 조선족의 ‘아침에 소싯네’는 아리랑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 가장 기억에 남음.
 몽골공연은 추임새로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매력적인 목소리였음.
 다른 나라의 공연을 무료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 및 “강릉단오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관광 요소임.

□ 송신제 · 소재 · 환우굿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제는 대관령에서 모셔온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여성황신을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제임. • 송신제에 이은 환우굿은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여성황신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굿에 사용했던 모든 무구를 태우는 행사임. • 강릉단오제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라는데 의미가 있음.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들이 돌아가시는 길을 함께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참가함. • 등노래굿과 꽃놀이 굿등에 사용되었던 무구를 든 관람객들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가득함.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간의 “강릉단오제”가 비로소 막을 내리는 행사임. • 불로 태움으로 신들이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는 지역신앙과 그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함께 올려 보내는 사람들의 민간 신앙이 이색적임.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강릉 지역의 향토문화와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 1000년의 역사를 지켜온 강릉 단오문화제의 전 의식을 마무리 하는 의미를 지닌 행사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우굿을 뒤따르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행사가 안전하지 않게 진행됨. • 신들이 돌아가시는 상징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을 대표할 만한 장치가 전혀 없음. • 소재를 위한 상징적이고 특별한 안전장치가 구축되어야 함. 	

총평 : 한 달간 진행된 “강릉단오제”가 막을 내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화행사임.

신들을 모셔온 신목과, 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지낸 굿에 사용된 무구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태워 신과 함께 하늘로 올려 보내는 행사임.

단오제의 마지막, 신들의 회귀, 인간 세계의 축원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행사가 단오 섬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진행됨에 놀람.

송신제 · 소재 · 환우굿을 성대하게 마치기 위한 “강릉단오제”를 상징 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장비가 구축되어야 함.

▶ 주제성 모니터링

-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 그들이 계신 곳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제임.
- 유교적 제례 송신제를 마친 후 국사성황님과 국사여성황신님이 곳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 한 후 곳에 사용했던 모든 것을 태우는 환우 곳을 진행 함.

▶ 참여성 모니터링

- “강릉단오제” 의 마지막 날 많은 관람객들의 신들이 돌아가시는 길을 함께 함.
- 꽃노래 굿과 등노래 굿에 사용되었던 무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든 관람객들이 인상적 임.

▶ 신기성 모니터링

- “단오제단” 에 있던 용선은 망인이 타고 저승을 가는 배이고, 신이 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수단임. 신이 탄 용선과 꽃등을 단오 섬으로 옮겨 신을 다시 신들이 오신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소제 및 환우 굿의 과정이 매우 인상적임.
- 신이 돌아가는 과정에 “강릉단오제” 를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적은 소원을 함께 태워 보내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모습도 인상적임.

▶ 고유성 모니터링

-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강릉단오제는 그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민간 신앙이 깊게 투영되어 있음.
- 대관령 산신인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을 신목에 모시고 오고, 그들을 위해 한바탕 신나는 연회를 베풀고, 신들을 그들이 계신 공간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강릉단오제’ 의 전 과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행사임.
- 신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강릉 지역의 향토문화와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 의외성 모니터링

- “강릉단오제” 의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오 섬 빈 공터에서 소재되는 과정이 너무 단조로움.
- 마지막 행사를 보기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뒤따르지만,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소재되는 과정이 매우 위험해 보임. 소재를 위한 안전 장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신들을 돌려보내고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소원을 태워 올리는 의미를 가진 소재행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전무함. 새로운 축원 문화 콘텐츠로의 변모가 필요함.



4) 2016 강릉단오제 상시 프로그램

(1) 체험 프로그램

① 단오신주 맛보기

-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방법
 - 단오 신주 부스에서 무료로 신주를 나눠 줌.

- 단오신주 맛보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신주는 강릉단오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행사임. • 강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쌀을 헌납하여 술을 빚어 대관령 산신에게 대접했던 전통에서 기인한 전통 술임. • 단오기간에만 맛볼 수 있었던 단오 주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양조장을 따로 만들어 단오축제 기간 동안 시음 할 수 있도록 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신주를 맛볼 수 있는 무료 행사여서 많은 인원이 참가함. • 단오 신주의 특성상 성인들의 참여가 주를 이룸.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기간 내내 단오 신주 맛보기 행사가 이루어 지므로 신기성이 떨어짐. • 또한 단오 신주에 대한 설명과 안내 없이 술을 나눠 주므로 다른 전통주 (막거리, 동동주) 와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함.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강릉 시민들의 헌미봉정 (쌀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 으로 만들어진 것이 단오 신주였음. • 하지만 지금의 단오신주는 양조장에서 만든 단오주를 단오 축제기간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의미와 고유성이 퇴색 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신주를 마시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많음. • 과도한 음주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참여 인원의 참여 제한이 필요함. 	

▪ 단오신주 맛보기 모니터링 분석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대관령 산신들과 단오 신들에게 바치는 단오 신주를 체험하는 것은 강릉 단오제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자, 강릉의 지역전통임. • 이러한 지역 전통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올바른 전통 문화의 계승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신주를 빚는 지역민들의 정성과 역사적 가치, 지역 문화를 제대로 알리지 못함. • 유네스코 등록 인류 무형 문화유산 강릉 단오제의 단오 신주에 맞는 고품격 브랜드가 필요함. • 또한, 이에 맞는 고품격 스토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단오 신주와 일반적으로 마시는 단오주의 차별화된 체험 전략이 필요함.

- 강릉 시민들의 한정봉미로 만든 진정한 단오신주에 대한 한정 수량을 만들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맛 볼 수 있는 한정 마케팅을 진행해야 함.
- 무더운 날 어른 신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신주 체험 객들에게 체험을 하루에 몇 번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혹은 단오신주이외에 새로운 마실 거리를 개발하여 다양한 단오음식을 제공, 단오장이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앵두화편, 앵두화채)
- 단오 신주 마시기 체험을 위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임. 하지만 신주 부스에 안전 관리하는 관리 요원이 보이지 않음. 술을 나눠주는 행사인 만큼 체험자들의 건강 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함.
- 현재 단오 신주를 나눠 주는 술잔은 종이컵으로 사용함. 종이컵이 신주라는 의미를 가볍게 만들며, 한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자연보호 및 자원낭비가 될 수 있어 안타까움.

② 수리취떡 맛보기

-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방법
 - 무료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나눠줌.
 - 아이들은 떡 틀을 찍는 체험을 진행 함.

- 수리취떡 맛보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력 5월 5일 양의 기운이 가장 높은 날인 단오는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 수릿날이라 함. • 단옷날 먹는 수리취떡은 약 떡이라 이르며 단옷날 아침에 꼭 먹었던 전통 음식 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전통 음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식 체험에 참여 함. • 무료 시식인 점이 크게 작용함.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축제 기간 중 수리취떡을 매일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 수리취떡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짐 • 더운 날씨에 목이 막히는 수리취떡은 소화가 안 될 수 도 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쑥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식물로 우리 민족에게는 신성시되는 식물이며, 재액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을 여김 • 또한 위장병, 소염작용, 지혈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어 쑥을 넣어 만드는 수리취떡은 우리 전통 고유의 음식 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취떡을 그냥 나눠 주기보다 떡 틀로 찍어 보는 간단한 체험이 더 바람직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임. • 단오 캐릭터 떡 틀이 인상적이었음. 	

▪ 수리취떡 맛보기 프로그램 분석결과



항목	평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의 전통 음식 수리취떡을 무료로 시식 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고향 장터의 넉넉한 인심인 것 같아 정다움. • 단오의 전통 음식 수리취떡을 먹으로 단오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나눠주는 수리취떡 시식 행사는 수리취떡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림. • 손에서 손으로 나눠주고 받아먹는 시식 행사는 무더운 날 비 위생적일 수 있음. • 무더운 여름 소화되지 않은 떡보다, 시원한 단오의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함. (예: 앵두화채)

- 강릉 단오제 수리취떡의 고품격 브랜드 포지셔닝
 - 수리취떡은 단옷날 아침 먹던 떡으로 부정한 것을 쫓아 준다고 믿었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먹던 떡임.
 - 하지만 매일 시식이 가능한 수리취떡은 스스로 수리취떡의 가치를 떨어뜨림. 그러므로 특정한 일,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한정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함.
 - 이러한 한정판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수리취떡의 개별포장을 통해 1000년 강릉 단오제의 고품격 브랜드 수리취떡을 만들어야 함.
 - 강릉단오제 수리취떡은 향후 365일 강릉단오제를 상징하는 먹거리 상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임.
- 강릉 단오제의 전통 음식 다양화
 - 앵두화채는 단오절의 절식으로 맛은 달콤하고 새콤하며, 으깨지지 않은 신선한 앵두를 사용하여 앵두 즙을 넣은 설탕물이나 꿀물에 앵두를 띄워 만들.
 - 다양한 단오 음식을 개발하여 오랜 강릉 단오의 정신과 역사를 함께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③ 창포머리 감기

-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방법
 - 체험부스에서 창포머리 감기 티켓을 구매
 - 체험 안내자 앞에 앉으면 머리를 감겨 주심.
 - 머리를 감은 후 왼쪽에 화장대로 이동
 - 거울과 드라이기, 빗으로 머리를 말리 면 됨.
 - 봉사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체험 활동을 마무리하면 됨.

- 창포머리 감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명절에 맞는 체험 문화 상품임. • 중국의 옛 풍속을 전하는 <형초세시기>에 단오네는 약초를 캐고, 재액을 예방하기 위해 쑥으로 만든 인형이나 호랑이를 문에 걸었으며, 창포주를 마셨 가다고 함. • 고려 가요 '동동' 에도 단오를 '수릿날' 이라 여기며 단옷날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여자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몸을 단장하고, 남자들은 액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고 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아이들 ·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 함. • 더운 날 많이 들 참여 하여 함. 	창포머리감기체험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에서 샴푸가 아닌 천연 재료로 머리를 감는다는 것이 신기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의 대표 문화 체험 행사 이므로 고유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포의 향긋한 냄새가 참 좋았음. • 창포머리 감기 체험을 진행 한 체험자들을 위한 드라이기, 빗, 거울 등 준비가 인상적이었음. • 무더운 날 더위를 식히기 좋은 방법임. 	



▪ 창포머리 감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옷날에 행해져 왔던 전통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시간이었음. • 체험자를 위한 드라이기 및 수건, 빗, 타월 등 세심한 배려가 엿보임. • 창포로 감은 머리가 예상보다 너무 부드러워 놀랐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옷날 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지 역사적 설명 필요. •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좋은 이유 과학적 설명 필요. • 창포에 관계된 상품을 판매,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창포에 관계한 창포 로션 만들기, 창포 스킨케어 만들기 등 창포에 관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 진행 필요. • 창포머리를 감는 의자가 매우 불편함. •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대여 방법을 제안해 봄.

- 단오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임.
 - 체험자를 위한 수건, 거울, 드라이기 등의 배려 등은 돋보였으나, 머리를 감은 의자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하였음.
 - 또한 단오 날에 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지 역사적, 과학적 설명이 충분치 않음.
 - 그리고 창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확장 체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감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쉬움.
- 단오 섬의 공간 활용 방안
- 단오 섬의 생태적 가치에 재조명, 단오 섬을 창포 섬으로 재단장 하는 것을 제안 함.

④ 관노 탈 그리기

▪ 관노탈 그리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가 시작된 후 5월 5일 본제 때 여러 서낭당을 돌아다니며 행해졌던 것으로 기록됨. 그러므로 관노가면극의 탈 만들기 체험은 강릉단오제의 정통에서 적합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임.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들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참여도가 높음. 탈과 목걸이를 직접 채색하여 만들고 가져 갈 수 있어 몰입도가 높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에 다양한 색의 물감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음. 	관노 탈 체험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지방에서 전승되는 가면극의 탈을 단오제 행사기간에 만들 수 있는 고유성이 있는 체험 행사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을 내고 체험을 하는 유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감, 붓, 휴지 등 재료의 준비가 부실하였음. 	



▪ 관노 탈 그리기 분석결과 요약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는 체험 행사임. 관노가면 제작 체험을 통해 관노가면극에 대한 호기심 및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노 가면극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와 인물 설명 필요. 실제 관노 가면이 체험 장에 비치 필요. 유료체험임에 비해 재료 제공이 부실함. 물감 사용에 대한 청결 요구 됨.

- 관노탈 가면 만들기는 강릉단오제의 민속 가면극의 탈을 직접 만드는 체험으로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상품임.
- 관노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관노 가면극에 출연하는 가면극 인물들도 알 수 있고, 가면극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관노 가면극을 보고 난 후 관노 가면극을 만드는 통합 교육 체험 활동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통합 체험 활동을 자신이 만든 관노 가면을 쓰고 직접 극 참여, 영신 행사 관노 가면 코스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높은 체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함.

⑤ 단오 부채 만들기

▪ 단오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위가 시작하는 단오날, 임금이 신하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던 선물이 단오 부채임. 단오의 주제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되는 단오제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노·소 모두 체험 활동에 임하였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의 주된 체험 행사인 만큼 신기한 체험 행사는 아님.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우리 선조들이 단오날 서로에게 선물하던 단오 부채인 만큼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른들이 단오 부채를 많이 만들. 컬러링 열풍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성인 및 노인들의 체험 프로그램 참가 빈도 높아짐 	

▪ 단오부채 그리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의 풍습을 따르는 전통 문화 체험. '단오부채 만들기' 는 매년 단오장에서 진행되는 단골 체험 행사임. 남녀노소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료 체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료 제공이 부실함. 자리가 청결하게 관리 되지 못함. 단오 부채의 재료를 고급화 필요. 건강 부채, 공부 부채, 사랑 부채 등 부채를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상품 필요.

- 다가올 더위를 맞아 임금이 신하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하던 단오선의 풍습을 살린 통합 체험활동으로 매년 진행되어온 단골 체험 행사.
- 하지만 대표적인 간판 체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단오 부채 제품의 질과 제공되는 재료가 고급스럽지 못함.
- 단오 부채에 대한 현대적 스토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
- 강릉 단오제만의 건강 단오 부채, 구도 장원급제(울곡 이이) 부채, 복 부채 등 '강릉 단오' 만의 스토리 부채를 만들어야 함.

⑥ 단오 차(茶) 체험

▪ 단오 차(茶)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전통 차에 대해 맛보고 차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는 외국인·어린이들의 참여가 많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를 마시는 다구와 차례 상을 예쁘게 꾸며놓음. 다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짐.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정서를 사용한 아름다운 차상 차림이 인상적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를 마시는 동안 좌식 앉은 자리가 매우 불편함. 아리마당과 근접하여 공연 소리와 의 간섭이 심하여, 상대방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음. 	

▪ 단오 차(茶)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관광객이나 어린이 체험객들이 우리의 전통 차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체험프로그램 한국의 정취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마시고, 코로 맡을 수 있는 오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다도는 다기를 준비하고, 차를 우리며, 차를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찾는 참선의 과정과 같은 과정임. 하지만 이러한 한국적 다도과정의 대부분 생략되고 우려낸 차를 바로 받아 마시는 과정이 아쉬움. 아리마당의 공연장의 소리 때문에 다실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함. 다도 체험 후 10분 동안은 다리가 저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리가 불편함.

- 한국의 다도는 다실의 분위기, 다구의 아름다움, 차의 성품, 차를 끓이는 여러 가지 일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다도정신이라 이름.
- 하지만, 강릉 단오제에서 단오 차 체험 공간은 아리마당 바로 앞에 위치하여 매우 시끄러움. 그래서 한국 다도 정신, “혼미와 번뇌를 쫓아 나 자신을 새롭게 각성”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음.

⑦ 단오 컬러링 체험

- 단오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방법
 - 체험부스에서 체험 티켓 구매.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컬러링 체험 부스에 착석.
 - 받은 컬러링 종이에 색연필로 채색함.
 - 느린 엽서로 보내기 혹은 자신이 소유하기.

- 단오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러링 아트 북이 현대인들의 아트테라피로 각광 받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임. • 단오제의 이미지를 컬러링 색칠 엽서로 제작하여 체험객들이 컬러 및 채색 과정을 통해 단오를 알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심신 안정 프로그램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임.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동 체험 뿐 만아니라 어르신들의 체험이 많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네타기, 창포 머리 감기 등 일반적인 단오제의 풍경이 그려져 있음. • <강릉 단오제>만의 특색있는 그림이 아쉬움.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단오제의 캐릭터 양반, 소매아씨, 장자마리, 시시딱딱이 와 같은 캐릭터를 이용한 컬러링 도안이 없었음. • 각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만든 스토리텔링 상품이 필요함. 	컬러링 엽서 체험하시는 어르신들

▪ 단오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링 체험임. • 색연필로 간단하게 채색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체험이 유독 많았던 체험 프로그램이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단오제>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 제작 필요.

⑧ 한복입기체험

- 단오 한복입기 프로그램 진행 방법
 - 체험부스에서 한복입기 체험 티켓 구매.
 - 봉사자가 한복입기를 도와줌.
 - 한복의 다양한 장신구와 머리 손질을 도움 받음.
 - 한복이용 1시간 후 한복을 반납함.

- 단오 한복입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입기 체험은 서울 등 한국 관광 명소 등지에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 설에는 설빔을 입는 풍습이 있다면 단오에는 단오빔을 입는 전통이 있음. • 단오빔을 연상 할 수 있는 전통 체험프로그램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난장이라는 특성으로 한복 입기가 거추장스러움. • 한복을 입고 예쁜 사진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 지역이 없음. • 단오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치마 자락이 많이 밟힘.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단오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줌. • 유치원에서 한복을 입고 온 아이들도 있어서 단오장에 전통 고유의 활기를 불어 넣어 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문화 축제를 표방하는 강릉 단오제의 취지에 맞는 한복입기 체험 행사 임. • 한복을 입고 그네 뛰기, 민속 놀이 하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들의 한복 입기 체험이 적어 아쉬움 • 어르신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호응이 높음. • 단오빔은 여름을 준비하는 옷으로 시원한 통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복 들이 많아 아쉬움. • 아이들의 한복이 준비되지 않아 아동들의 한복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했음.

▪ 단오 한복입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이 설빔이 있듯이 단오에 단오빔을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 우리 전통 한복을 입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체험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른 관광객들에게 선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동 한복, 모시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8일 동안 110만 명이 참여한 단오장에 한복 차림은 거주장스러울 수 있음. •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전통 공간이 없음.

- 단오장에 한복을 입는 프로그램은 단오의 전통을 입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적합함. 하지만 더워지기 시작하는 단오의 여름 날씨에 맞는 한복 (모시한복)을 준비해야 하나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 어른들보다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복 입기 체험에 적극적으로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어린 사이즈의 한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한복의 준비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장신구가 필요함.
- “단오빔 입기 체험 프로그램” 으로 체험 이름 변경
 - 단오빔은 설빔과 마찬가지로 단옷날 새 옷을 입던 전통 풍속임.
 - 한복 입기 체험이라는 통속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이름을 “단오빔 입기 체험 프로그램” 으로 재 명명해야 함.
- 전통 단오 문화 거리 공간 조성 필요
 - 한복을 입고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 상품 및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전통 문화 관광 지역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트라이슈머³⁾의 능동적인 관광 형태가 반영된 새로운 관광 트렌드 임.
 - 한복 플래시 몹, 한복 코스튬과 같은 행사 등은 전통 문화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SNS계정에 올리며 자신들만의 관광 경험을 공유해 나감.
 - 한복입기 체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강릉단오제에 전통 문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함.

3) 체험적인 소비자를 정의함. 회사나 광고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 한경 경제용어사전

⑨ 오륜주머니 체험

- 오륜 주머니체험 프로그램 진행 방법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오륜 색을 공 주머니로 만들어서 바구니에 넣는 게임
 - 단오문화원 앞 단오공원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

- 오륜 주머니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사진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에서 열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임. • 우리 전통 공 주머니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색 주머니에 넣어 바구니에 넣는 게임 체험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객이 많지 않은 단오공원에서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게임에 참여 할 수 있었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회 공 주머니 던지기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게임 프로그램임.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에 맞는 전통 놀이라고 할 수는 없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사람들이 오륜 주머니를 던지며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임. 	

▪ 오륜 주머니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공 주머니를 던지기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 강릉단오문화관 앞의 단오공원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배치의 효율성에 기여함. • 체험 객들이 자유롭게 체험을 즐길 수 있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강릉 단오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⑩ 투호던지기

- 놀이방법
 - 던지는 자리와 통의 간격은 보통 1.5m 정도 거리를 두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가깝게 함 (단지까지의 거리를 일곱살 아래는 두 살 반(二箭半), 열 살 이상은 석 살(三箭)로 정하여, 나이에 따라 달리함)
 - 한 사람씩 12개의 화살을 던지는데, 1개가 들어가면 10점씩 계산하여 120점 만점으로 하고 화살의 숫자는 놀이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조정 가능함.
 -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김
- 투호던지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놀이 문화.
참여성	5	• 많은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함.
신기성	4	• 화살이 잘 들어가지 않으며, 투호를 마을 단위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점이 인상적임.
고유성	5	• 몸으로 움직여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의외성	4	• 투호 경연대회의 주 참가자 연령이 60세 이상임. • 투호놀이는 유·아동에게 인기가 있는 민속놀이만큼, 전 연령대가 경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투호던지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분석 결과

항목	평 가
장점	• 직접 몸으로 놀며 배울 수 있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
단점	• 전 연령의 고른 참여를 꾀할 수 있는 민속경연놀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연령의 참여가 아쉬움.

(2) 다문화 프로그램

① 세계 음식 문화 체험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다문화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 공간.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음식을 무료 시식 할 수 있어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짐.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타코야끼, 베트남 음식 등은 한국 외식 문화 사업이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문화가 되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음식이 소개 가 됨.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경우 각 나라의 단오절에 먹는 절식을 소개하면 좋겠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체험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많음 자국의 문화가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음. 체계적인 자국 문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주제가 있는 다문화 음식 선별 필요
 - 세계 각국의 음식을 시식하는 1차원적인 체험에서 그치고 있음.
 - 각 나라의 음식을 선정함에 있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을 선정.
 - 음식의 재료를 직접 체험하고, 만드는 시간을 저 해당 나라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통합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

② 일본 문화 체험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전통 놀이 기구를 체험 해 볼 수 있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놀이 기구를 체험해 보고 즐거워함.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둥근 공을 나무 막대 위에 올리는 간단한 놀이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반동 원리가 적용되어 매우 재미있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전통 고유 놀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문화를 알 수 있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숙한 한국어로 일본의 문화와 전통 놀이 방법을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친숙하였음.

-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전통 놀이 문화를 통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다양한 일본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3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1)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1)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항목 조사 기간

- ▶ 기간 : 2016. 05.11

(2)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항목 조사

- ▶ <신주 빚기> 본 행사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신주 빚기 행사장 철사 당” 과 임영 관 내 “서현” 의 공간배치와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함.
- ▶ 공간배치의 모니터링 항목은 지정문화 행사·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편의공간과의 혼잡도로 구분하였음.
- ▶ 편의시설은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개수·청결도, 쓰레기 처리 상황으로 구분하였음.
- ▶ 홍보 전략은 축제 홍보의 효율성,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설,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함.
- ▶ 진행 및 운영 전략은 프로그램 진행의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절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행사 개최 시기의 적절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모니터링 함.

(3) 공간배치

기준	점수	평가
무대·전시 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대도호부 칠사당에서 지정 문화 행사 “신주 빚기” 를 함. • 칠사당부터 임영관 객사 내 서현 까지 “신주 빚기” 체험에 대한 안내판이 미설치.
먹거리 공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 공간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 ‘신주 빚기’ 행사와 ‘신주 빚기 체험’ 행사를 위해 모인 체험객들을 위한 편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30분가량 진행되는 ‘신주 빚기 체험’ 은 체험을 하는 사람과 체험을 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 복잡했음.

- ▶ 무대·전시 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 강릉 대도호부 ‘철사당’에서 ‘서현’에 이르는 이동 동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음.
- 강릉 임영관 내 ‘서현’의 넓은 앞마당을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치러지는 전통 민속 놀이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함.
- “신주 빚기 체험객”의 ‘입장 동선’과 ‘퇴장 동선’을 각각 확보하여 체험을 하려는 사람과 체험을 마친 사람이 복잡하게 뒤엉키지 않도록 해야 함.



임영관 ‘서현’ 앞의 사용하지 않은 넓은 뜰 VS 강릉 야행 당시 적극적으로 사용된 모습

▶ 먹거리 공간

- 지정문화 행사 ‘신주 빚기’가 하루 진행되며, ‘신주 빚기 체험’ 역시 하루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식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
- 25°가 넘는 더운 초여름 날씨와 200여명 정도의 참가 인원이 모인 장소라면 식수의 제공이 필요함.

▶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 아침부터 시작부터 시작된 ‘신주 빚기’ 행사와 ‘신주 체험 행사’ 사이에 약 2시간 정도의 공백이 생김.
- 본 행사와 체험 행사를 다 참가한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볼거리, 편의 공간이 없음.

- 체험을 기다리는 체험 객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체험객의 입장 동선과, 퇴장 동선이 각기 확보 되지 않아 '서현' 입구가 매우 혼잡하였음.

(4) 편의시설

세부내용	점수	내 용
주차시설	1	• 주차시설이 없음.
식수시설	1	•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 이어서 따로 마련된 식수시설이 없음.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3	• 칠사당과 대도호부 관아 사이에 공동 화장실 하나, 서현에 이동실 화장실 한 개 있음. • 쉽터로 마련된 곳은 따로 없었음.
화장실 개수 · 청결도	1	• 공동 화장실은 깨끗하였으나, 화장실이 시야에 없고 안내 판이 없어 화장실 이용이 어려움.
오폐수처리시설,	2	• 보지 못함.
쓰레기 처리	2	•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려움.

▶ 주차시설

- 주차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강릉 시내의 택시 부 광장의 공공 주차 시설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수시설

- 단오 시작 한 달 전 진행되는 하루 프로그램임을 감안한다면, 고정된 식수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하지만 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된 장시간의 지정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임을 감안한다면 관람객 및 체험 객 에게 간이 식수는 제공이 바람직함.

▶ 화장실 시설 · 청결도

- 강릉 대도호부 관아 내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으며, 서현 뒷마당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음.
- 하지만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처음 방문한 관람객 및 체험 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관람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5) 홍보 전략

세부내용	점수	내용
축제 홍보의 효율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 시작과 끝이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음. • <강릉 단오제>의 특별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단오제가 시작했는지조차 모르는 강릉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음.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함. • 사회자가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지만 관객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음. • 외국인 체험 객을 위한 다국어 체험 안내문이 필요함.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SNS, 인터넷 홍보가 필요함. • 단오제를 홍보하는 것은 현수막으로밖에 보지 못해 아쉬움.
안내시설 (방송, 표지판, 안내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빚기 체험 장에 관한 안내 표시가 없어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움.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요원이 친절함. • 평소에 체험해 보지 못한 전통 문화 행사들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신주 빚기 체험’ 에서 만든 신주를 도가에서 숙성 시켜주는 방법을 안내해 줌. • 신주 빚기 체험에서 만든 신주를 단오장에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방법을 제시해 줌.

- ▶ ‘신주 빚기’ 행사 및 ‘신주 빚기 체험 행사’ 에 대한 대대적 홍보 필요
 - 신주 빚기 행사에 대한 의의와 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의식이 필요함.
 - 시청에서부터 칠사당까지 이르는 봉정미 행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단오제’ 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 빚기’ 행사를 <강릉 단오제>의 전야제 행사로 만들어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함.
 - ‘신주 빚기 체험’ 을 전통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교육 당국 및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조직을 전략화 해야 함.
 - 또한 ‘신주 빚기 체험’ 을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다문화 체험 센터 및 국내 각 대사관들에게 연락하여 우리 고유 전통 문화를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전통 문화 체험 상세 설명 필요

- “신주 빚기 체험” 과 같은 전통 문화 체험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우리의 전통 문화이므로 이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함.
- 하지만 부정이 탄다고 하여 “하미” (하얀 색 종이)를 입에 물고 술을 빚는 체험은 체험 도중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게 됨.
- 그러므로 체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세한 설명과 체험 동작이 직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림 안내서가 필요함.

▶ 글로벌 문화 체험을 위한 외국어 안내서 제작

- 지정문화재행사인 “신주 빚기” 행사와 “ 신주 빚기 체험” 행사에 베트남· 러시아 미국 등 다수의 외국인들이 참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안내서는 없음.
- 1000년의 축제,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강릉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 경기 개최 도시인만큼,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관광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6) 진행 및 운영 전략

세부내용	점수	내 용
원활성과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문화 행사 ‘신주 빚기’ 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순조롭게 진행됨. • 외부 용역에 의해 진행된 ‘신주 빚기 체험’ 은 앞선 ‘신주 빚기’ 행사가 끝난 뒤 2시간의 시간 간극이 있음. • 지정 문화 행사인 ‘신주 빚기’ 를 기리기 위해 신주 빚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주 빚기 체험 행사가 오후에 따로 진행되므로 체험 객 대부분이 신주 빚기 본 행사를 보지 못하게 됨.
순서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이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조직 되어있음. • 아리마당과 수리마당의 무대가 많이 겹치지 않는 점이 좋았음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음. • 참여율이 높음. • 관객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호응이 좋음. • 청· 장년층의 호응이 적어 아쉬움.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시험기간이 겹쳐 청년들의 적극적 참가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

- ▶ 좌식 체험을 입식 체험으로 변화 모색이 필요
 - 20~30분 방석 위에 앉아 좌식으로 하는 “신주 빚기” 체험은 체험이 끝나고 난 뒤 다리가 매우 저리고 아픔.
 - 좌식 생활이 익숙한 동양인들에게도 고통스러움.
 - 체험 방식을 테이블을 높고 서서 신주를 만드는 입식 체험 방식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을 제안해 봄.
- ▶ 프로그램 체험 객을 배려하는 세심한 배려 갖든 서비스 필요
 - 유·초등학생 체험자들을 위한 작은 위생 비닐장갑 준비
 - 외국인들 위한 영문 체험 가이드 준비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 프레스 존 설치 및 체험 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의 효율적 배치
 -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체험자이 체험에 집중할 수 없음. 이에 기자들의 프레스존 라인을 설치하여 체험자들이 체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체험 장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체험을 마친 체험 객들이 혼잡해 하지 않도록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야 함.
- ▶ 강릉단오제 “신주 빚기” 체험을 “국보 임영 관 객사문의 강릉대도호부 관아체험” 으로 확장, “전통문화관광체험” 의 장으로 구축
 - 신주 빚기 체험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보 제 51호 ” 인 “강릉 임영관 삼문” 이 있는 강릉 대도호부 관아 임.
 - 전통 및 역사적 장소에 대한 언급 및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우며,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아 아쉬움.
 -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에 “강릉단오제” 에서 이뤄지는 전통 민속놀이를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 체험장을 만들어 진행해야 함.
 -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와 강릉 단오장일대를 하나의 관광구역으로 묶어 전통문화관광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2) 2016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 배치

(1)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항목 조사 기간

- ▶ 기간 : 2016. 06.05 ~ 06.12

(2)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항목 조사

- ▶ 강릉단오제 본 행사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무대와 먹거리 공간 등의 공간배치

와 편의시설로 구분하였음.

- ▶ 공간배치의 모니터링 항목은 무대·전시 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먹거리 공간과 편의공간과의 혼잡도로 구분하였음.
- ▶ 편의시설은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화장실 개수·청결도, 오폐수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상황으로 구분하였음.
- ▶ 홍보 전략은 축제 홍보의 효율성,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설,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함.
- ▶ 진행 및 운영 전략은 프로그램 진행의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절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행사 개최 시기의 적절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모니터링 함.

(3) 공간배치

기준	점수	평가
무대·전시 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단이 너무 구석에 있어 찾아 가기 힘들. • 단오공원의 공간은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못함. • 무대공간과 체험 공간 배치가 자유로웠음. • 규모가 커진 만큼 확실한 구역 나누기가 잘 됨. • 옮길 수 없는 단오문화관을 중심으로 수리마당, 아리마당을 근방에 설치되어 이동하기에 동선이 용이하였음.
먹거리 공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공간이 너무 많음. •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음. • 공간 분할이 비교적 잘되어 있음.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공간이 적었음. • 설 수 있는 편의 공간이 적어 매우 혼잡하였음. •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

① “강릉단오” 에 대한 주제관 확장 및 적극적 홍보 필요

- “강릉단오” 에 대한 주제관 필요 및 홍보 필요
 - 1000년의 축제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강릉단오제가 왜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인지? 강릉 단오제가 다른 단오제와 무엇이 다른지를 주제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② 단오제단 중심화를 위한 공간배치

- 단오제단 후면 부스 개발 및 단오 섬의 ‘365단오’ 를 위한 단오 생태 섬 개발 섭다리 보수 필요

- 현재 단오제단은 단오 섬 옆, 단오 행사장 왼쪽 맨 끝에 위치 함.
- 하지만 단오제단에서 치러지는 ‘조선 제’ 및 각종 ‘단오 굿’ 은 “강릉단오제” 의 역사적 전통성을 확보하는 지정문화행사로서 ‘강릉단오 굿’ 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만들게 하는 당위성 있는 문화행사임.
- 그러므로 단오제단은 “강릉단오제” 축제장의 중심에 와야 하며 이를 위해 단오제단 뒷부분 공터를 개발하여 임대하도록 하여야 함.



〈 그림 10 〉 단오제단 후면 공터

- 또한 이불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강릉단오제 방문객들의 안전한 다리 이용을 위해 섭다리의 계단을 완만한 경사의 이동 통로로 시설 보수를 진행해야 함.



이불장에서 이불을 구입한 방문객

이불을 이고 가는 섭다리 이용자

- 단오 섬 역시 현재의 단오 섬을 “단오 생태 섬” 으로 정비하여 “365단오” 를 즐길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해야 함.
- 단오 섬의 조성 및 섭다리의 편리한 이용, 단오제단 후면의 부스 설치는 단오제단을 강릉단오 축제 현장의 중심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 시킬 것임.

③ 단오문화관 - 아리마당 - 수리마당 잇는 매력적인 이동 동선 개발 필요

- 단오문화관에는 “강릉단오” 의 역사와 “관노가면극” 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관 및 박물관 활성화 필요
- 단오문화관 및 단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또한 “강릉단오” 를 상징화 할 수 있는 단오 문을 랜드마크화 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단오문화관과 단오 문 그리고 아리마당을 잇는 단오 굴다리를 하나로 엮는 이동 동선을 계획하여야 함.
- 매력적인 이동 동선 개발은 관광객 스스로 찾아가도록 할 것이며 이는 “강릉단오제” 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④ 단오문화관 및 단오공원 공간 효율적 활용 모색

- 단오축제 총 기간 8일 동안 단오문화관 및 단오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음.
- 넓은 잔디밭과 인공 폭포, 분수 등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지 못함.
- 강릉 단오 축제 현장의 많은 관람 인원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시에 단오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단오문화관내의 단오 전시관을 찾아 “강릉단오” 에 대한 주제 및 역사를 알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⑤ 수리·아리 마당의 소음 간섭 조율 필요

- 아리마당과 수리마당간 음향 충돌 최소화 필요
- 단오 축제 현장의 공간의 협소로 인해 각 공연장 사이의 음향충돌이 있음.
- 아리마당과 수리마당 사이의 음향 충돌은 각 프로그램 일정을 조율하여 생길 수 있는 음향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함.

⑥ 단오제단 및 각 공연장과 업체 홍보로 인한 음향 충돌 조율 절대적 필요

- 아리마당 맞은편에 위치한 요식업체의 홍보로 인한 음향 충돌 심각함.
- 아리마당 맞은편에 위치한 요식업체 메000치는 매일 매 시간마다 업체 홍보를 위해 숙박무료당첨 행사를 진행함.
- 아리마당에서 진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중에도 음향 간섭이 매우 심해서 관람객들이 집중하기 매우 힘들었음.
- 단오제단 앞에 위치한 요식업체의 홍보로 인한 음향 충돌이 매우 심각함.
- 단오제단 앞 요식업체의 홍보 음향 소리가 너무 커서 단오 굿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임.
- 또한 요식업체의 한우 경품행사의 ‘룰렛 돌리기’ 행사로 인한 줄서기가 단오제단까지 이어져 단오 제단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
- 전통 문화거리 조성 및 공연 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효율적 공간적 분리 필요함.
- 또한 요식업체들이 과다한 홍보를 지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단속이 필요함.



단오제단 앞 요식업체의 무리한 홍보 1



아리마당 앞 요식업체의 무리한 홍보 2

⑦ 다양한 단오음식개발 필요

- “강릉단오제” 를 대표하는 음식은 “단오신주” 와 “수리취떡” 으로 매일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더운 초여름 날씨에 “단오 신주” 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떡은 쉽게 상하거나 체할 수 있음.
- 다양한 단오절 전통 음식을 지역 농산품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앵두화편 혹은 앵두 채와 같은 단오절 음식을 개발 하도록 함.



〈 그림 11 〉 앵두화채

(4) 편의시설

세부내용	접수	내 용
주차시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함. •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음.
식수시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안에 편의점 및 정수기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음.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소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음. • 휴게시설이 존재했지만 편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
화장실 개수 · 청결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을 비롯한 벤치, 수유시설이 눈에 띄지 않음. • 수유시설의 문이 잘 잠기지 않음. • 남자 화장실이 남:여=1:3의 비율로 배치되어 있어 남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함. • 화장실 청소 상태 양호함. • 화장실 악취가 심함.

오폐수처리시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화장실 악취가 매우 심함. • 남대천 오폐물을 자주 치워 깨끗한 축제 환경이 좋음.
쓰레기 처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로 쓰레기통 배치가 많아 쓰레기 처리가 용이했음. • 청소미화원들의 쓰레기처리 작업이 신속하고 정확하여 단오장 환경미화에 아주 좋았음.

① 주차시설 부족

-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단오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주차시설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관람객 및 강릉 지역 주민을 위한 단오장 방문 셔틀 버스가 운행되어야 함.
- 현재 셔틀 버스 운행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 또한, 강릉 관광 명소를 연계한 “강릉 단오 관광 투어 버스” 기획이 필요함.

② 수유시설 부족 및 편의 시설 부족

- 110만 명이 방문한 “강릉단오장” 에 수유시설 편의시설확충 및 공공디자인필요.
- 110만 명이 방문한 강릉단오장에 수유시설이 단 한 곳임.
- 수유시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이 필요함.
-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 설치가 필요하고 모유 수유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함.
- 또한 아기에게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비교적 조용한 곳에 수유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현재의 수유시설 장소를 아리마당 옆에 위치해 있어 음향의 간섭이 매우 심함.

③ 화장실 공공디자인 개선 및 내부시설 확충 , 시설 점검 필요



- 화장실 공공디자인 확충
 - 남자 어른들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혼동하여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직관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노가면극의 캐릭터를 이용, 화장실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해야 함.
- 화장실 내부시설 확충
 - 화장실 벽면에 가방걸이가 없어 핸드백 및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함.
 - 이에 벽면에 이동이 용이한 가변적인 선반 설치가 필요함.
- 화장실 계단시설 점검 필요
 - 화장실 계단이 비스듬하게 박힌 경우가 많아 어른들이 방문이 많은 “강릉단오제”에 사고위험이 많음.
 - 상시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함.
- 남자 화장실 시설 확충 필요
 - 남자 화장실이 더 적어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남자 화장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④ 쓰레기처리 및 오폐물 처리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대기실 마련 시급.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오폐물 처리 분업이 효율적으로 매우 잘 이루어 졌음.
 - 깨끗한 “강릉단오장” 을 만들 수 있었음.
- 쓰레기 수거 및 오폐물 처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을 위한 대기실 마련이 시급함.
 -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한 대기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아스팔트 도로위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대기 장소를 보다 시원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함.



환경 미화원



남대천 오폐물 청소



현재 대기실

(5) 홍보전략

세부내용	점수	내용
축제 홍보의 효율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 홍보가 적극적이고 대중적이지 못함. • 공연 프로그램 정보 얻을 곳이 없었음. • 처음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관광 정보가 많이 부족함.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단오제” 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요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 • 외국 공연 팀들의 공연에 대해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음.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의 다각화와 다양성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야 함. • 단오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안내시설 (방송, 표지판, 안내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시설 및 현재 진행 프로그램이 한눈에 보이지 않음. • 안내시설을 알려주는 간이 표지판이 필요함. • 공연시작 전 안내방송으로 위치와 시각을 알려주는 실시간 현황판의 배치가 필요함.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마다 안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음. • 수리마당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의 안내를 위해 MC를 두었으나, 아리마당에는 전문 문화 MC가 없음. • 수리마당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배치가 인상적임. • 하지만 아리마당 및 단오제단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음.

- ① “강릉단오제” 안내 방송의 시각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 공연 안내 및 축제 현장 안내 음성서비스를 시각화 할 수 있는 LED 판 설치 필요.
 - 첫째, “강릉 단오제” 현장은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운 축제의 장이라는 점.
 - 둘째, 다른 지역적 축제와 달리 전통 문화 축제이므로 고령의 어르신 관객들이 많이 참여 하여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 셋째, 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 넷째, 세계 인류무형 문화축제 “강릉단오제” 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연 안내 및 축제 현장 안내 방송 서비스를 시각화 해야함.
 - 또한, 아리마당· 수리마당· 단오문화관에서 동 시간에 벌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 진행 현황판도 필요함.
- ② “강릉단오제” 프로그램의 정보 공유 및 교육 필요
- 안내소에 배치된 안내원 “강릉단오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정보 공유 및 교육 필요”
 - 2016 강릉단오제는 8일간 총 12개 분야 7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통역사 등 강릉단오제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있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이루어져 있지 않음.
 -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안내요원들이 없음.
- ③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축제를 활용한 전통 문화 학교 홍보 행사
- 1000년의 전통. “강릉단오제” 를 내세워 “강릉단오 전통문화학교” 로서의 프로그램 개설
 - 1000년 동안 지속된 축제를 1000년 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함.
 -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통 가치를 전승 시켜 줄 수 있도록 전통 체험을 할수 있는 “전통문화학교” 를 각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강릉단오 전통문화학교” 를 통한 참여 그룹 다각화 전략
 - 교육 및 체험에 특출한 지역 및 연령의 선두 그룹을 선정하여 참여 그룹을 다각화 하도록 함.
 - 또한, 선정된 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한 후광효과 및 바이럴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함.

(6) 진행 및 운영 전략

세부내용	점수	내 용
원활성과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치는 공연이 많아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 아쉬웠음. • 공연은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공연 내용 적절함. • 낮 설은 전통 문화 공연에 설명이 필요함.
순서의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별 프로그램 구성은 큰 무리가 없었음. • 요일별 프로그램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하지만 간혹, 중요한 공연이 같은 시간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이 좋은 공연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음.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참여 모두 적극적임.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6일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일요일 연휴부터 단오제를 시작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었음. • 작년에 MERS(중동호흡기질환) 로 인해 취소가 되었던 만큼 많은 관람객이 단오제를 방문함. • 방문객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로 총 8일이라는 축제기간이 큰 사고 없이 끝남.

①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의 전략적 배치 필요.

- 영신제 ·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 와 아리마당의 정선 군립 “아리랑예술단” 공연이 같은 시간에 배치됨.
 - 정선 군립 아리랑예술단의 “아리랑” 공연은 “영신행차” · “신통대길 길놀이” 와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음.
 - “아리랑” 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아리랑 중 ‘정선 아리랑’ , ‘진도 아리랑’ , ‘밀양 아리랑’ 이 가장 유명함.
 -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아리랑” 공연과 “영신행차” 공연이 동 시간에 구성됨.
 -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2가지를 한 공간에서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성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함.

② “아리마당” 전통 문화 해설 아나운서 배치 필요.

- 수리마당, 단오 문화관 모두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는 전문 진행가가 배치되어 있음.
 - 하지만 아리마당에서 진행되는 낮 설은 전통 문화 공연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설

명해줄 문화 해설 아나운서가 절실히 필요함.

③ “아리마당” 전문 관리자 필요.

- “아리마당”은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행사 및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 및 도형 무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공연이 열리는 중요 공연장이지만 공연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아리마당의 공연 특성상 맨발 공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바닥의 쓰레기 및 요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아리마당의 질서를 관리해 줄 전문 요원 배치 필요.
 - 아리마당에서 공연되는 공연의 특성상 농악 소리가 흥겹고, 놀이마당의 특성으로 열린 공연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움.
 - 관람객들이 공연 중간에 난입을 하며, 기자 혹은 관광객들이 공연 중 무분별하게 난입하여 촬영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임.
 - 그러므로 아리마당의 청결 및 관람객들 객석 서비스를 돌봐 줄 수 있는 전문 요원이 필요함.



④ 아리마당 공연프로그램의 전략적 홍보 필요 및 음향 시설 확충

- 공연 프로그램의 전략적 홍보
 - 국가 무형 문화재 송파 산대놀이, 은울 탈춤, 강릉 농악 등과 같은 중요 무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전략적 홍보가 필요함.
- 아리마당 음향시설 확충 필요
 - 국가무형문화재 공연과 도 무형문화재 공연이 공연되는 아리마당의 음향시설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리마당의 음향시설에 비교, 음향시설이 부족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가 국내 무형 문화재의 산실이자 세계 무형 문화재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리마당의 수준을 세계전통문화공연장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그리고 영상시설 등 다양한 미디어 시설의 확충과 관객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이 시급함.

구분	시설내용	배치 인원
수리마당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 SYSTEM 일체 • 48CH 이상 콘솔(디지털) / 메인 스피커 1식 • (Line Array 12개 Sub woder 4개) / 모니터 스피커 3조 / 사이드필 스피커 1조 / 무선핸드 마이크 12대(핀 겸용) / 교향악단용 유선 핀 / 유선 마이크 • 기타 주변기기 일체 	오퍼레이터 3명
아리마당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 SYSTEM 일체 • 36CH 이상 콘솔(디지털) / 메인스피커 1식 / 벽걸이형 스피커 14개 / 스피커 브래킷 14개 / 무선핸드 마이크 12대(핸드 겸용) • 기타 주변기기 일체 	오퍼레이터 2명

〈 표 32 〉 수리마당 · 아리마당 음향 시설 표



V.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영향분석

1. 방문객 추정

2. 영향 (파급효과) 분석

1 방문객 추정

1) 방문객 추정목적

- 지역주민과 관광객(강릉 이외의 지역 참가자)의 수를 추정을 통하여 강릉단오제의 규모 파악
- 추정 참가자수에 의한 축제의 다양한 파급효과 파악 및 향후 축제의 역할 등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함
- 2016 강릉단오제의 전체방문객의 수를 추정함으로써 축제의 규모 추정 및 2017년(차기년도) 축제의 개념을 정립의 기초자료 확충

2) 방문객 추정 방향

- 강릉단오제 기간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고 하루 중 방문객 수가 가장 높은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로 세분하여 단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마당(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과 체험 존, 먹거리 존, 난장 등의 방문객 수를 평균하여 추정함
- 방문객수에 대한 계수는 두 팀으로 나누어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친 계수 결과를 평균한 결과임
- 측정 시간
 - ▶ 6월 5일에서 6월 12일(총 8일간)
 - ▶ 방문객 수가 많은 시간대 : 11:00~14:30 / 18:00~22:00
 - ▶ 방문객 수가 적은 시간대 : 14:30~18:00 / 22:00 이후
- 측정 장소
 - ▶ 단오제단,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 체험존, 먹거리존, 수리마당 남측 난장, 북측 난장 전체

3) 방문객 추정 결과

- 제1팀은 강릉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조사팀으로 강릉단오제 방문자 수를 일별로 6월 5일 : 134,197명, 6월 6일 : 138,223명, 6월 7일 : 145,415명, 6월 8일 : 96,809명, 6월 9일 : 145,667명, 6월 10일 : 176,928명, 6월 11일 : 138,036명, 6월 12일 : 145,683명이라고 집계하였으며, 합계 : 1,121,958명으로 추정하였음
- 제2팀은 강릉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문화론 수강 학생들로 구성된 조사팀으로 강릉단오제 방문자 수를 일별로 6월 5일 : 157,100명, 6월 6일 : 140,600명, 6월 7일 : 146,800명, 6월 8일 : 93,600명, 6월 9일 : 157,600명, 6월 10일 : 150,900명, 6월 11일 : 141,600명, 6월 12일 : 152,400명이라고 집계하였으며, 합계 : 1,140,600명으로 추정하였음
- 상기의 두 팀의 조사한 평균을 2016 강릉단오제 방문자로 추정치를 제시하며, 강릉단오제 방문자 수는 일별로 6월 5일 : 145,649명, 6월 6일 : 139,412명, 6월 7일 : 146,108명, 6월 8일 : 95,205명, 6월 9일 : 152,134명, 6월 10일 : 163,914명, 6월 11일 : 39,818명, 6월 12일 : 149,042명으로, 합계 : 1,131,282명으로 추정하였음

〈 표 33 〉 팀별 방문객수 추정

(단위 : 명)

구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합계
제1팀	134,197	138,223	145,415	96,809	146,667	176,928	138,036	145,683	1,121,958
제2팀	157,100	140,600	146,800	93,600	157,600	150,900	141,600	152,400	1,140,600
평균	145,649	139,412	146,108	95,205	152,134	163,914	139,818	149,042	1,131,282

※ 5일 : 일요일, 6일 : 현충일, 7일 : 평일, 8일 : 길놀이, 9일 : 단오, 9일 : 평일, 10일 : 금요일, 11일 : 토요일, 12일 : 일요일

- 방문객의 추정은 상기 세 부문의 추정한 수를 평균하여 113만 명으로 계상하며 지역주민 51만 명(45.1%), 관광객 62만 명(54.9%)으로 추정함

2 영향(파급효과) 분석

- 강릉단오제는 1000년 이상 강릉지역에서 전승되고 개최되어 오면서 지역주민의 정신, 향토애, 정체성 확립,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개최로 인한 그 파급효과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기대됨.
- 경제파급효과로는 내수창출효과와 소득, 고용창출, 세수증가효과로 세분되고 내수창출효과는 축제 개최를 위한 건설비, 운영비, 관련공공사업비의 지출, 입장자의 소비 및 관련민간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등이 있음.
- 소득, 고용창출, 세수증가효과는 관련소비, 투자지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 활동으로 인해 고용과 그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며 식음료세 등에서도 세수를 증가시킴.
- 또한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진흥 및 촉진 효과들<지역산업의 진흥,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의식(애향심)고취, 시가지 정비 등>이 있음.
- 지역 간, 국제간 교류의 촉진과 지역문화 활동의 충실화 등의 효과가 있음.

1) 경제적인 영향 (파급효과)

- 본 조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재정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추정함.

(1) 축제 운영관리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 강릉단오제 운영관리수입과 지출

- 2016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수입은 총 1,297,275,249원이며 지출은 총 901,256,360원(반납 예정 미집행 잔액 3,683,669원 포함)이며 실제 지출 총액은 897,572,961원(행사비 총지출 872,572,961원 + 미집행 금액 25,000,000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러한 실제 지출 총액을 파급효과의 산정 지표로 활용함.

〈 표 34 〉 2016 강릉단오제 행사 수입 지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행 사 비	행사비 미지출 예산	행사비집행잔액 〈반납예정〉 (이자포함)	
1,297,275,249	872,572,961	25,000,000	3,683,669 (295,619)	396,018,889

※ 주) 강릉단오제 위원회, 2016. 7

잔액 : 당해연도 사무국 일반관리비, 위원회 자체 사업비, 차기년도 상반기 사무국 일반관리비

▶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축제운영관리에 따른 지출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계상의 승수는(생산유발승수 : 1.9956, 소득유발승수 : 0.4248, 부가가치유발승수 : 0.8372, 세수유발승수 : 0.0672, 취업유발승수 : 0.0181로)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 등을 평균한 값을 토대로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반올림함.

〈 표 35 〉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 파급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액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1,741	1.9956	
소득유발효과	371	0.4248	
부가가치유발효과	731	0.8372	
세수유발효과	59	0.0672	
총합 효과	2,902	-	
취업유발효과	16(명)	0.0181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741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371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31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순간접세유발효과는 59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운영관리 지출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902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방문객의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

- 2016년 강릉단오제 방문객 수는 총 108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 지역주민은 55만 명(50.9%), 관광객(강릉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은 53만 명(49.1%)이었음.
- 방문객 조사를 위하여 52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의 20개 표본을 제외한 500개의 유효 표본을 이용하였고, 이 중에서 소비지출에 대한 응답의 항목별 평균값을 추정에 활용하였음.

〈 표 36 〉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단위 : 원)

항 목	지역주민(N=273)		관광객(N=227)		전체(N= 500)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교통비	1,646	13.1	15,965	26.6	8,147	23.9
숙박비	152	1.2	13,877	23.1	6,383	18.7
식음료비	6,354	50.6	15,714	26.2	10,603	31.1
유흥비	1,212	9.7	6,306	10.5	3,525	10.3
쇼핑비	2,592	20.7	6,401	10.7	4,321	12.7
기타	589	4.7	1,752	2.9	1,117	3.3
합계	12,545	100.0	60,015	100.0	34,096	101.0

- 지역주민이 강릉단오제에 참석하여 지출한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2, 545원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은 60015원이었음.
- 소비지출 구성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경우는 식음료비가 전체 소비액의 절반 이상인 6,354원이었으며 쇼핑비가 전체 소비액의 20.7%, 교통비가 전체소비액의 13.1%, 유흥비는 전체소비액의 9.7%가 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관광객의 경우는 교통비(26.6%), 식·음료비(23.1%), 숙박비(26.2%)로 세 항목에서 지출의 대부분(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릉단오제에 와서 방문객이 소비한 금액은 총 은 38,708백만 원이며 지역주민의 소비지출은 6,900백만 원,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31,808백만 원이었음.

▶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의 경제파급효과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단오제와 관련한 소비는 지역 내 소비와 추후 지역에서 소비할 가계지출 부분에서 소비한 것으로 상정하여 단오제 경제파급효과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만 추정하기로 함.

-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정하는데, 첫째는 축제 참가자 소비지출의 총액을 가지고 승수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항목 중에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축제의 성격과 개최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경우임.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총액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는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함.
- 제1안은 강릉 단오제 참가자(지역 주민과 관광객) 전체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제2안은 관광객의 소비지출 총액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그리고 제3안은 관광객의 교통비와 숙박비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파급효과 추정으로 나누어 제시함.
-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제3안을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 추정 결과로 제시하고자 함.

① 제1안(전체 참가자의 지출에 의한 영향)

〈 표 37 〉 전체 축제참가자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1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치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74,359	1.7052	
소득유발효과	13,087	0.3001	
부가가치유발효과	35,884	0.8229	
세수유발효과	4,221	0.0968	
총합 효과	127,551	2.925(승수계수)	관광 및 컨벤션 승수는 3.4 - 4.3임
취업유발효과	789(명)	0.0181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2013년 한국관광공사 통합 마케팅전략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강릉단오제에 와서 방문객이 소비한 금액은 총 은 43,607,250천원이었음.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4,359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13,087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5,884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4,221백만 원임.
- 따라서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방문자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 127,551백만 원이며 승수는 2.925로 보편화된 관광 및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 에서 최대 4.3 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789명이며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② 제2안(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영향)

〈 표 38 〉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2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치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63,449	1.7052	
소득유발효과	11,167	0.3001	
부가가치유발효과	30,620	0.8229	
세수유발효과	3,602	0.0968	
총합 효과	108,838	2.925(승수계수)	관광 및 컨벤션 승수는 3.4 - 4.3임
취업유발효과	673(명)	0.0181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2013년 한국관광공사 통합 마케팅전략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37,209,300천원이었음.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63,449 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11,167 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0,620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3,602백만 원임.
- 따라서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 108,838백만 원이며 승수는 2.925로 보편화된 관광 및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에서 최대 4.3 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673명이며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③ . 3인(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

〈 표 39 〉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3인)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치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47,152	1.7052	
소득유발효과	8,298	0.3001	
부가가치유발효과	24,414	0.8229	
세수유발효과	2,677	0.0968	
총합 효과	82,541	2.985(승수계수)	관광 및 국제회의 승수는 3.4-4.3임
취업유발효과	500(명)	0.0181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2013년 한국관광공사 통합 마케팅전략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2016년 강릉단오제에 참가자가 지출한 소비액이 강릉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교통비 총액(9,898백만 원)의 3분의 1(3,266백만 원), 숙박비 총액(8,604백만 원)의 3분의 2(5,678백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관광객의 실질적인 역내 소비지출총액은 27,652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실질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7,152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실질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8,298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실질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4,414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실질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2,677백만 원임.
 - 따라서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실질경제파급효과는 총 82,541백만 원이며 승수계수는 2.985로 일반적인 관광승수계수 보다 다소 낮음.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500명임.
- ▶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
-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관리비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파급효과)은 강릉단오제 전체 방문자의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1인),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2인), 실질적인 지역 내 관광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3인)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 따라서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총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관리비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제3안을 통합하여 추정하게 됨.

〈 표 40 〉 2014년 강릉단오제 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운영비지출	관광소비지출	총 경제파급효과	비고
생산유발효과	1,741	47,152	48,893	
소득유발효과	371	8,298	8,669	
부가가치유발효과	731	24,414	25,145	
세수유발효과	59	2,677	2,736	
총합 효과	2,902	82,541	85,443	승수 : 3,0899*
취업유발효과	16(명)	500(명)	516(명)	

※ *의 승수는 총합경제파급효과는 72,268백만 원/24,612백만 원(운영관리지출합계+제3안 : 교통비 지출의 1/3과 숙박비 지출의 2/3로 계상한 의 관광소비지출의 합계)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생산유발효과는 48,893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유발효과는 8,669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5,145백만 원임.
-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세수유발효과는 2,736백만 원임.
- 따라서 2016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는 총85,443백만 원(승수계수: 3.0899)이며 취업유발효과는 516명임.

2) 비경제적 영향(파급효과)

(1) 사회문화적인 영향

- ▶ 지역주민의 긍지 및 자부심 부여 : 천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
- ▶ 전통문화 및 놀이의 시연, 타시도의 무형문화재 공연, 외국의 민속공연의 시연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자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케 함.
- ▶ 신통대길 길놀이 프로그램과 각종 경연대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잠재된 지역문화의 전통과 특성의 재발견, 전통문화 컨텐츠 개발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함.
- ▶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축제 참가 및 행사 주도를 통하여 주민간의 연대감 조성, 소속감, 애항심이 고취되고 있음.
- ▶ 다양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녀노소, 가족 및 세대 간, 지역 간 소통, 협력, 화합의 장을 제공함.

- ▶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국내외에 알림으로 지역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시킴.
- ▶ 제외국의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및 민속문화(무용, 음악, 무언극 등)공연의 교류, 아시아 청소년 초청 단오 프로그램 공동 참여 및 교류 등을 통하여 국제친선,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함.
- ▶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 지역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참여하게 하며 지역을 위한 역할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됨.

(2) 환경적인 영향

- ▶ 강릉단오제의 주요 무대인 단오문화관 일원의 남대천과 둔치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증대와 행동화 유도.
- ▶ 강릉단오제 운영관리요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환경축제, 클린축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함(무분별한 흡연, 노상방뇨, 쓰레기와 오염물질 투기가 현저히 줄었음).
- ▶ 그린마케팅, 생태마케팅의 차원에서 지역, 단오제 행사장, 프로그램 운영자와 참가자 양측이 공존 공영하는 강릉단오제로 승화시키고 하스피탈리티, 어메니티, 엔터테인먼트가 공유되는 강릉단오제가 도도록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함.



VI. 2016 강릉 단오제 발전방안

1. 기본방향 및 SWOT분석
2.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가치의 정립
3. “강릉단오제”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4. 강릉단오제 마케팅 방안

1 기본방향 및 SWOT분석

1) 기본방향

-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 전승되어 온 강릉단오제가 현대문화와 조화·융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함.
-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린 강릉단오제가 더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충실하게 과실을 맺음으로 지역사회를 풍요하게 하며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기원함.
-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단오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공생마케팅(Symbiotic marketing), 생태마케팅(Eco marketing)의 차원에서 접근함.

2) SWOT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성(개최회수가 많음) • 국가무형문화재 • UNESCO무형문화축제 • 민간주도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장소(고수부지) • 개최행사의 비집중화 • 개최장소 산만성 • 지역상권과의 비연계성
기 획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 • 강릉시 및 강원도의 정책적 지원 • 외국의 전통공연예술과 교류 • 지역문화 시대 • 문화개발의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빙상경기 개최도시로서의 강릉단오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 강릉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 지역의 전통문화의 보전과 시연의 장 • 축제의 관광자원화,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장소의 산만성 해결을 위한 전통문화 분위기 확대, 조성 • 공공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단오관련 전통문화에 집중한 행사내용 구성
위 협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시장)의 약한 지지 • 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의 축제 등장 • 기독교 단체의 미신화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난 전통문화의 의미 부각 • 카톨릭 성당 및 신도 참여의 적극화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국제적 축제의 강점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지역상권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단오 불황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으로의 축제 장소 및 내용 확대 •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경제적 기대효과 확보 방안 마련

2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가치의 정립

- 본질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
 농업사회와 함께 시작되어 전승 발전되어 온 마을의 풍농과 초복제
 화의 기원제
 농산어촌인 강릉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제의와 놀이

1)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가치의 정립

(1) 중국 단오와 다른 강릉단오제만의 본질적 가치를 확립

- ▶ 중국 단오와 강릉단오제의 본질적 차이

〈 표 41 〉 중국단오와 강릉단오 차이 분석

항목	중국 단오	강릉 단오
기원	굴원이라는 관리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됨.	범일국사, 김유신 등 대관령 산신제와 풍요제 에서 시작됨.
송상물	물	불, 태양
놀이형태	개인에서 공동체 놀이문화	대규모 공동체 놀이문화
송배	조상송배형식 없음.	조상송배형식 있음.
음력 5월	나쁜 달로 인식	좋은 달로 인식
음식	쫄쫄	수리취떡, 태양을 상징

(2) ‘대한민국 전통문화 축제의 고장’ , “강릉” 위상 정립 시급

- ▶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총 129개 중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국가 무형문화재 종류만 총 8가지이며 전체 국가 무형문화재 중 약 7%에 달하는 공연이 ‘강릉 단오제’에서 열림.
- ▶ ‘강릉단오제’ 를 방문한 방문객 및 관광객들의 선호도 1순위, 2순위 프로그램은 ‘단오 체험 프로그램’ 과 ‘지정문화행사’ 임.
- ▶ ‘강릉단오제’ 는 전통문화축제에 대한 본질적 가치 확립 및 ‘강릉단오제’ 가 가진 지정 문화재 행사를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상품’ 등으로 변모 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꾀하여야 함.
- ▶ 더불어 ‘강릉’ 을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공연·축제의 고장이자, 전통 문화 관광의 대표 거점지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강릉단오제의 가치 실현 방안

(1) 개방

- ▶ 세계 및 국내 무형문화재 초청을 통한 개방성 확보
 - 세계·국내무형문화재들에게 개방된 전통문화공연의 장
 - ‘유교+불교+무속신앙’ 이 하나 되어 신과 인간이 즐겁게 노는 “강릉 단오제”의 주제에 맞도록 세계의 전통 문화 공연이 자유롭게 연출되고 공연될 수 있는 공간 및 인력 인프라를 확보해야 함.
 - 누구나에게 개방된 전통문화 체험의 장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장소를 구축하여 365일 전통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적 인프라 확보 및 전통에 기반한 체계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이 시급함.

(2) 다양

-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 ‘강릉 단오제’를 원형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확보 필요
 - 천년의 역사를 가진 ‘강릉단오제’는 그 역사 만큼이나 다양한 설화와 민담, 신화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극은 국내 유일의 무언극으로 가면극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독특한 지역 색을 지니고 있어 캐릭터성을 지님.
 - 다양한 스토리와 캐릭터 성을 극대화 시켜 ‘강릉단오제’의 전통 문화 자원을 현대 미디어 콘텐츠 자원으로 변화시켜야 함.
 -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성의 다양한 변주는 ‘강릉단오제’를 보다 풍성하게 할 것이며, ‘강릉단오제’의 이해 폭을 넓혀 줄 것이고, 소비자에게 새롭게 소비될 것임.

(3) 역동

- ▶ 시간의 역동성 확보
 -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함.
 - 0세부터 100세지 모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시간의 역동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삶의 역동성 확보

- 몸을 움직여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역동성 확보.
 - 체험적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체험에 초점을 맞춤.
 - 체험은 기능적 가치를 대신하는 감각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가치를 제공함.
 - 체험 객들은 즐거움을 얻고, 자극받고, 감정적으로 영향 받으며, 창조적으로 도전 받기를 원함.

(4) 풍요

▶ 단오는 모내기를 한 뒤 풍년을 기원하던 제에서 유래.

- 이러한 풍요 제의 성격을 확장시켜 대한민국 전체의 풍요와 세계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요축제로 확장시킴.
-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어촌, 산촌의 풍요 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함.

▶ 풍어제와 같은 타 지역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참여 활성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영등굿은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음력2월에 제주에서 시행하는 세시풍속임.
 - 요왕을 맞아들이는 의례인 요왕맞이를 하며, 요왕님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제를 지냄.
- 풍어제의 성격이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농사의 풍작과 평온을 기원하는 발복 신앙과 그 맥을 같이 함.

(5) 융합

▶ 세대 간 융합

- 세대 간 소통
 - 1000년의 단오제가 10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참가를 전략적 및 지속적으로 기획하여야함.
- 세대 간 융합
 - 전통 민속놀이경연대회 및 전통문화육성 및 전수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관심 증가 및 일자리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융합

- 타 지역의 중요문화재 행사 공연 및 문화 행사를 통한 교통· 융합 활성화 필요.
- 타 지역 문화 주민 초청 행사 및 관광 상품 교류 활성화 필요.

▶ 민족융합

- 세계 각 민족들의 전통 및 문화 공연 교류를 통한 축제의 글로벌 활성화 필요.

- 다양한 세계 민족 구성원의 교류 및 화합 모색.
- ▶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
 - “단오 신주” 의 한정 마케팅 및 고품격 브랜드 포지셔닝
 - 단오 캐릭터의 현대화 필요
 - 단오신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

3 “강릉단오제”행사장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1) “365 단오” 를 위한 거점 지역 확보 및 효율적 공간배치

○ 단오장 주제별 공간배치

- ▶ 단오전통문화존 – 전통문화 공연존 – 현대문화 공연존 – 난장존으로 일관된 공간배치



〈 그림 12 〉 단오 공간 배치 예

2) 각 구역을 테마별로 묶어 공간을 조성함

○ 전통문화 체험거리

- ▶ 단오 문을 입구로 하여 단오제단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거리 조성함.
- ▶ 단오제단과 단오섬을 연결하여 단오제에 관련된 모든 문화 체험을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이색적인 체험공간을 구축함.

○ 공연거리

- ▶ 전통문화 공연과 현대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연거리를 조성함.
- ▶ 전문적인 프로 무대 공연팀과 아마추어 팀들도 공연을 할 있도록 거리문화를 조성함.
- ▶ 아리마당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조명 시설 등을 개선 확충하여 세계적인 전통문화공연장으로 개선함.

○ 먹을거리

- ▶ 단오 음식 거리, 향토 문화 전문거리, 다문화 음식 거리 등 음식 업체들을 분류하여 각 음식 종류별로 엮어 먹거리 테마 공간을 조성함.

○ 저자 거리

- ▶ 먹은 뒤 쇼핑 및 재미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자거리를 조성함.
- ▶ 단오에 대한 주제관 및 캐릭터, 단오 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스 및 홍보공간을 구축, 관람객들이 다시 단오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간을 구성함.

3) 고수부지 행사장 대안 고려

- 우천시, 단오제 행사장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남대천 고수부지 이외의 장소에서도 강릉단오제 개최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파크에서 단오 행사 개최 방안 고려
- 중장기적으로 강릉단오민속촌의 건설에 따른 행사장 확보 및 단오행사상품의 통년화(通年化: 연 중 계속되는 단오장터 등)

4 강릉단오제 마케팅 방안

1) 마케팅 방안 서

- 강릉단오제의 마케팅 방안은 기본적으로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공생 마케팅(Symbiotic marketing), 생태마케팅(Eco marketing)의 차원에서 접근함.
- 축제와 관광이벤트의 운영관리는 크게 방문객 지향성(교통, 줄서기, 티켓팅, 정보, 기본적인 서비스, 편리성과 안전, 진행요원 관리), 주최자 지향성(utilities:수도·전기·가스, 인프라 시설, 기술서비스, 안전시스템), 커뮤니케이션(장비, 절차, 인증, 매체관리, 일정관리)이라는 세 개의 서브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음 (Donald Getz)
- 강릉단오제는 인류문화유산으로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음.

2) 단오 캐릭터를 이용한 공공디자인 개선

- 공공디자인은 주민생활의 질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디자인 하는 과정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안에서 국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요구를 조절하는 것임.
- 강릉단오제에 필립 코틀러의 3.0마케팅 컨셉을 적용하여 단오제 행사와 캐릭터 및 시설들의 기능적인 향상 뿐 아니라 감성적 측면, 나아가서 참여자들의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단오제 행사와 캐릭터의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중의 동원(관광객 유치 포함), 공공 편의와 비용 절약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과 삶의 보람 창출, 쾌적한 환경과 도시의 연출이 가능한 공생마케팅이며 생태마케팅임.

〈 그림 13 〉 단오제 캐릭터를 이용한 공공디자인 개선 예



3) 강릉단오 신주의 NEW BRANDING

- “단오 신주” 의 NEW BRANDING
 - ▶ “단오 신주” 는 강릉을 지켜주는 신들께 바치는 신성한 술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이 내려 주는 풍요와 복을 상징하므로 “단오 신주” 의 상징적인 문화 가치를 새롭게 브랜딩하는 작업이 필요함.
- 강릉단오 신주의 공간화 및 관광자원으로의 조형물 설치.
 - ▶ 강릉단오 신주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조형물 설치가 필요함.
 - ▶ 강릉단오 신주를 담은 신주 독 혹은 신주 병을 제작하여 강릉단오제의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강릉단오 신주 병과 신주 술잔은 강릉 단오의 특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것임.

〈 그림 14 〉 강진 청자축제 상징 조형물



강진 청자 축제 조형물

- 기간 : 2016.07.30.~2016.08.07.
- 주소 : 전라남도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 대상 : 청자 조형물, 청자모형
- 성분 : 우레탄 도장, 스티로폼 조각
- 크기 : H 8500cm 물레방아 지름 2400cm
- 재질 : 우레아강화작업 후 우레탄 도장

○ 강릉단오 신주 술잔 디자인 개선 필요

- ▶ 신주라 부르지만 신주가 아닌 막걸리임.
- ▶ 신주에 대한 이름이 무색하게 무료 시식 행사 체험이 매일 진행되고 있음.
- ▶ 신주를 나눠 주는 컵 역시 종이컵으로 신주라 여길만한 고급화 전략이 전혀 없음.
- ▶ 따라서 신주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신주 술잔 제작이 필요함.
- ▶ 신주를 체험한 관광객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365' 일 단오의 정신을 기리며 술잔을 가정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예: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쌀 컵)
- ▶ 또한, 단오 신주를 한정적인 시간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체험 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제한적 마케팅을 수행하여야 함.
- ▶ 단오 신주 술잔은 강릉단오를 상징하는 상징 상품이 될 것이며, 이는 강릉 단오를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상품이 될 것임.

4) 강릉 단오제 음식의 고품격 브랜드 포지셔닝 및 다양화

○ 수리취떡의 브랜드화

- ▶ 수리 취 떡은 단옷날 아침 먹던 떡으로 부정할 것을 쫓아 준다고 믿었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즐기던 단오 음식이므로 매일 시식이 가능한 수리취떡은 스스로 수리취떡의 가치를 떨어뜨림.
- ▶ 그러므로 특정한 일,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한정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리취떡의 개별포장을 통해 1000년 강릉 단오제의 고

품격 브랜드 수리취떡을 만들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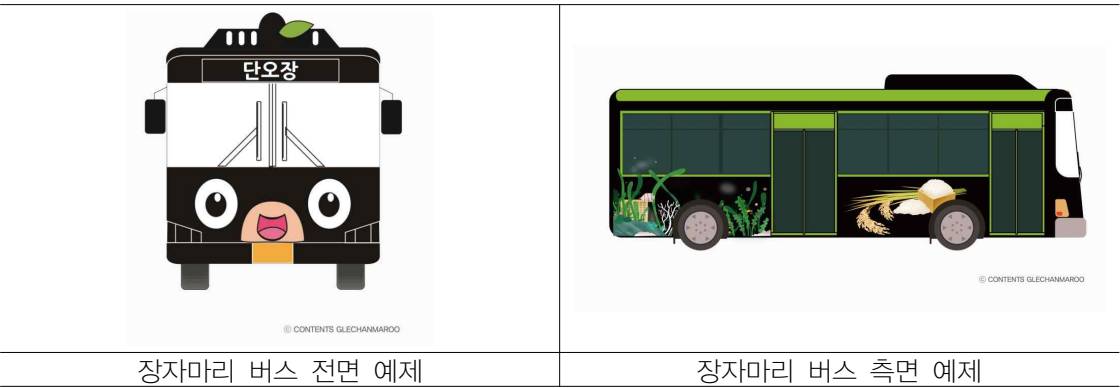
- ▶ 강릉단오제 수리취떡은 향후 365일 강릉단오제를 상징하는 먹거리 상품으로도 판매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임.

○ 강릉 단오제의 전통 음식 다양화

- ▶ 단오제의 다양한 단오 음식을 개발하여 오랜 강릉 단오의 정신과 역사를 함께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예, 준치탕, 앵두화채, 오미자 앵두화채, 썩인절미, 도행병, 제호탕 등

5) 주차공간의 확대와 셔틀버스의 운행 및 홍보, 버스의 재 디자인

- 강릉단오제의 불편요인 주차시설 부족하며 축제의 접근성은 좋으나 주차공간 이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의 확보 또는 단오제 출연 및 운영관계자, 상업시설 운영자 등이 차량 주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강릉단오제 셔틀 버스가 현재 운영 중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않으므로, 대대적인 홍보 및 단오제 셔틀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 단오셔틀 버스에 단오 캐릭터를 맵핑해 단오를 알림과 동시에 단오제 셔틀 버스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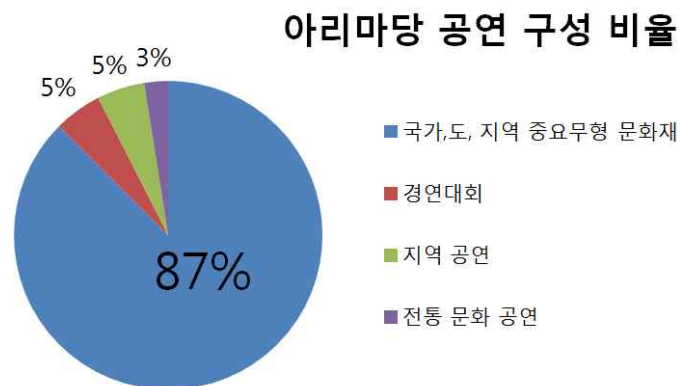
6) 무형문화재 클러스터 구축 및 위상 확립

-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아리마당에서는 총 40회의 전통 문화 공연이 열

리며 중요 무형문화재는 5회, 도 무형 문화재는 3회, 지역 무형 문화재 공연은 23회가 공연됨.

- 우리나라 지정 무형 문화재 공연 31회가 모두 아리마당에서 이뤄짐.
- 따라서 중요 무형 문화재 공연이 87%(40회)를 차지하며 기타 전통 문화공연의 경연 대회, 전통 혼례시연 등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공연이 시연되고 있으므로 “아리마당”을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의 공연장으로 개선(전문 해설 MC 및 해설 전임 관리자 배치, 음향, 조명 등 영상시스템 확충과 개선).

〈 표 42 〉 아리마당 공연 구성 비율



7) 스토리텔링 문화 관광 상품 기획 및 제작 필요

- ‘화천 쪽배축제’는 독특한 모양의 배를 제작해 화천 강에 띄우는 이색적인 여름체험 축제임.
- “월업편주”는 ‘에어링(airing: 공기를 쐬는 행위, 외출, 산책, 옥외운동) 화천’ 프로그램으로 자전거를 밟는 느낌으로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체험 상품임
- ‘강릉 단오제’의 수상자전거와 <화천 쪽배축제>의 ‘월업편주’는 그 작동 방법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따라 체험을 통해 얻는 느낌이 달라짐
- 그러므로 강릉단오제 수상자전거 역시 강릉 단오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에 집

중하여 스토리텔링 형 체험 문화 상품을 제작하여야 함



단오제 수상 자전거

물의 나라 화천 쪽배 축제, 2016

8) 단오문의 개선과 문지기 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

○ 단오문의 개선

- ▶ 단오 문을 보다 특징 있고 중후하게 개선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해야 함.
 - “시시딱딱이” 와 “장자마리” 를 단오문의 문지기로 활용하여 특화시킴
- ▶ “문 지킴이” 관광상품화 국내 사례
 - 광화문
 - 당시 궁궐을 지키던 군인들의 복식과 무기, 각종 의장 물을 그대로 재현.



단오 문 현재

- 역사와 전통문화의 교육적인 요인을 활용함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관광 자원화 하여 수준 높은 문화발전에 기여.
- 관광객유치를 위해 궁수문장교대의식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재현함.
- 관광객들에게 전통기마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타임도 제공.



광화문 수문장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해미읍성
 - 서산 해미읍성의 주출입문 진남문의 수문장(문지기)로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수문장의 자리를 지킴.
 - 수문장 근무시연 프로그램은 인기 있는 관광프로그램임.



수문장 근무시연



해미읍성 진남문 수문장

- ▶ “문 지키미” 해외사례
 - 영국 버킹엄 궁전 근위병
 -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근위병 교대식으로 영국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는 문화 상품임.

- 버킹엄 궁전의 근위별 교대식은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문화상품임.



- 스웨덴 근위병
 - 푸른 제복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가만히 서있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걸어 다니거나, 들고 있는 총을 움직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

9) 2018 동계올림픽 활용 세계화 확충

- “2018 동계올림픽” 을 기점으로 강릉단오제의 세계화 확충이 필요함.
- ‘2018 동계올림픽’ 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문화올림픽의 핵심 콘텐츠로서 강릉단오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야 함.
- 세계인이 함께하는 “365단오 체험” 장의 조성 및 핵심 시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비전과 전략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

개최효과



국가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및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유산 창출

〈 그림 15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효과

10) 홍보 및 상품화 방안

○ 지속적인 지역 내·외 홍보 시스템 구축

- ▶ 단오학술제 개최,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 개최 등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행사 개최 필요.
- ▶ 타 지역 강릉단오제 해설자 교육 실시를 통해 다른 지역에 강릉의 문화를 전파할 전수자 확보 필요.
- ▶ 현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노가면극 시연 및 경연대회 개최를 상설 행사로 진행
- ▶ 강릉단오신문 발행 추진

○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 ▶ 각종 지명도 있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를 통해 강릉단오제 홍보 필요.
- ▶ 관광 블로거 및 문화 콘텐츠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강릉단오제 홍보 필요.
- ▶ 광역도시의 지하철 노선 및 쇼핑센터 등 광고판 설치
- ▶ 지역여행가 및 인바운드 여행가 초청 및 방문 강릉단오제 판촉

○ 강원도, 강릉 시, 한국관광공사와의 연계한 홍보

- ▶ 강릉의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추진.
 - 예 : 오죽헌 + 경포대 + 안목 커피거리 + 강릉단오
- ▶ 강원도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추진.
 - 예 : 고성 DMZ + 영월 단종 능 + 강릉 단오
- ▶ 한국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한 강릉 단오제 상품 개발 추진.
 - 예 : 한국 민속촌 + 경복궁 + 제주도 + 강릉 단오

○ 강릉단오 신화와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필요

- ▶ 강릉단오 캐릭터의 리뉴얼을 통한 캐릭터 활성화 필요.
- ▶ 강릉단오 캐릭터 및 강릉 단오 신화 및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개발 필요.
- ▶ 강릉단오 캐릭터 및 스토리를 통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 등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필요.
- ▶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캐릭터 상품 개발 및 문화 상품 개발 필요.



VI. 부록

부록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부록2. 전문가 간담회 녹취기록

부록3.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현황

방문객 설문지

각 부문 체크리스트지

부록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 인터넷 모니터링 1

〈2년만의 단오, 흥겨움이 가득했던 2016 강릉단오제 1박 2일 강릉여행〉

작년엔 아쉽게도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어 강릉시민들의 아쉬움을 샀던 강릉단오제. 다행히 올해에는 무사히 진행되었다. 원래는 축제 시작일 즈음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 끝날 때 즈음에 다녀왔다. 2년만의 단오라 그런가 괜히 설레고 단오 표시만 봐도 기분 좋던 :) 요즘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걱정이라 하시던데 다행히 단오 기간에 비도 왔다.



마침 단오장에 가는 길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서 잠시 대피해 있다가 구경 * . - 강릉터미널에는 택시가 부족할 정도고, 단오 현장인 강릉 남대천 주위 도로 양옆에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즐비해 있었다. 세상에나,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2년 만에 열린 단오다보니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 온 듯 -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단오장을 구경하는데 거의 앞사람에 떠밀려가듯이 다녔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강릉단오제를 방문했다는 것에 뿌듯뿌듯 > < ♥ 단오서포터즈니까 단오문화관 가서 단오식권도 수령완료. 단오식권은 구매나 선물도 가능하고, 단오장 내에서 사용가능하다. 일부 안 되는 곳들도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좋음. 아이들을 위한 체험존에도 사람이 꽤 많았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체험존도 있음. 올해 새롭게 한복사진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1등이 누가 될지 궁금해진다. **



바로 옆 수리취떡과 단오주도 남남 :D 조금 취기가 오르긴 하지만 매년 꼭 먹는다. 올해는 꼭 관노가면극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보질 못했다. 아쉬운 대로 단오장에 갔을 때 진

행되고 있는 공연들을 보는 걸로 대리만족. 단오장에 가면 시간에 꼭 맞춰가지 않아도 볼거리가 많아 좋다. :)



올해 단오는 신기한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서 올라온 각 지역의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거나 신기해보이는 길거리 음식도 꽤 많았다. 단오장답게 이런저런 물건을 판매하는 곳도 많고, 캐리커처존도 있었음 -



남대천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는 와중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킹타코 야기.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다는데 타코야끼 만드는 게 신기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3천원에 5개, 5천원에 8개가 그랬던 듯.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찌되었든 엄청난 비주얼로 시선을 끌고 있어서 사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밤 늦게 갔더니 덤으로 하나 더 주셔서 6개에 3천원에 먹음. 어머, 완전 이득! 볼 때마다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단오 문. 정말 끝이 없는 단오장 구경. 우리 집은 매년 단오 때마다 일주일 내내 단오장에 간다.



강릉 단오장은 낮보다 밤에 더 반짝반짝 빛난다 **. 올해 단오의 마지막을 알리는 불꽃놀이까지 알차게 챙겨봤네. 신기하게 매일같이 단오장에 가도 하루하루가 아쉽게 느껴진다.

- 출처 : <http://blog.naver.com/jinatoon/220737367999>

○ 인터넷 모니터링 2

〈강릉 가볼만한 곳 _ 2016 강릉단오제/단오세시/강릉농악/송파산대놀이〉

강릉단오제 첫 날인 2016년 6월 5일 일요일.

무려 다섯시간을 달려 강릉 단오제에 건강이네 가족이 뒀습니다~ㅎㅎ

네비게이션도 고속도로는 엄두를 못 내고 국도로만 안내해 5시간을 달려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 입성!!



제2안내소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공영주차장이라 주차비는 많이 저렴하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이 좋아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건강이네 가족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안내소..

살다 살다 이렇게 큰 행사장은 처음 와보는지라 어디 먼저 가야할지 몰라 안내소에서 행사장 지도와 공연일정 시간표를 받아두고 단오제 속으로 출발~~알!!

국가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 공연이 준비중이더라고요~

※ 송파산대놀이란? ※

현재 서울지역에 유일하게 전승되는 탈놀이로 12개의 가면과 40여종의 춤사위가 등장하여 한국민속무용의 정수로 불리고 있어요~



송파산대놀이가 끝나고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이 바로 이어서 공연하더라고요~

※ 강릉농악이란? ※

강원도 영동농악의 중심으로 정통과 전통성을 살려 의상 및 모자 등을 옛 방식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강릉농악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의 농사과정을 몸짓으로 풀이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런 특징으로 농사풀이 농악이라고도 해요~

완전 신명나는 공연이었어요~ 어린 꼬마 단원부터 나이지숫하신 어르신까지 최선을 다한 정말 최고의 무대였어요~ ㅎㅎ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기다리던 단오세시풍속을 즐길 시간~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어서 창포머리감기를 포함해 두 가지씩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체험비를 확인 후 체험티켓을 구매해 각각의 체험부스에서 티켓을 내고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만들기 체험거리로는 관노탈 그리기(3천원), 관노탈 목걸이 만들기(5천원), 단오부채 그리기(3천원/5천원), 단오캐릭터 탁본하기(2천원) 등이 있는데 건군은 관노탈 그리기를 선택하고, 강양은 관노탈 목걸이 만들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창포물에 머리감기~ 요게 바로 창포랍니다~^^

※창포물에 머리감기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여름더위를 먹지 않고 액운을 물리치고 귀신을 막아준다고 해 행해진 풍습이에요~ 요 창포물에 머리감기는 체험비가 천원인데 천원내고 체험하기엔 죄송할 정도로 대접받는 체험이었어요~ㅎㅎ 그래서인지 가장 인기가 많은 체험부스이기도 했지요~ㅎㅎ 샴푸나 린스 없이도 너무나 부드럽고 향기 넘치는 찰랑찰랑한 머리카락~ 정말 신기했어요~ㅎㅎ 약속대로 유료체험 두 가지씩 즐겼으니 이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해야겠지요?! ㅎㅎ

※단오에 먹는 수리취떡은?※



예부터 단오날 여러 액을 제거하고 몸을 보양하기 위해 수리취 나물을 이용해 만든 절편으로 단오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강릉단오제에서는 어른들에게는 시식만 할 수 있게 하나씩 나눠주시고 아이들은 떡살로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을 찍어 볼 수 있어요~ 강양 재미있으며 긴 줄을 서서 두 번 씩이나 해 봤다죠?! ㅎㅎ 그리고 어른들만 시식해 볼 수 있는 강릉시민들이 정성껏 담근 단오술인 신주 시음~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아 금방 동이 났다죠?! ㅎㅎ

공연관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단오세시도 즐기고 나서 단오제 행사장 여기저기를 구경했는데요~ 요 부분에서 살짝 감동~ 모유수유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돌을 완모수유했는데요. 이런 대형 행사장 가면 모유수유실이 따로 없어서 화장실에서 모유 먹이기 일쑤였거든요~;; 그리고 물품보관소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 반하나~ 안 반하나!!!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자리잡은 강릉단오제 행사장. 사십 넘게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여기저기 행사장이나 축제장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큰 행사장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은 행사장도 처음이었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저희 건강이네 가족이 방문한 단오제 첫날 무려 10만 명이 이곳 단오제를 찾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창포교를 넘어오니 다양한 다문화 홍보부스들이 준비하네요~



그리고 거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강이네 가족... 강양은 터키산 예쁜 팔찌를 건군은 네팔 전통 악기 하나 구매했네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2016년 6월 5일 (일) ~ 6월 12일(일)까지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출처 : <http://blog.naver.com/max0314/220731280542>

○ 인터넷 모니터링 3

〈“2016 강릉단오제” 단오장 방문기〉

2년 만에 돌아온 강릉단오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강릉단오제라 기대도 컸던 행사인데요, 2016년 6월 5일(일)~ 12일(일) 총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일대! 이번 단오 기간 동안은 신기하게도 꽤 오래 날이 흐렸습니다. 첫 시작부터 며칠 동안 해를 보기가 힘들었죠.. 날이 서늘하게 느껴져서 복적인 행사장에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사진을 다시 보니 많이 흐림이 느껴지네요!



단오장의 다리입니다. 펄럭이는 저 단오깃발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_^ 먼저 아리마당에서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경포동 농악대” 우리의 가락으로 농악을 선보여주신 경포동 농악대 분들! 그네뛰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과 굿을 올리는 단오제단까지 찍고 안내소에서 제대로 둘러보기 위한 일정안내와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단오의 묘미인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지는 날이라 같이 정보가 나와 있네요~ 저는 ‘메이플비치’ 라는 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얼큰 소고기국밥이 단 돈 6000원! 고기도 듬뿍듬뿍 맛있었어요. 아리마당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가까워서 들린건데 강가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참 운치 있더라고요! 맨발로 수고해주신 ‘홍성 결성농요’ 단원분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직접 농사의 과정을 보여주며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와 걸맞게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수리마당으로 넘어가니 제12회 다문화가족 가요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강원도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여 인식을 버리고 한마음이 되어 즐기는 무대였습니다. ㅎㅎ 그리고 수리취떡과 신주 맛보기 체험부스에 방문해주신 최명희 강릉시장님! 웃차림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신통대길 길놀이!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흥은 말로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람한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 큰 기대 없이 지친 몸을 쉬러 앉았던 자리인데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꽃놀이의 향연도 놓칠 수 없죠. 올해는 3번! 7일(화)는 22시에 터졌습니다! 아마 제가 본 단오 불꽃놀이 중에 가장 화려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봐서 더 근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쉬운 마음에 단오문화관을 지나서 갔는데요. 단오공원 쪽에 이렇게 단오를 맞이하여 소원등이 걸려있는 게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게 더욱 큰 의미가 되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 출처 : <http://blog.naver.com/dlrud159>

○ 인터넷모니터링 4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를 가다!〉

2016 강릉단오제를 가기 위해 12일, 이른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설렘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안고 차에 올랐다. 어스름 새벽을 달리는 버스는 산을 넘고 터널을 서너 번 지나고, 초록의 들판을 지나니 늘 푸른 소나무들이 짙게 뽀얗게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만치 가로수에 ‘강릉단오제’ 현수막이 보였다. 아, 이제 도착이구나! 싱그러운 공기가 맨 먼저 반겼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먼저 매표소에서 돌아가는 버스표를 미리 찾아두고 단오제 행사장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님은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강릉단오제 이야기며, 소년체전 이야기, 2016평창동계올림픽 이야기며 쉴 새 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주셨다. 그러는 사이 단오제 행사장에 도착했다. 먼저 남대천 다리 위에서 나부끼는 단오제 깃발과 바람이 실려 이리저리 두둥실 거리는 애드벌룬이 눈에 들어왔다. 도착시간이 9시 30분쯤이라 아직 행사장은 조용했다.



우선 단오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단오문화관을 찾았다. 다행히도 단오문화관은 일찍 문이 열려 있어서 차분하게 문화관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곳은 단오제에 대한 모든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전시실에서 체험도 하고 가면도 써 보면서 오늘 하루 촬영계획을 세웠다. 밖으로 나오니 강릉단오제 소원 등이 알록달록 무지개다리로 놓여 있었다. 이곳에 소원을 단 모든 분들의 소망이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빌었다. 체험코너에 들어서니 단오부채 만들기가 한창이다. 체험하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의 모습에 더 긴장감이 맴도는 것 같았다.



창포물에 머리감기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한참을 기다려 창포물에 머리 감았다. 그냥 물로만 감았는데 정말 신기했다. 향긋한 향기와 부드러운 머릿결에 자꾸만

손이 머리로 올라갔다. 마치 머리 전체가 화~~하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에도 찾아가 보았다. 동계올림픽 종목 소개와 준비상황 각 경기를 체험해보는 코너가 운영되어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응원메세지에 담긴 글을 읽고 있노라니 가슴이 울컥해서 왔다. 단오제단 앞마당에 마련된 소원함에 어르신이 정성을 다해 소원을 쓰고 계시다. 무슨 소원을 쓰셨을까? 꼭! 소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단오제단에서는 하루종일 굿이 이어지고 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쉬지 않고 굿을 이어가고 있다. 관람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했다. 커다란 높이의 단오그네에선 발 구르기에 애를 쓰고 있다. 마음은 춘향이 치맛자락 펄럭이며 날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 자리에서 바둥거린다. 그 애쓰는 모습이 웃음으로 한 낮의 무더움을 달래준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먹거리 마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쫄쫄고소한 감자전과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개두름 잔치국수를 맛보았다. 창포다리 위에선 하루종일 관노가면극 주인공들이 춤을 추고 화면영상에서 단오굿이 실시간 보여지고 있다. 서서히 준비했던 행사들이 막을 내리고 자리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면서 2016 강릉단오제는 막을 내렸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단오제는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으로 선정되었다. 세계유산으로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존하고 전승해야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강릉단오제를 개최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신주를 담고 제를 올리고... 모든 준비를 한마음으로 함께 치러내신 강릉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아울러 2017년 강릉단오제에도 꼭! 다시 방문할 것을 다짐한다. 강릉하면 언제나 이 글이 떠오른다. 다 잊혀지고 아직도 마음을 울리는 신사임당님의 글 중 일부분이다. "언제나 강릉길 다시 찾아가 색동옷 얹아 입고 바느질 할꼬" 늘 이 글귀와 함께 강릉과 강릉 단오제는 내 마음속에 전통의 깊은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다.

- 출처 : <http://blog.daum.net/angel4020/16903457>

○ 인터넷 모니터링 5

〈강릉단오제 2일차, 2016 강릉단오제의 면면을 보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단오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3년 만에 강릉단오제를 다녀왔어요. 단오 당일인 7일에 처음으로 굿도 보고 불꽃놀이도 보고 싶었는데, 화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아쉽게도 당일엔 방문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되는 날이 현충일뿐이라 강릉단오제 둘째 날 다녀왔습니다!

단오장으로 건너가는 다리 초입에 제2안내소가 있어요. 안내소에는 전체 일정이 담긴 팸플릿은 물론, 매일 달라지는 일정이 자세히 소개된 팸플릿도 준비되어 있어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분들이 계셔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리 없이 행사 관람이 가능한 점이 인상 깊었어요.

창포다리 앞에는 쉼터가 있고, 그 뒤로 단오문이 있어요. 단오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편의시설이, 오른쪽에 강릉관광기념품샵이 있어요. 단오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체험 가능한 씨름장과 그네장이 있어요. 그네장엔 성인용과 이린이/청소년용이 있는데, 둘 다 타려는 줄이 길었어요. 씨름장은 갈 땐 아무도 없다가 오는 길엔 두 명이 살바를 매고 있더라고요.

단오장에는 단오세시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관이 기간 중 계속 운영됩니다.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적 받기, 창포머리감기, 창포비녀만들기, 단오부채그리기 등 단오와 관련된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도록 재료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와 지역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관노탈 그리기, 한복입기 체험, 단오신주 맛보기 등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제천의례에서 출발한 민속제로 축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군중이 운집하여 놀이 또한 집단놀이였어요. 이에 비하여 세시풍속은 개인적이라, 강릉단오제에서 세시풍속이 차지할 자리는 상대적으로 좁아요. 오히려 강릉단오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머리에 궁궁이나 쑥을 꽂고 오거나 창포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아 단오의 세시풍속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단오장에서 상시 운영되는 체험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취떡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요. 떡에 무늬를 찍는 체험도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한 번 해보세요 :D

이번 단오의 테마 중 하나였던 ‘한복 입는 단오장’의 일환으로 신설된 한복체험 부스는 3,000원으로 예쁜 한복을 입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핸드폰 한복사진 콘테스트까지 진행되니 상품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았던 관노탈 그리기/관노탈 목걸이 만들기 체험 부스예요. 단오 캐릭터 탁본, 부채 그리기, 부적 그리기 등도 체험존 내에 있었고, 가격은 2,000원 혹은 3,000원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탈 모양을 꾸미는 게 사랑스러운 곳이었어요.

대표적인 단오세시풍속인 ‘창포머리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 액운을 씻어내는 의미이고, 따로 린스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머리가 부드럽다고 해요. 한쪽에는 실제 창포를 단으로 세워두어서 신기했어요. 매번 ‘창포물’, ‘창포머리감기’만 들었지 실제로 처음 봤어요. 1,000원에 창포물에 머리도 감겨주고,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저도 염색만 아니었다면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치치부시의 관광, 문화 전시 체험 부스도 있는데요. ‘일본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 특유의 느낌이 가득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본 전통

놀이 등을 체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난장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수상보트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춘서커스단의 공연장이 있었어요. 전엔 별 생각 없었는데,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체험촌 바로 옆에 단오문화관으로 이어지는 지하도(?)가 있어요. '바람길'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름 덕분인지 괜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벽이라고 해서 멋진 단오부채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린 타일이 한 벽에 전시되어 있기도 했어요.

단오문화관 앞에는 신주교환처와 단오등표 판매 및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리취떡과 함께 맛볼 수 있던 신주를 교환해가거나, 소망등인 단오등을 구매 및 접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빈 단오등이 수없이 많이 걸려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단오등 자체도 예쁘고, 어두워질 때 쫘 점등되어 빛나는 모습도 예뻐요!

진짜 대박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농악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본 중 최고였어요. 역시 무형문화재, 특히 보존회는 다른 것인가 싶었던, 이 날 봤던 프로그램 중 관람객도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정말 너무 신나고 눈을 땔 수가 없었어요!

관노가면극은 옛날 관아의 노비들이 행하던 국내 유일의 무언가면극입니다. 양반과 각시, 두 명의 시시딱딱이와 두 명을 장자마리, 10여 명의 악사들이 춤과 동작으로 펼치는 놀이예요. 관노가면극이 내용은 양반에 대한 풍자를 장자마리의 놀이마당 열기를 시작으로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 시시딱딱이의 훼방, 소매각시의 자살소동, 화해마당 등 다섯마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타지방의 가면극과는 달리 연희자가 관노들이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강릉탈춤', '강릉탈놀이'의 특이성이며 통칭이 되었습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한국의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으로 대사 없이 춤과 몸짓으로만 연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강릉단오제의 중심은 신앙의례로 그것이 전부였고, 제의적 성격은 현재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장에서는 물건이 매우 싸고, 전국의 맛있는 요리가 총집합합니다. 쇼핑욕구와 새로운 맛을 즐기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장은 만남의 장소이며 쌓인 화포를 풀어내는 해방공간입니다.

무질서와 질서가 공존하고, 혼돈과 혼란을 풀어내고 내일을 위해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털어내는 해방공간인 것이죠. 난장은 강릉단오제를 외곽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바탕으로 오늘 날 강릉단오제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는 이유로 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단오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중고등학생 시절)에도 단오제 기간이면 꼭 난장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사고 먹었어요. 먹거리들을 사먹는다거나 잘 쓰지도 않을 필기구를 샀었죠ㅋㅋ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3년만에 찾은 강릉단오제가 정말 반가운 하루였어요. 서포터즈를 하면서 강릉단오제에 관해 더 알게 되었고, 해설사로 자원활동 중인 친구에게 안내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단오장을 찾은 것 중 가장 알찼던 것 같아요! 예전엔 난장밖에 몰랐기 때문에..ㅋㅋ 다만, 알면서도 일정이 맞지 않아 곳을 못 본 거 정말 아까웠습니다 π_π
곳과 불꽃놀이는 내년을 다시 노려보려 해요!

내년, 2017 강릉단오제에서 만나요~~

- 출처 : <http://may51fly.blog.me/220698765819>

부록2 전문가 간담회 내용 채록

- ☞ 진행자 1: 강릉 단오제 전문가 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만화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강릉 단오제를 함께 즐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릉단오제를 함께 즐겨주시면서 느끼셨던 점과 발전 방안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전문가 1: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 함께 나와 즐기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만 잘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한 인구절반은 아니더라도 100만은 훨씬 뛰어넘는 인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전문가 2: 퍼레이드가 인상 매우 깊었습니다. 어제 단오제에서 제일 먼저 본 게 퍼레이드인데, 일단 퍼레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도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발전단계에 있는 것 같고 100% 다 실현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미래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화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단오 캐릭터입니다. 단오 캐릭터를 좀 더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퍼레이드 할 때도 캐릭터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진행자 2: 캐릭터가 길놀이에도 전면적으로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 ☞ 전문가3 : 예.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 ☞ 전문가1 : 의미도 되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곡식과 해초를 다 붙이고 다니는 장자마리는 다산의 상징이죠, 이런 캐릭터를 전면에서 세워 단오제를 홍보해야 합니다.
- ☞ 전문가2 : 단오제를 홍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가장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제대로 홍보하면 단오제는 저절로 알려지는 겁니다.
- ☞ 전문가3: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단오제가 뜨고 나서 캐릭터를 알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와 이야기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단오제가 저절로 알려지게 됩니다.
- ☞ 전문가1 : 하지만 캐릭터만 있다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뽀로로’ 라는 행위 인형만 있었으면 뜨지 않았고요. 캐릭터가 사는 북극 마을도 있고 거기에 발명가 친구도 있고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예쁜 이야기들이 있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진행자 여 :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 ☞ 전문가 1: 스토리도 있고 스타성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마리만으로도 스토리는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스토리를 포장해서 팔아야 합니다.
- ☞ 전문가2 : 일본 쿠마모토 현의 쿠마몬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여러 캐릭터 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오나시”와 같은 부정적 캐릭터의 경우의 특성도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캐릭터의 특징을 꼼꼼히 생각해 보고 강릉단오제의 관노 가면극의 캐릭터들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자마리는 의미나 상징성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반대로 시시딱딱이는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딱딱이를 “가오나시”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행동이나 그런 일종의 루틴 한 동작들을 살려 특성화 시켜 캐릭터 성을 살려야 합니다.
- ☞ 전문가3 : 강릉단오제의 문제점은 시각을 좁게만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전통을 이어가고 유네스코까지 등재됐는데, 그 다음을 이어나갈 이야기가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 ☞ 전문가4 : 축제의 장을 하나의 타운으로 놓고 보았을 때 타운 내에서도 하나의 랜드 마크를 찍어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의 랜드 마크와 강릉 단오제의 이야기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가면 시시딱딱이가 나오고, 이곳에 가면 장자마리가 나오고 이곳에 가면 양반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 ☞ 전문가5 ; 혹은 방문객들의 인상에 남는 거대한 가변적인 조형물도 좋습니다. 그것이 곧 랜드 마크요 상징물이요, 포토 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강릉 단오장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부 대동소이 합니다.
- ☞ 전문가6 ;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하면서 찾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천년 축제면 뭐합니까? 천 만 명이라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뭔가 더 볼거리도 제공하고 천 만 명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 전문가7 ;제가 고향이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에는 춘향 테마파크, 광한루, 산성, 만인의 총, 남원산성 등 여러 문화 관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처럼 가볍게 여행을 즐기도록 아주 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강릉도 분명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단오 축제장만과 강릉 전체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천 만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 ☞ 진행자 남; 예, 그럼 그 포인트들이 될 만한 곳을 “강릉 팔경, 강릉 오경”이라 할 수 있겠죠.
- ☞ 전문가8 ; 전 단오제가 너무 단오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서 뭔가를 만드시려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의미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좀 다른 모

습에 부분들이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부분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만들 때 생각을 좀 풀어놓고 상징성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 ☞ 전문가7 ; 이런 행사에서 보면 너무 단오제가 그 의미에만 집중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뒤처지는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진행자 ; 단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홍보 할 수 있을까요?
- ☞ 전문가4 ; 브랜드 웹툰을 이용한 문화 PPL이 좋습니다.
- ☞ 전문가3 ;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인 관노가면극에 나오는 시시딱딱, 장자마리 등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이야기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해야 합니다.
- ☞ 전문가2; 예를 들어 카카오 프렌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캐릭터들이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안 예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 ☞ 전문가4; 우선 캐릭터를 많이 노출시켜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캐릭터 자체가 브랜드의 힘을 가지게 되면 캐릭터가 어디 출신인지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릉 단오제는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아, 애가 저기 강릉의 ‘관노 가면극’ 에 나오는 단오 캐릭터구나.” 하구요.
- ☞ 전문가8 ; 캐릭터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오제에서 정작 홍보해야 할 거는 굿입니다. 바로 ‘단오 굿’ 입니다. 단오제를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되도록 특성화 있게 홍보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의 해답은 단오 굿입니다. 저는 ‘단오제 굿’ 설명을 들으면서 단오 굿이 전국에서 열리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큰 굿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시작은 무속신앙입니다.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민간 사상에 무속 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큰 굿’ 과 그 굿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 ☞ 전문가7 ;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뭔가 소원성취 하고 싶은 사람들 내지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굿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오제 큰 굿’ 한 번 구경하러 가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단오제 굿’ 을 홍보해야 합니다.
- ☞ 진행자2;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릉 단오제의 핵심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무교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 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오 굿은 단오제의 상징성입니다.
- ☞ 진행자1; 그래서 지금 굿 무대를 현대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전문가8 ; 단오 굿을 문화 상품으로 해서 어른들을 위한 상품 제작도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소원을 빌러 올 수 있도록 문화 상품을 스토리텔링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력이 있는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 ☞ 전문가7 ;그렇게 되면, 제례나 굿에도 시야가 더 갈 겁니다. 캐릭터는 그 폭을 넓히는데 폭을 아래쪽에서 계승시키는 데에서 계기나 씨앗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어른들이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한테 시선을 끌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이걸 봐도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전문가4 ; 단오 콘텐츠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단오제를 위한 웹툰을 준비하거나 몇몇 작가를 중심으로 단편 만화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진행자 1: 현재 콘텐츠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 ☞ 전문가3 : 이런 토론이 끝난 후 사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시의 회의 이후 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강릉 역시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진행자2 : 지속적으로 단오관련 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진행자1 ;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단오제는 1000년의 역사 동안 지켜온 우리 문화입니다. 1000년을 달려온 만큼 1000년 다시 가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부록3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현황

1) 유네스코에 대한 소개

(1)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임.

- ▶ 그 이름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임.
- ▶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를 창설하게 됨.
- ▶ 유네스코는 지난 194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협약, 권고, 선언 등) 제정자, 지사고가 정보의 보급자, 그리고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 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네스코 3가지 유산 로고 : 왼쪽부터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2)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ICH) 모범사례4)

(1) 인류 무형문화유산 현황

-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전 세계 93개국 281건(2013년 12월 기준)에 이룸.

4) 참고문헌 : http://www.unesco.or.kr/heritage/ich/list_reg.asp?Div1=%C0%AF%BB%EA%BA%B8%8%A3%B8%F0%B9%FC%BB%E7%B7%CA%B8%F1%B7%CF (방문일자:2016.07.20.)

- ▶ 유네스코가 2001년, 2003년, 2005년 각각 선포했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90건은 2008년 11월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고 대표목록 선정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3년 기준 전체 281건이 되었음.
-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도니 무형유산은 35건(2013년 12월 기준)에 이룸.

3) 해외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사례

(1) 브라질, “판당고의 살아 있는 박물관”

- ▶ 소개
 - 판당고는 브라질 남부와 남동부 해안 지역의 대중음악과 무용의 한 표현이며, 손으로 만든 악기인 비올라, 바이올린, 틀, 북으로 연주함.
 - 전통적으로 판당고는 곡식 심기, 추수, 어로 등과 같은 집단 노동에 대한 보답 의미임.
 -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남자와 여자가 둥글거나 일직선으로 짝을 지어 손 뺑을 치거나 발로 바닥을 구르면서 춤을 춤.
 - 살아있는 박물관에는 지역 예능보유자와 악기 기능보유자들의 거주지, 문화 연구 센터, 지역 공예품의 판매 장소 등이 포함됨.
 - 집단 노동이 줄어들면서 판당고도 그 명성과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정체성을 잃었지만 예능보유자들은 축제와 지역 사회 행사에서 공연할 단체를 조직함.
- ▶ 현황
 - 판당고 집단과 5개의 자치 단체에서 온 판당고 예능보유자들의 경험을 교류하는 회의에서 인정한 판당고의 살아 있는 박물관이 개관함.
 -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판당고에 목표를 둔 계획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판 당고 예능, 악기 기능보유자, 문화계 대표자와 연구가들의 조직이 만들어짐.
 - 판당고 예능보유자들이 살고 있는 곳과 판당고를 듣고 춤을 추고 판당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곳을 알리는 광고 및 홍보 전단을 보급함.
 - 판당고에 관한 지역 문화 센터와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과 시청각 컬렉션을 일 반에게 무료로 공개 및 이용 가능하게 함.
 - 교재가 딸린 CD 2장과 도서, 판당고 예능보유자의 인생 이야기, 지역에서 판 당고를 연주하는 다양한 집단과 연주 방법을 보여 주는 사진과 노래책 발간함.
- ▶ 효과
 - 전국적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증대시킴.

- 안내소에서 판당고와 카이사라 문화에 관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순회 방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고, 안내소에서 판당고와 카이사라 문화에 관한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도서, 연구 논문, 음반 및 비디오 등의 40여 개 출판물을 각 문화 센터, 박물관,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개인과 단체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이 높아졌음.



〈 그림 16 〉 살아있는 박물관 판당고

(2) 스페인, “푸솔 학교 박물관의 교육 프로젝트”

▶ 소개

- 푸솔학교 박물관 프로젝트는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함으로써 가치 기반 교육을 증진함.
- 교육 공동체 안에서 교육, 훈련, 직접적 행동, 인식을 통해 유산을 보존하는 프로젝트 임.
-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엘체의 교외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푸솔의 전통·자연 환경·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를 학교의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지원받음.
- 어린이들이 전통의 전수자에게 배우며 학교의 일에 가족과 이웃이 모두 참여.
- 교육자와 프로젝트 공동연구자들이 중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데 모든 과정은 놀이로 이루어짐.
- 현지 조사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은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주요한 정보 제공자를 통해 구두 조사를 하며 목표로 정한 유산을 탐구함.

▶ 현황

- 대략 500명의 학생을 훈련해 왔으며, 61,000개의 소장품 목록 항목과 구전 파일 770개가 있는 학교 박물관을 만들며 일상생활의 유산을 보존하며 지역 내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문화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장려함.

- 프로젝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부가 꾸준히 증가함.
- 지방 정부(Generalitat Valenciana)는 박물관을 승인하고, 학교에 교육 인력을 추가함.
- 교육적 프로젝트는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통 문화 센터-푸솔 학교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꿈.
- 사설기구 및 공공기구와 협정도 체결했고, 국내와 국제 포럼에서도 프로젝트를 홍보함.

▶ 효과

- 교사와 외부 공동 연구자들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은 놀이 환경 속에서 전통의 전수자들과 접하며 엘체의 풍부한 유산을 탐구하고, 유산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어린이들은 스스로 유산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현지 자료 수집과 박물관에서 분류 및 전시하는 일을 하고, 유산에 대해 서로 가르쳐 주고,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줌.
 - 프로젝트는 문화유산을 공교육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 방법론 덕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기르게 됨.
 - 선구적인 특성으로 지역 농촌 사회, 엘체의 일반 대중, 교육 및 문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함.
 - 문화유산을 상향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모델이 됨.



〈 그림 17 〉 스페인 전통문화 센터 - 푸솔학교 박물관 프로젝트

2016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지

『2016 강릉단오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양질의 축제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통계법에 의한 조사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6

(사)강릉단오제위원회장
*조사책임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함석중 010-2636-3311
고은재 010-6341-4023

□ 다음 항목은 강릉단오제 참가자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 혹은 해당란에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강릉단오제에 지금까지 몇 회 방문하셨습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4회 이상

2. 이번 강릉단오제에 누구와 함께 참여하하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회사동료 ④ 친목단체(10인 이내) ⑤ 여행사패키지 관광 ⑥ 기타 ()

3.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① TV·라디오 ② 신문, 잡지 ③ 인터넷(강릉시 홈페이지) ④ 안내장, 팸플릿
 ⑤ 현수막, 포스터 ⑥ 주위 사람 ⑦ 여행사 ⑧ SNS ⑨ 기타 홍보물 ()

4.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3개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 지정문화재행사	신주빚기,대관령산신제,대관령국사성황제,구산서낭제,학산서낭제,봉안제,영신제,영신행차,조전제,단오굿,관노가면극,송신제·소제
2. 기획공연 및 전시	주채관, 기획공연 <굿 위드 어스2>, 기획공연 <에시자, 오시자>
3. 전통연희 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공연, 도(道)무형문화재 공연, 지역무형문화재 공연, KBS농악경연대회,사물놀이경연대회, 관노가면극 발표회
4. 무대공연	무대공연 예술행사 선정작, 한·청 실버가요제, 국내예술단초청공연, 자매도시 교류공연
5. 청소년어울림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 단오마당 D.Y.F , 불링블링강릉단오
6. 국외초청공연	중국길림성(EATOF 회원국), 몽골 튜브도(EATOF 회원국),프랑스가나페스티벌(ICCN 회원국),중국 형주시(강릉시 자매도시),중국사천성(울곡연구원 교류)
7. 단오 체험촌	수리취떡 맛보기, 단오신주 맛보기, 창포머리감기, 관노탈그리기, 관노탈목걸이 만들기, 단오캐릭터 탁본하기, 단오부채그리기,단오부적 그리기, 단오차체험,단오 컬러링 체험, 한복입기체험,오륜주머니체험
8.시민 참여 한마당	신주미봉정행사, 신주빚기체험행사, 단오소원등행사, 주민자치센터발표회
9. 민속놀이	씨름대회, 그네대회, 투호대회, 줄다리기대회, 윷놀이대회
10.문화예술행사	강릉사투리경연대회, 대한민국전통주선발대회, 단오깃발사진전, 학생미술대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대회, 전통혼례시연, 강릉제일고:강릉중앙고 축구정기전
11.부대 행사	다문화 체험촌, 전국사진공모전, 한복입기캠페인, 팸투어, 불꽃놀이, 경품추첨행사,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아세안 스쿨투어, GREAT KOREA 홍보사절선발대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이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3. 다음은 강릉단오제 참가자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강릉단오제는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축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사실을 아십니까?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 5일부터 음력 5월 초까지 한 달여간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영신제·영신행차,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는 음악, 춤, 문학, 연극, 공예 등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종합문화축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14. 다음은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입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신 행사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		

15. 다음은 강릉단오제 참가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만족				
	⑤	④	③	②	①
행사장까지 찾아오기 쉬웠다.					
행사장(남대천 일대)이 단오제 공간으로 적합하다.					
행사 안내 팸플릿의 내용이 충실하다.					
행사장내 안내요원(단오 해설 사)이 친절하다.					
행사장 내 안내시설(행사안내도, 안내방송)이 충분하다.					
행사장 내 시설이 구경하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다.					
축제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다.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축제의 프로그램이 강릉단오제와 강릉의 문화를 알게 해준다.					
축제관련 기념품이 다양하다.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향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적당하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휴식 공간(벤치, 그늘막 등)과 편의시설이 양호했다.					
화장실의 개수가 적당하고 관리가 청결했다.					

16. 다음에도 강릉단오제에 참가하실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7.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6 강릉단오제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평가지표

축 제 명	2016 강릉단오제	주관 및 주최	사)강릉단오제위원회/사)강릉단오제보존회		
조사자		일 시		장 소	
프로그램명					
구분	모니터링 내용				
주제성					
5 4 3 2 1					
참여성					
5 4 3 2 1					
신기성					
5 4 3 2 1					
고유성					
5 4 3 2 1					
의외성					
5 4 3 2 1					
총 평					

2016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평가지표(프로그램외적 요인)

축 제 명	2016 강릉단오제						주관 및 주최	강릉단오제위원회/강릉단오제보존회
조 사 자							조사일시	
구 분	세부내용						내 용	
편의 시설	1. 주차시설	5	4	3	2	1		
	2. 식수시설	5	4	3	2	1		
	3.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5	4	3	2	1		
	4. 화장실 개수·청결도	5	4	3	2	1		
	5. 오폐수처리시설,	5	4	3	2	1		
	6. 쓰레기 처리	5	4	3	2	1		
홍보 및 안내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5	4	3	2	1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5	4	3	2	1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5	4	3	2	1		
	4.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5	4	3	2	1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5	4	3	2	1		
공간 배치	1. 무대·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5	4	3	2	1		
	2. 먹거리 공간	5	4	3	2	1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5	4	3	2	1		
진행 및 운영	1. 원활성과 적절성	5	4	3	2	1		
	2. 순서의 적절성	5	4	3	2	1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5	4	3	2	1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5	4	3	2	1		
총 평								

2016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방안

인쇄일	2016.08.25
발행일	2016.08.31
집 필	함석중, 고은채
편 집	오연정, 임진주
제 작	도서출판 글찬마루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6호 전화 070-7797-2494

* 본 책자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사) 강릉단오제 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 1 강릉단오문화관
전화 | 033-641-1594
홈페이지 | <http://www.danojefestival.or.kr>
